

MAXIM

KOREA

WWE DIVA KELLY KELLY

GAME

새해 블록버스터大作 BIG4

Wii에게 새 생명을: 젤다의 전설
지문 닳는 모바일 대전 게임
소울칼리버5 여자 캐릭터 집중 분석

1월 특별 부록
MAXIM 미공개
화보가 담긴
한정판 캘린더

GEAR

SONY의 PSP VITA
최혜연이 고른 미러리스 카메라5
새해에 지를 시게 BEST4

PARTY

연말의 광란, 하드코어 수갑 파티

흑맥주 제대로 알기
고소 당하는 노하우
일진교복 변천사
MISS MAXIM TOP 3

with
7초의 사나이 UFC 정찬성
올벤 우승민
밴드사랑 김육빈
플레이보이 DJ SOPHIA

RANIA

www.maximkorea.net



2012년 1월호
정가 5,600원

Jeremy & Hanson
INTERNATIONAL

STYLISH PROTEIN

for Stylish Guys & Girls



샘플신청하기
지스타일 전국모임
Miss Maxim 최혜연

지스타일은 이지셰이크(Ez Shake)팩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셰이크 없이 흔들어도 마실 수 있는 신개념 프리미엄 프로틴입니다.

14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18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하루 권장량 35%의 풍부한 양	비타민 9종 A, B1, B2, B6, C, D, E, K, 이산화망간, 아연 함유량 33%	미네랄 5종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나트륨 함유량 33%	함유 BCAA, 옥타코사놀, 티우린	NO 합성감미료, 플라스틱, 포화지방
---------------------------------------	---	---	-------------------------------------	--------------------------------------

CONTENTS

72 ICON:

정찬성

전사의 심장을 아식한 UFC 파이터 '코리아존버'가 체중감량의 비밀과 UFC 숨은 비화를 밝힌다.

74 MAXIM 독자

개간지 스노보더 프로젝트

MAXIM과 슈카포인트, 국내 스노보더 강사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VP인 MAXIM 독자들이 휘닉스파크에서 함께 백2일을 곁였다.

78 PLAY THE MUSIC! DJ SOPHIA

'플레이보이'에서 가장 화끈한 그녀. 디제이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하여 영어도 잘 안 되는 MAXIM 에디터와 친구가 되자까지의 폴스토리, 그리고 그녀의 동대문 길거리 음식 사랑.

84 DRAG ME TO HELL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모터 스포츠는?

100 스나이퍼의 세계

1인이 땅개 100명과 맞먹는 스나이퍼의 위험! 이들에게 원상원림은 누워서 딱치기다.

104 KELLY MANIA

WWE 디바 Kelly Kelly가 당신의 심장을 두 다리로 조여올 거야! 정신 바짝 차려!

112 블록버스터 게임 BIG4

게임이라면 반드시 즐겨만 하는 블록버스터 게임 4인방이 한자리에 모였다.

90 FEATURES

라니아

군통령을 넘어 세계를 재패할 기세의 걸그룹 라니아가 새해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언더웨어 상의 코디조합마인 이너웨어 팔찌 게스 주얼리

COVER:
목걸이 게스 주얼리
원피스 아메리칸 아레발
팔찌 스와로브스키

CONTENTS

1 | JANUARY 2012



116 2011 MISS MAXIM TOP 3

천아슬, 이명희, 김지혜. MAXIM 독자들이 직접 뽑은 MISS MAXIM 결승 진출자. 3인이 몸을 뒤흔대며 함께 뜨거운 밤을...



54



62



104



130

DEPARTMENTS

12 CIRCUS MAXIMUS

(스파르티쿠스)의 색시 미인, 고소 당하는 노하우. 왕년에 놀던 형과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의 교복 패션. 현아VS.신정현. 대박 결론과 쪽박 결론. 삼재에 대한 오해. 2012년 질펀하기 놀기. 물만 먹고 살기

28 MUSIC

2012년 기대 음반 BEST5!

30 DRINK

포터와 스타우트 맥주의 기원

36 RATED

육번이의 밴드 사랑. 2011 방송 사고 어워드. 2012 히어로 무비 미리 보기. 쓰면 쓸수록 못해지는 앱. 올벤 우승민의 마지막 하루

42 GAME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 소울칼리버5. 호전적인 한국인을 위한 모바일 대전 게임. Wi에게 새 생명을: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48 LOVE: DIRTY TALK

침실에서 허를 찔러놓던 여려모로 유리하다.

52 STUFF

3DS 옛 먹방 소녀의 PSP VITA. 신년 다짐을 위한 지름신 강림. MISS MAXIM 최혜연의 간택을 받은 톨돌한 미러리스 카메라 5형제. 신상 시계 BEST4

68 SPORT: UFC 레전드 열전 #2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가 이야기하는 자상 최강의 수컷 이야기 2편!

128 STYLE

겨울 손장난을 돕는 장갑, 내발에 꼭 맞는 VANS 스니커즈, 스카장에서 막아주는 간디 작살 패션. 각질 제거의 왕도

138 CLUB

지구가 열망하기 전에 꼭 봐야 할 파티. 성인전용 하드코어 수줍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MEN'S
CLASSIC

남자의 외모는 경쟁력,
그 시작은 **MEN'S CLASSIC**



· Double Effect BB Cream 효능·효과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효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밝고 회사하게



트러블 방지
미술도 주춤이 트러블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bum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MAXIM

편집장 이경미
yj@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정 고경희 kiko@maximkorea.net
에디터 조성 김성현 psych@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ic@maximkorea.net
사원 송종민 jm@maximkorea.net
사원 박한늘리 nu@maximkorea.net
이사진트도 조다현 h@maximkorea.net
객원에디터 김재영 storm@maximkorea.net
장바버 julahar@maximkorea.net
이동수 su@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주임 이은학 eastcust@maximkorea.net
사원 조영준 zirqoo@maximkorea.net
이사진트도 신소희 ssh@maximkorea.net
이사진트도 서용정 yoon@maximkorea.net
이사진트도 진연경 eun@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주임 최인영 jo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종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탐방 사장님 oris@t2town.com

발행인/ 대표이사 이예성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교열 신선경 kshin011@dotum.net

인쇄 · 원색분쇄 (주)파라디파레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생자사리 19-1 인제인 아람순

유통 승주출판유통



발행처 (MAXIM) 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6-2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82 / FAX. 02-625-0188
2021년 1월호 통권 제20호 / 등록일자 2002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보 라-00250

MAXIM KOREA는 세계 30개국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남성 주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1년 7월 2일 유류권
대관인도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자에게 MAXIM의 알파미디어를 출판, 판매하고 알파미디어의 알파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과 알파미디어 외에 알파미디어 MAXIM의 프
랜차이즈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되므로 무단으로 열거 할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N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e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C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m

 TURKEY K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ANOV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OTE PETCHJAMR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 www.maximkorea.net |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konocorp.com | 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타임토피아 www.timetopia.co.kr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현대이마트 해피타임 02)2012-0425, 전진상사 02)744-4714, 타임가든 02)324-6272, 타임메인 02)6388-2927, 타임시도 02)6373-7743, 타임21 02)3424-7043, 타임월드 02)3132-4108, 패션존 02)3398-7527, 프루워치 02)779-6964 [경기] 디스상세 03)1781-8194, 대성 03)2325-7467, 뽕기봉 03)2626-0686 시계상사 03)441-0158, 서문주요리 03)463-9788, 우민 03)658-6883, 타임루즈 03)487-9057, 타임24 03)931-5555, 티파니 03)441-0158, 카시오모우 03)2502-7138, [충청] 예진시계 04)1640-5081, 신세계백화점 천안점 04)1640-5081, 보보시계 010-5494-5915, [전라] 타임엔젤로 062)222-3114, 타임피티 062)226-0305, 골드레노아 062)410-0138,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91, [대구] 공주나라 053)256-0975, 골드시계 053)424-4442, 그리니치 053)255-6165, 대구백화점(5층) 053)254-3977, 레프 053)425-0157, 신세계시계 053)566-3314, 유얼리아 053)428-2668, 해피타임 053)428-3086,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8-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667-7356, 명성 신상점 051)253-5354, 월드타임 051)245-8359, [제주] 제주 영문명세점 064)780-7671.

LETTER FROM MAXIM



모토로라가 구글에 팔렸다는 소식이 한 동안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 국내에서도 기업 매각, 인수, 합병의 물살이 거세다. 우선 말도 많고 달도 많았던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채금증권의 저축은행 인수 작업이 일 박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MAXIM의 돈도 꺼안고 주주있었던 제일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가 인수한다고 한다. 당장 오늘 밤에 마실 술, 하이트와 진로도 얼마 전 합병되어 '하이트진로'가 되었고,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곳도 롯데쇼핑과 GS리테일, 신세계 중 한 곳으로 넘어갈 모양이다. 택배 보낼 때 애용했던 대한통운은 C.에 넘어갔고, 월급 포개 보충 들어났던 동양생명도 한화나 푸르덴셜로 매각될 듯하다. MAXIM 식구들과 함께 지난 여름 워크샵 관계로 뛰놀았던 삼성 계열사 애버랜드는 지분 매각 방식으로 상당 부분이 KCC로 넘어가는 빅딜이 이뤄졌다. 박태준 회장이 떠난 조선, 철강업계와 재삼 깎아먹기 경쟁 중이던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올해부터 구조조정 목숨이 불어닥친다는 소식이다. 당신과 나완 상관없는 예? 아니다. 인수나 합병이나 매각이나 하는 빅딜에 꼭 뛰어드는 구조조정계의 칼바람에 우린 언제 짐을 싸야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 월급쟁이니 말이다.

잡지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잡지들이 매각 대상이 되어 몇 개월 째 협상 중이란 소식은 이미 이 바다에선 누구나 아는 예기가 되었다.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열광해보던 매거진이 폐간되고, 몸담고 있던 에디터들은 백수가 되어 길에 나앉을 테지. 종종 있는 일이기도 더 속이 쓰라다. 무엇보다 실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놀랄 일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같은 재미도 푼돈으로 투수직자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남의 회사 자문을 사고팔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회사는 사고파는 물건이 되었고, 그에 딸린 직원도 당연히 함께 팔려 다니다.

MAXIM도 요새 적잖이 시름시름하다. 눈썰미가 있는 독자라면 최근에 보이던 이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거다. 새 편을 짜는데 수반하는 구조 조정의 칼바람 앞에 몇몇은 독자님들에게 인수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 또 앞으로 얼마나 큰 물결이 파도가 미칠지 모르겠다.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만도 하지만, 사회가 그렇고 인생이 그런 것이니 한 달 한 달을 마자마일치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싶다. 혹이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닌 다른 이름이 보여도 너무 놀라지 말기를. 피식.

하지만 세상일이 항상 그렇듯 한 쪽의 시련은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아마도 1월에는 어김없이 2012년 MAXIM 공채가 시작될 거다. 월급 받으면서 한량질하고 세상 재밌는 것들만 쫓아다니고 싶은 자, 고리타분한 인생은 억만급을 쥐고 싶은 자는 1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와 취업 포털을 수시로 주시하기 바란다.

MAXIM 역사의 반토막을 함께해왔다. 그날들을 새삼 되짚어보고 느낀 건, MAXIM의 펜과 열혈 독자가 MAXIM에 들어왔을 때 가장 훌륭한 에디터가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업계 경력자 그 누구보다도 MAXIM을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독자들이 때문이다. 잠시 머물 요량으로 들어와 이력이나 쌓여도 언젠가, 대기업 공채를 기다리던 메뚜기는 역사나 이곳에서의 이력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사라졌다. MAXIM을 한 번이라도 킬 캠퍼드 왔었던 철진 청춘 남자들이여 오래 MAXIM이라는 곳 안에서 제대로 난정을 벌이며 늘 각오가 되어 있던 말이다.

세븐은 말러로 줄게
최하하야



편집장

이/영/이

● 2012 MAXIM 정기공채

- | | |
|-------|----------------------------------|
| 자격 조건 | 예절중단, 톨기만당, 성실근면, 기상천외, 마남미녀 대환영 |
| 공채 공고 | 2012년 1월 MAXIM 홈페이지를 주시할 것 |

사정만들, 이렇게 질러냈으니 뭘지 않을 수 없겠지?

24 HOURS WITH YOUR SKIN
AND MAKE YOUR BODY COMFORTABLE 

CRAZYBONE



CRAZYBONE PREMIUM UNDERWEAR COLLECTION

대리점 개성문의 / 고객센터 090-911-8989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11 KOON빌딩
www.crazyboneshop.com / www.icrazybone.com

CRAZYBONE
UNDERWEAR COMPANY



스타트포인트
사연 보내기



보내주신 달력을 참조해 언젠가는 반드시 수영복을 입은 핫한 소녀시대가 등장하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공대 아들이예요



남초 사무실에서 공대 아들이마냥 일하고 있는 막내 사원입니다. 팀원들 모두 MAXIM을 사랑해서 덕분에 매일 정독하고 있지요. 그중 박 모 대리님은 해당 월의 MAXIM 화보 사진으로 파티션을 꾸미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대리님은 11월호 제사카 고메즈의 사진을 보자마자 파티션에 꼭 붙여야겠다며 평소처럼 사진을 붙여두셨지만 비키니 사진인 관계로 자체 모자이크를 하셨습니다(사진 참조). MAXIM 편집부에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2월호 MAXIM을 보고선 "제사카를 대신할 사진이 없잖아?"라며 한 달 연계를 선언하셨죠. 대리님이 1월에는 새로운 화보로 파티션을 꾸밀 수 있게 더 멋진 사진을 부탁드릴게요.

P.S: 대리님의 본명은 자체 블라인드 처리를 하였습니다.

P.S.2: 대리님이 '김희성 에디터님 사...좋! 좋...꼭 읽고 싶습니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세요.

공대 아들이요, 이해일 사연

Q 걱정 많issimo. 어떤 달은 제사카고 메즈의 사진을 대체할 화려한 화보를 준비해줬습니다. 박 모 대리님도 흡족하시며 두 달 혹은 파티션의 사진을 교체하시게 될 겁니다. 그거제나 수많은 수컷 사이에서 고교분투하는 공대 아들이시라니! MAXIM 편집부의 마음이 짝어립니다 (음?). MAXIM은 세상 어느 곳보다 여자가 우대받는 여성 성취 위주의 잡단입니다. 그런 수컷 냅새 나는 우리에서 뛰쳐나와 어지러진 한 번을 일회해야 한다는 MAXIM으로 넘어오십시오.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젠 혹시나 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저희가 CF에서 본 그 공대 아들이 맞으시죠? 아니니라면, 사무실에 오실만큼 어디에 쟁거했더라...
Q 코리안 보이 평가 평가



일박놀이

2012년 1월호를 장식할 일박는 나요. 일박는 무조건 선물을 줘야 하는 법이요. 이런 한박에도 나와 있소. 그러니 나에게 선물을 투척하시요. 알겠소?

명관재 모바일 사연

Q 당신이 보낸 사연을 2012년 독자 편지 '일박' 사연으로 선정하셨소. 만족하시오? 그리고 그런 한박은 없소. 훗! 누굴 바보로 아냐?



달력 조공을 바치겠소!

12월 3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소. 그곳에서 국민 잡지 MAXIM을. 그것도 MAXIM 걸들모 가득한 2012년 달력과 함께 팔고 있지 않겠소! 파릇파릇한 신혼임에도 아름다운 아내를 강력히 설득해 득

땀하엿소. 달력을 보자마자 '수영복을 입은 소녀시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잠시 했소. 한국의 MAXIM에 소녀시대의 달력이 부족으로 제공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지 않겠소? 나쁜 아나라 전 세계 독자가 분명 원할 거요. 내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 그대를 위해 몹시 아깝지만 이 달력을 참고하라고 대신 보내요. 덧붙여 신혼이니 남성 청결제가 필수요. 필히 보내주시면 고맙겠소.

성리요 남편, 우편 사연

Q 보내주신 달력을 정화하기 위해 MAXIM 편집부에는 피버림이 붙었소. 그리고 물 건너는 달력은 담당 에디터가 손에 넣는 데 성공했소(사익). 해외에서 MAXIM의 생사를 심미는 걸로 모자라 이런 레이범을 편집부로 보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LAYERED UP & 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타임토피아 www.timetopia.co.kr

[백화점]
중계 2001아울렛 02)3399-8222, 아담 NC백화점 031)701-6841, 분당 2001아울렛 031)786-1808, 수원 AK PLAZA 031)240-2198, 일산 뉴코아백화점 031)900-5162, 대전 세이백화점 042)257-7445, 천안 신세계백화점 041)640-5081, 광주 신세계백화점 062)960-1934, 대구 태백백화점 053)254-3977, 울산 뉴코아백화점 052)210-4010,

[서울] 드와치 02)2200-1355, 로만스 02)455-6841, 사포 02)463-9788, 시계독립 02)6282-2777, 워치북 070)4136-5090, 이와치 명동 02)774-7033, 이와치 종로 02)722-1673, 정우상사 02)3424-0794, 타임리 02)3424-7063, 타임가든 02)324-6272, 타임머신 02)6388-2327, 타임시보 02)6373-7743, 타임월드 02)3132-4108, 패션존 02)3398-7527, [경기] 대성 032)325-7467, 핑키봉 032)626-0686, 새론주얼리 031)463-9788, 유빈 031)698-6883, 크로잉스 02)2067-6808, 타임루트 031)487-9057, 탑타임 031)413-7656, 티파니 091)441-0158, [인천] 카시오포유 032)602-7188, [창주] 보보스워치 010-5484-5915, [광주] 굿메니아 062)410-0138, 타임엔탈프 062)222-3114, 타임파티 062)226-0305, [대구] 쿨트워치 053)424-4442, 공주나라 063)299-0975, 레프 053)426-0157, 스위스 053)639-5252, 휴얼리아 053)429-2668, 해피타임 053)428-3086, [김해] 시계백화점 053)337-8166, [부산] 명성 광복점 051)258-5315, 명성 남포점 051)253-5334, 명성 서면점 051)667-7356, 명성 신항점 051)253-5354, 서울시계 051)245-0625, 와법 051)919-4704, 월드타임 051)245-8399,



FX
남자의 모든 것

CM PUNK®



FX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WWE Monthly Special
TLC
1월 7일(토) 밤 10시

t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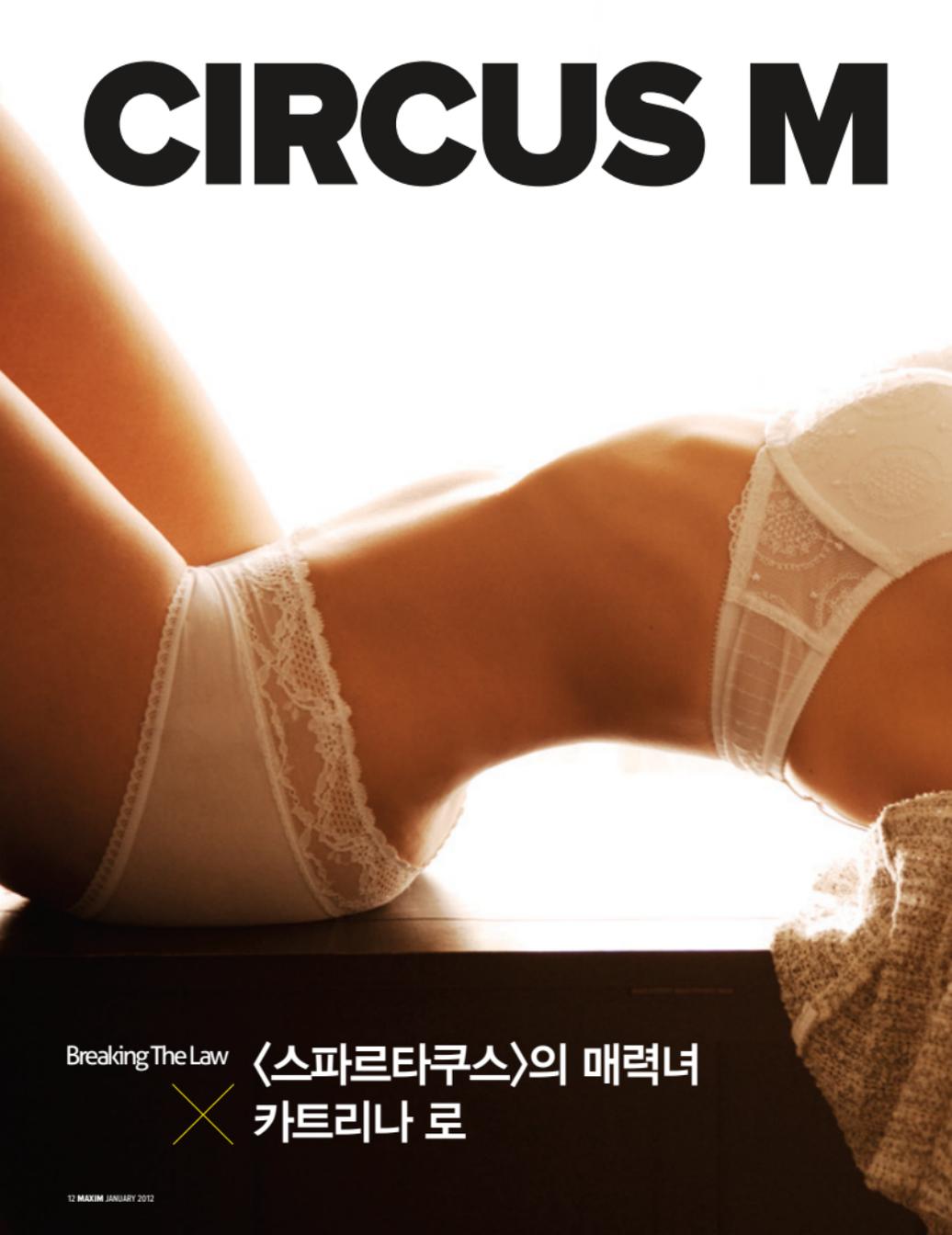
channel screens onnetube

www.fxchannel.co.kr

Copyright ©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CIRCUS M



Breaking The Law



〈스파르타쿠스〉의 매력녀
카트리나 로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어디 나온
여자인가요?

피와 수컷 누린내 그리고 정사뿐이 난무한 미드 <스파르타쿠스>에서 주인공 스파르타쿠스의 마음을
온몸으로 뜨겁게 품은 매력녀 '미라'를 연기한 카트리나 로. 인도 MAXIM 편집부가 그녀의 화보를
새해 선물로 보내왔다. 포장을 시원하게 뜯어보아겠지?

BY Vivek Pareek PHOTOGRAPHS Joe DeAngellis(www.joedeangellisphotographer.com)





카트리나 로

생년월일: 1985년 1월 1일
고향: 미국 뉴저지주
특이사항: 배우, 댄서, 가수,
미인대회 출신자

최악의 데이브: "그 남자가 체포되어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데이브 도중에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이런 일은 지어내기도 힘들다. 아, 이것도 한때의 추억이지."

판타지: "내 모든 판타지는 남자가 날 위해 설거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사이트 <http://misskatrinelaw.com>





반갑다. 솔직히 인도에서 LA까지 날아오기 진짜 번거로웠다. 너무 멀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안 왔을 거다. 나도 반갑다. 해외 MAXIM 에디터와 스태프를 마주하게 될까라고 상상도 못했다. 정말 영광이다. (스파르타쿠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놀라운 뿐이다. 다음엔 내가 당신네 나라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그녀나 이름이 참 위험적이다. 'Law(법)라니.

하해 위험적이라고? 뭐 남몰래 죄 지은 거 있나? 사 람들이 내 이름으로 농담도 많이 한다. 법, 재판 관련 된 제목의 프로그램들에서 종종 설의 전화도 받는다. 언젠간 나가볼 셈이다.

당신은 어찌 그리 섹시할 수 있지?

음... 부끄럽다. 나도 발리우드 뮤지컬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인도어발로 미인 천국이지. 난 매년 인도 음식도 좋아한다. 인도에서 기차 여행도 해보고, 진짜 타지 마랄도 가보고 싶다. 사실 난 미국 아틀란타 시티에 있는 미니골프장에 있는 모형 타지마랄밖에 못 봤어. 어 짜나 조각하러한지

이 화보는 마치 '섹시함을 전 세계에'라는 사명이라고도 믿 것 같다. 즐거웠나?

일단 촬영이 끝나니 긴장이 풀리고 그제야 '즐거웠다'란 생각이 든다. 라제리를 입고 촬영을 한 건 처음이다. 좀 불안했다. 하지만 결과들도 너무 좋고 다 좋았!

독특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탄생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서서 말이다. 독일, 이탈리아, 타이완의 혈통이 섞인 미국인이라고?

기름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인간 종족이라는 느낌이 받는다. 나처럼 미래형 인간 같은? 한지붕 아래 친해 다른 문화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자랐으니 남과는 좀 다를 수 밖에 스스로를 (스타 트랙)에 나오는 외계인 같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스파르타쿠스) 촬영은 어땠나? 필리핀 강렬한 섹스 장면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놀 만한 가족 유희남자 하니 상당히 예로사향이 많았을 텐데.

누드와 섹스 신 촬영은 '일음처럼 차가운 물 웅덩이에 머리부터 다이빙 했다가 빠져나온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폭력적인 장면들은 대체로 후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별 생각은 없었다. 피가 좋은 장면에선 '빨간 물감'을 탄 옥수수시럽이구나. 몸뿔 남자들의 팔다리가 잘려가가는 걸 보면서는 '아, 플라스토이네' 그리고 '아, 저 남자는 이제 탁구 치기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촬영장에서 늘상 탁구를 치곤 했으니까.

밴드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노래 한 곡 뽑아달라. 먼 길 왔는데.

물론이대! 대신 기타 반주는 당신이 해야 한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

(록키)의 광팬이다. 그 사운드트랙을 들으며 종종 몽상

과 에너지를 충전한다. 솔직히 좀 칭피하지만, 나도 록키에 삽입된 음악을 들으며 리듬에 맞춰 리닝을 하고 허공에 주먹질을 종종 하는 사람 중 하나다.

MAXIM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뭘 사랑하나?

갑사합니다. MAXIM! 역시 MAXIM은 좀 멋있다. 인목이 있어.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나라...누텔라(몽골콩), 가루, 박장대소, 최근에 입맛한 새끼 고양이. 달이 없 이 별만 가득한 밤하늘, 자그마한 해변에서의 산책...

당신을 포시는 방법 3가지만 생각하는데로 말해보라! 일단 농담을 하라. 나를 위해 먼저 문을 잡아주고 미소를 지어달라. 아, 그리고 복직이는 길 한가운데에서 무 릎을 꿰고 나를 위해 노래해라. 폐가 찾아질 정도로, 사 람으로 보답하였다.

이상한 팬을 만난적은 없나?

아직 없다! 웰스징에서 라님머신 위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 와서 1.5km 이상을 같이 달리며 나에게 사신을 같이 찌자던 남자가 있긴 했다. 물론 난 뛰는 걸 바로 멈 출 수 있었지만 그가 도전을 즐기는 것 같아서 계속 달 렸다. 난 남자를 맘뻘리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



CIRCUS

두번머경~

고소 당하는 법 8

고소당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BY 김희성



1. 토크쇼 진행자가 된다

타이라 벅크는 자신의 쇼 '섹스 중독 판'에 출연했던 15살 여성 출연자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5세 섹스 중독녀의 어머니는 "내 딸은 섹스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미성년자인 내 딸이 토크쇼에 나가는 걸 허락해 준 적이 없다... 내 딸이 섹스 중독일리가 없다(아이야)~"라며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11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거 딸내이나 칼 거꾸소!

2. 게임 캐릭터를 느낌보로 만든다

외우 게임 캐릭터의 결혼결미가 느려 울려둥이 터진 한 남자가 외우를 제소하고 있는 불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게임 캐릭터의 걷는 속도 이외에도 "천투 중 죽었을 때 영혼이 무덤에서 시신까지 튀어오라 부활할 수 있는 것도 불만이고 캐릭터의 이름이나 종족, 서브 등을 바꿀 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격분했다.

3. SNS와 친해진다

김재동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가 공격성 기법 위반으로 한 시민에게 고소를 당했고 서울대 조국 교수도 투표하는 트윗을 날렸다가 고발 당했다. 아, 참고로 조국 교수도 고발한 사람은 그 유명한 강영석 의원의 비서다.

4. 이름을 비슷하게 짓는다

당신이 정래에 소핑몰이나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름을 지어라. 미국 인텔사는 디자이너이름을 상대로 '인사이드'의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표권을 철회하라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무려 10년에 걸친 이 법적 공방은 디자이너이름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디자이너이름측은 "더는 인텔이 디자이너이름의 상표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는 한 마디를 남겼다.

5. 방학 숙제를 낸다

미국의 한 수학교사는 방학 숙제를 냈다가 "방학 맨 놀아야지 무슨 소리냐"며 17세 제자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들은 "주에서 정한 방학 학업 일수가 방학 전 다 채워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방학 때도 공부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학생들은 방학 때 놀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그말야 하겠어? 하지만 이 사건을 맡겠다는 곳이 없어 용감한 부자가 직접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6. 장자를 방생한다

마리아 이터라는 여자는 저스틴 비버와 공연장 뒤에 있는 화장실에서 30초 가량 똥가뽀를 한 뒤 그의 아이를 낳았으며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저스틴 비버는 "만년 척도 없는 여자"라며 친자확인을 위한

DNA 테스트에 당당하게 이겼고 양육비를 댈여벌 계획이었던 마리아 이터는 소송을 급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근대 이간 친짜 공금청구 그러는 건데 30초 만에 도대체 아기가 생길 수 있나?

7. 살인범을 경찰에 신고한다

미국 콜로라도 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복역중이던 제시 디릭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한 부부의 집에 숨었다. 이 부부를 안일로 삼은 그는 "가액을 줄 테니 나를 숨겨달라"는 제안을 하고 나서는 안심하고 잠들었다. 그가 잠든 틈을 타 부부는 경찰에 그를 신고했고 살인범은 경찰이 쓴 쪽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살인범은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다. 형편비를 내놓으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세상에 신상이 참 많아.

8. 꿀밤을 때린다

지난 2006년, 한 초등학교 교감은 수업 시간에 슬레잡기를 하는 초딩 3명에게 꿀밤 한 대씩을 먹였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중 한 학생이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 학생의 부모는 교감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교감은 치료비를 지불했지만 그걸로 성이 안났던 부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교감을 폭행형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대단한 자식사랑 나섰다. 그죠?

이 달의 부스르기

일라도 그만, 클라도 그만인 자식 부스르기들 씌고 돈고 맛보고 즐기세



네가 나를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물리리다 경찰은 영성이 최대 수술로 700달러를 받고 시멘트와 타이어 방수제를 영입하여 조사한 콘 모리스(30대)란 기파 의사를 제소했다. 시술 받은 여성은 즉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호탕을 외쳤고,



일본 시시미 날카돗배~

지난 10월, 도쿄의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조리사(60대)가 소핑백에 넣어 기쁜 식칼 1자루가 튀어나와, 옆에 있던 30대 회사원의 오른팔을 찌르는 사고가 있었다. 항암한 건 경찰이 이 사건을 조리사의 업무상 과실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

새해 복이



MAKE YOUR SMART

불과한 밤새 엮는 전자담배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세요.



070-4131-1350 / www.ovalekorea.com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각, 이명까지도 병발해 합니다.
담배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과 타르, 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10mg, M:11mg, L:6mg



2012 F/W 일진패션위크

건널거리는 워킹, 불만 가득한 눈, 누렁이 사이로 밝은 침, 왕년에 수선집 증 들락거렸던 일진들의 연애편이가 시작됐다.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훈

무서운 10대들
는 미추쳤간 훔되는 거다.



동명의 짝주-연리미티드

지난 8월 거세서 옥포동 아파트를 범죄하던 거제 일진 레이싱 소속 고딩 5명은 문이 잠기지 않은 병차의 차에 타고래 몸을 싣었다. 차에의 있던 보츠 열쇠로 시동을 건 뒤 나출간 거제와 동명을 짝주하여 자유를 만끽한 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에서 때어낸 연초까지 달았다고... 빈다델, 이 친구들 새 멤버로 어때?

나기 내국했나?

11년 8월, 광명에서 침 훔 뺏는다는 일진 13명이 자신들을 육하고 다닌다며 A군의 교실로 찾아왔다. A군은 이틀로부터 송파구 가여동의 배가, 주자당, 공원 등에서 무려 9시간 동안 편지를 먹고 녹음이 뿌리지는 등 잔치 6주의 피해를 당했다. 더 무서운건 A군이 맞다가 기침하자 얼굴에 물을 부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때렸다는 거다. 심지어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구멍이든 머리를 넣고 파묻기까지 했다고. 대체 무슨 욕을 했길래? 영감어?

내 꿈은 포우왕

야왕을 꿈꾸는 고딩 포우왕성주들이 15세 A군을 광주의 한 연인으로 불리었다. 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 B양과 성관계를 맺게 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겼다. 이들은 무려 5차례에 걸쳐 B양과 함께 생애동안 남성들을 협박해 300여 만 원을 뜯아냈다. 소년원 출소하면 응우공에서 스키트 체의 범죄자겠는데?

1970~1980년대

학자 전성시대

헤어: 억압된 교육 현실을 보여주는 반식의 돌래릿

상: 동과 부등까지란 입을 수 있는 빨간 목물라

하의: 낙엽도 쓸어 담을 만큼 벌려이는 나팔바지

신발: 새 신발도 가차 없이 구겨 신는 패기

액세서리: 갑작스런 싸움을 대비해 철핀이 들어 있는 책가방

~2005년 맥스대입

헤어: 쿠보즈카 오스케만 소화할 수 있는 호일염

상: 훈남 오페의 필수품 맨투맨 티셔츠, 팔에 글자가 새겨진 점퍼

하의: 무릎 아래로 자연스런게 떨어지는 7장 피트의 세미 합합바지

신발: 한정판이라지만 동안 있으면 살 수 있는 에어맥스

액세서리: 다가을 노스 시대의 신화로, 등산가방의 등장

~2011년 노스통일시대

헤어: 남자의 자존심 구래나 쿿을 밀어버린 유나색수열

투블럭컷

상: 전 국토의 70%가 산악 지대인 한반도의 지형적 특

성에 맞춘 등산 패딩

하의: 간지를 위해 혈액순환을 포기한 스키나 진입을 수 있기 위해 지퍼를 달기도 함

신발: 스티브 잡스가 남긴 또 하나의 유적, 새로운 균형

액세서리: 가장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구겨진 스니커지만 들어 있는 애산저 백

※남이 하나거나 두 개 새긴 별 유신



1990초~2000년 중반 악어의 난

헤어: 절로 남긴 28 가리마

상: 악어나 우산이 새겨진 강렬한 색상의 가디건

하의: 지리산 정기를 먹고 자란 토종닭의 납작다리를 떠올리는 뒰고기바지

신발: 걸을 때마다 탕뎀 소리가나는 300mm 캔버스화

액세서리: 2°C 패션의 성지 '하리주쿠' 불림 가방



울렷함과 와야바이

이르헨타나 코르도바에 있는 생식 연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와이바이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남성의 정자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와이바이를 이용했던 남성들게서 2%에 달하는 정자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9%는 DNA 손상을 입었다고.



납치범 전도사

미국의 브리스포트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브리스포트는 여성의 눈에 수갑을 채우고 잠금한 뒤 3일 동안 열심해 성경을 읽어달라고(미국) - 브리스포트는 이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현장르보!

여유증,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백건이 붙어있지 않. 여유증 수술. 백건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니 알 수 있었다. BY 김민재

가슴 없애러
가기



그렇다. 지난날 기사들의 GG가 커서 슬를 수 밖에 없던 사람들은 모두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증언이었던 것이다. 수영장, 워터파크는 고사하고 목욕탕에도 갈 수 없던 아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오욕과 절망의 세월을 씻기 위해 실루엣 여유증 클리닉을 찾았다.

1 월드컵 가슴도 평탄화가 될 것인가?

수술 전, 원장님의 진단으로 현재 여유증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이전 결과는 D컵. 헬 이긴 웬만한 여자보다 더 클며려한 편지 결과가 아닌가? 키도 크고 컸지만 그 동그렇게 모인 가슴의 모양은 몸의 형태가 드러나는 옷은 물론 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더 큰 남방을 사야하는 아픔을 주었다. 결과는 대만족. 군대 숙영지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처럼 두 개의 구멍이 확 파졌다. 그래서 요즘 일을 하다가도 웃통을 가리고 싶은 욕.

2 아파드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말이 아프진 않다는 여유증 후기들을 보며 '후기를 잘 쓰면 선물을 주니까'라고 생각한 전. 반성한다. 수술 후 마취의 기운이 남아있는 2~3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취가 다 갚 그 날 재너더움날도 통증은 밀려오지 않았다. 어릴 적 고래잡이 수술의 아픔을 떠올리며 찾아올 통증을 대비했으나 이걸 상거울 정도. 개인차는 있었지만 고래잡이는 고사하고 상거울 빼는 것보다 안 아프게 느껴졌다. 통증보다는 가슴이 빠진 정도. 2주 후가 지나니 그 빠진 함마저도 사라졌다.

3 레알 당일 수술, 당일 치료?

9월 28일 오후 4시에 수술을 시작. 5시 40분에 끝이 났다.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1시간 40분이 1초처럼 느껴진다. 30분정도 회복실에서 누워 있다가 상태를 살펴보고 바로 퇴원. 봉대도 가슴을 압박하는데 처음에는 좀 두 두꺼운 병대로 가슴을 싸맸었다가 하루 뒤 시중에서 파는 압박병대로 교체하면 된다. 놀라운 것은 수술이 잘 되어서 그 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 뭐 그리 무척량하며, 인술을 땀개 친 병원이 다 있잖아'라고 묻지 말자. 워터 부직 용이 적기 때문이니. 불행해서 다시 병원을 찾기도 친절한 진료를 받을 것이다.

BEFORE



AFTER



...ING



4 흉터가 거의 없어? 무슨 유리결라도 아니!

마취를 한 후 흉나 아픔을 다녔은 본인으로서 는 수술 전 과정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수술 두 달이 넘은 지금. 내 피피에는 수술 흔적 은 없다. 3mm 이하의 구멍을 유두에 내어 그 옆으로 의료 장비를 넣어서 시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수술 다음 날에도 미세한 상처 하나 가 있을 뿐이었다. 지금은 그나마 사라져 수술 한 티가 하나 없어 2달 전 내가 수술을 했다는 사실조차 까먹게 만든다.

5 난 병원은 무서운데...

병원은 싫다. 특히 약간의 선단 공포증 이 있어 보복한 것을 보면 공포를 느끼는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이 싫다. 그러나 실 루엣은 따뜻했다. 상담 과정부터 예약, 그리고 진찰과 수술. 모든 부분에서 환자를 먼저 배려 한다는 느낌을 살아냈다. 특히 수술 회복실에서 누워 있으면 포근해서 잠이 솔솔 올 지경. 수술 회복실에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슴을 드러냈다는 자랑을 하는 피피를 드림을 범 할 정도로 편안했다(만~) 뭐 어차피 이렇게 공개대요.

6 제 잠수는요!..!

30년 동안 달고 다닌 두 개의 가슴. 우선 자신감을 잃게 됐던 그 골칫덩어리를 밝은 색원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 게다가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갈수록 수술 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루의 시술만으로 간단 단히 여유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 따뜻한 분위기로 병원에 온 느낌보다는 환장을 쉬고 온 기분이라 이 정도 면 가히 완벽하다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망 삼아 지 말고 직접 체험해 보고 잠수를 매기는 것은 어떨까?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항문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실루엣 여유증 센터
Silhouette Plastic Surgery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여유증) 센터
3호선 입구정자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친구 추가 해주세요!
TALK
ID:gynecomastia

연예인 결혼, 대박에서 쪽박까지



결혼은 목탄주와 같다. 괜찮다고 어느 순간 한 방에 훅 가더라고.

진 박찬규·유리 ILLUSTRATION 전은준

1. 박찬호, 박리혜

LA다저스 박찬호가 한창 잘나갈 때는 한 경기에 5억, 그가 공 한 번 던질 때마다 지그마치 500만 원이 몸값으로 들어왔다. 그런 박찬호가 일본 재선수로 76위의 집안 물려받은 재산을 무려 7주에 가까운 아내에게 팔려갔다. 아랑 낚은 장인의 한마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허락하겠"

3. 박재훈, 이효림

사람이 잘 없어보이는 이미지긴 하지만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콘크리트 잘 부우르기로 소문난 '국민 레미콘' 집 아들 내이다. 게다가 장인은 국내 1위 김치제조 기업 '진보식품'의 사장. 한술 더 떠 아내 이효림은 슈퍼모델 출신으로 미모까지 빼지가지 않는다. 진정 모두따르는 결혼을 한 셈이다. 여기에 방송일까지 하면 반칙이요

5. 이승철, 박현정

한 번의 실패를 겪은 그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그녀는 흥풍에서 환단 수출 기업을 운영, 사업의 여왕이라 불렀으며, 그 재산이 지그마치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진짜 개강부 사자가 출신이다. 지금은 이승철의 음반회사 부이엔터테인먼트의 경영을 도우며 계속 재산을 불려주고 계시다고... 영계끼고 사는 최후원 수컷이 부러울리개

7. 이찬, 이만영

스피드 피곤 카풀이다. 결혼 전부터 감정의 굴이 깊었던 그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이혼 소송을 발했다. 문제는 이만영의 코뼈를 무너뜨린 이찬의 피팅팅 근성이 일러져서다. 치환한 법정 공판 끝에 이찬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Good



Bad

2. 연정호, 한가인

단지 한가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국민 도둑놈'이 된 연정호. 소식기에 모든 남자를 적으로 몰았고 한가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모든 댓글은 "연정호 X새끼..."로 시작했다. 연에게 5대 본좌(김태희, 한가인, 손예진, 전지민, 송혜교) 중 한 명을 얻어갔는데 이 정도는 간지쟁이

4. 최성수, 박영미

가수 최성수는 건설 회사 '미소산'의 대표와 결혼했다. 징동간고소영 부부의 대표주자이. 이인호, 양민호의 집으로 유명한 600억 원대의 초호화 빌라 '동지구 속성동 마크힐스'가 바로 그녀의 직할이다. 게다가 아들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 토지가 재개발 확정과 오피스 개통으로 땅값이 '물일사방'의 물값이 배삯일이었구나

6. 박철, 옥소리

연에게 대표 일고부부였던 박철, 옥소리가 한 방에 훅 걸지 누가 알았겠는가. 훈남과의 만남을 들켜 간첩동고소당할 옥소리는, 박철 역시 술집과 룸사롱을 전진하며 계집동과 할말말을 즐겼던이서로, 물고 뜬는 형무를 받았다. 파혼 뒤 예도 애를 서로 카우겠다며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다. 예이... 예 카울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초에 그려면 쓰나.



우리는 아직 슬로

오빠를 낳 잡아보는 건 어때?



대르르르르

대한민국 공식 여성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전생애 나라를 구한 김강한. 하지만, 김유신, 이순신 장군 중 한 사람이지 않음.



김연아

김연아의 박지성의 결혼 상제는 대국민 오피스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불새 (슈퍼대립 K).



예미

장인은 연봉 100억 원대의 회사 본부장. 장모는 '영미' 교육센터의 대표. 온 번은 유년자를 고소한의 불려받았는지 예미의 역시 연 매출 100억의 스텝들을 운영한다. 그 재산에 100평짜리 집이 하나, 컨스레 소지해 보인다.

당신의 짝은 인류데이터에

아주노 육하지 마라, 23살 차이가 별개야?

아주노

1967년생 동갑
김광규, 성동일, 조영국

아내 박이리

1900년생 동갑
강민경, 고미라, 윤아



맛, 전화를 놓쳤...

스마트폰 유저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무려 19%의 사람들이 변경에 모바일 기기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 이에서 조심자들이 병화를 올리려구.아-



오래 살고 볼 일

이런 날이 좀 앞에서 befriend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여친을 가장한 기괴 문예시사를 당신 문에 파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물론 영어, 이제 당신도 딱히 단 왕자

STYLISH PROTEIN

for Stylish Guys & Girls



샘플신청하기

지스타일 전속모델
Miss Maxim 최혜연

지스타일은 [이지셰이크(Ez Shake)]팩을 사용하여
쉐이커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흔들어 마실 수 있는
신개념 프락티엄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14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10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Ez Shake



단백질

하루 권장량
35%의
풍부한 양

비타민 9종

A, B, B6, B12, C, D,
E, K, 미네랄, 엽산
하루 권장량 33%

미네랄 5종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크롬
하루 권장량 33%

함유

BCAA
옥타코사놀
타우린

NO

합성감미료
플레스테롤
포화지방

www.gstylelife.com

NAVER

지스타일



1월

📞 제회 동계 유스 올림픽

1월 13일~22일

유스 올림픽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여기서 잘나가는 이들의 얼굴을 조만간 2014 러시아 동계 올림픽에서도 만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피겨에 출전한 귀경동이 박소연 선수를 특히 주목하도록 나름 올림픽이만큼 피겨, 스키 점프 등 5종목에서 경합을 펼친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벤트로 손색이 없다.

▶ 김연아가 홍보대사여서 선정된 건 저, 절대 아니야

🏆 초한지

▶ 훌륭한 항우를 이긴 사람 좋은 유방의 이야기

📺 1월 11일 효린(씨스타)

▶ 꿀꿀 머금은 다리의 소유자 효린의 탄신일

2월

📞 쿠웨이트의 한판 승부!

2월 29일

동네 조기 축구 감독 바꾸듯이 조광래 국가대표 감독을 경질한 한국 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 29일 쿠웨이트와 벌이는 홈경기 결과를 살펴봐야 판기를 날 거다. 요즘 국가대표팀이 불 차는 걸 보면 이날 경기에 손에 발을 쥐고, 동줄을 태워가며 보아야 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말이다.

▶ 불뼘도 안 먹었는데 뽕코를 칠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 고스트 라이더2

▶ 사실상 (고스트 라이더)의 리부트

📺 2월 22일 고우리(레인보우)

▶ 레인보우의 '별주노초파람'까지 담당하는 고우리의 탄신일

특별출연: 대라니야

CIRCUS 2012 놀거리 총정리!

각설이마냥 죽지 않고 새해가 또 찾아왔다. 60년 만에 찾아온 흥풍의 띠미양이 기쁨으로 지구 대멸망소가 펼쳐질지 모르니 매일매일 후회 없이 신나게 놀아보자. MAXIM 이 매달 밑줄 찍어야 할 예기스 같은 행사만 뽑아왔다. BY 김상현

3월

📞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3월 26일~4월 1일

빙판 위에 서면 무대 위의 소녀시대까지 관람 시키는 만세! 큰금 과수 김연하의 불침이 빠야 또다. 하지만 김연아 덕분에 피겨 대회의 즐거움을 몸소 알게 되었으니 미리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열심히 감상해보자고 믿어진 열도의 아사다 마오가 참여하면 일단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 김연하를 대신해 피겨 뒤후의 여신이 될 선수는 누구인가?

🏆 레이브

▶ 트루 쿡이 에드가 앨런 포를 연기한다.

📺 3월 22일 진보림(티아라)

▶ 티아라에서 댄스를 담당하는 꼬꼬미의 탄신일

4월

📞 국회의원 선거

4월 11일

일이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맨날 뽕칠이나 하는 국회의원일 뽕 좋은 상상도 못했다. 평소 말을 안 듣던 국회의원들의 모자리를 칠 기회가 왔다. 이보다 더 즐거운 축제가 또 있었나? 국회의원 유일하게 국민에게 공신공신거리는 시몬이다. 이참에 인사나 살짝 받아두자고!

▶ 우리는 내일을 위해 2011년에 한 일을 잊고 있다.

🏆 무비43

▶ 영화 사상 최강의 캐스팅을 자랑하는 올

나버스 영화

📺 4월 18일 제사카(소녀시대)

▶ 크리스탈과 함께 우주 최강 자매 라인업을 완성한 제사카의 탄신일

5월

📞 대구국제유상경기대회

5월 16일

대구 덕에 국제유상경기대회를 보게 됐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미리 점쳐보는 것은 물론이고, 운동으로 다져진 여자 선수들의 탄력 넘치는 골박자를 감상하는 호사를 누려보자. 이것이야말로 "손대면 독하고 타질 것만 같은 ~" 찰진 허벅지다!

▶ 시크릿의 효상은 평행도 못 내밀 허벅지를 탄스도!

🏆 어벤져스

▶ 마블 히어로 야기 다 모에

📺 5월 16일 아이유

▶ 삼촌 팬의 영원한 사랑 아이유의 탄신일. "MY LIFE FOR U!"

연예인 결혼, 대박에서 쪽박까지



결혼은 목탄주와 같다. 괜찮다고 어느 순간 한 병에 속 거대라고.

진 박찬규·유리 ILLUSTRATION 전은준

1. 박찬호, 박리혜

LA다저스 박찬호가 한창 잘나갈 때는 한 경기에 5억, 그가 공 한 번 던질 때마다 지그마치 500만 원이 몸값으로 들어왔다. 그런 박찬호가 일본 재선수로 76위의 집안 물려받은 재산을 무려 7주에 가까운 아내에게 팔려갔다. 아랑 낚은 장인의 한마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허락하겠"



2. 연정호, 한가인

단지 한가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국민 도둑놈'이 된 연정호. 소식기에 모든 남자들 적으로 들렸고 한가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모든 댓글은 "연정호 X새끼..."로 시작했다. 연에게 5대 본좌(김태희, 한가인, 손예진, 전지민, 송혜교) 중 한 명을 얻어갔는데 이 정도는 간지럽지



3. 박재훈, 이효림

사람이 잘 없어보이는 이미지긴 하지만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콘크리트 잘 부우르기로 소문난 '국민 레미콘' 집 아들 내이다. 게다가 장인은 국내 1위 김치제조 기업 '진보식품'의 사장. 한술 더 떠 아내 이효림은 슈퍼모델 출신으로 미모까지 빼지가지 않는다. 진정 모두따르는 결혼을 한 셈이다. 여기에 방송일짜지 하면 반칙이요



4. 최성수, 박영미

가수 최성수는 건설 회사 '미소산'의 대표와 결혼했다. 징동간고소영 부부의 보금자리. 이인호, 양민호의 집으로 유명한 600억 원대의 초호화 빌라 '동지구 속성동 마크힐스'가 바로 그녀의 직할이다. 게다가 아들이 몇 년 전에 대한민국 토지가 재개발 확정과 오피스 개통으로 땅값이... '물일사방'의 물일이 배춧잎이듯 구나



5. 이승철, 박현정

한 번의 실패를 겪은 그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 그녀는 흥풍에서 환단수출 기업을 운영, 사업의 여왕이라 불렀으며, 그 재산이 지그마치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진보 개강부 사업가 출신이다. 지금은 이승철의 음반회사 부이엔터테인먼트의 경영을 도우며 계속 재산을 불려주고 계시다고... 영계끼고 사는 최은환 수컷이 부러울리개



6. 박철, 옥소리

연에게 대표 일고부부였던 박철, 옥소리가 한 방에 속 걸지 누가 알았겠는가. 훈남과의 만남을 들켜 간첩동고소당한 옥소리는, 박철 역시 술집과 룸사롱을 전진하며 계집동과 할말말을 즐겼던이서로, 물고 뜬는 할부를 벌었다. 파운 뒤에도 애를 서로 카우겠다며 그렇게 사귀어 사귀었다고. 예... 예 키울 마음 있는 사람들이 예초에 그려낸 쓰나



7. 이찬, 이만영

스피드 피곤 카풀이다. 결혼 전부터 감정의 굴이 깊었던 그들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이혼 수속을 밟았다. 문제는 이만영의 코뼈를 무너뜨린 이찬의 피아핀 근성이 일러져서다. 치환한 법정 공판 끝에 이찬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아직 슬로

오빠를 낳 잡아보는 건 어때?



대르르대리

대한민국 공식 여신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전생애 나라를 구한 김강찬. 물자만, 김유신, 이순신 장군 중 한 사람이지 않겠어.



김연아

김연아의 박지성의 결혼 상대는 대한민국 오디션과 국민투표로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블레키 (슈비레킴 K).



아이미

장인은 연봉 100억 원대의 회사 본부장. 장모는 '영미' 교육센터의 대표. 온 번은 유년자를 고소한 불려받았는지 에이미 역시 연 매출 100억의 스타일을 운영한다. 그 재산에 100평짜리 집이 하나, 컨스레 소지해 보인다.

당신의 짝은 인류데이터에

아주노 육하지 마라, 23살 차이가 별개야?

아주노

1967년생 동갑
김광규, 성동일, 조영국

아내 박리혜

1900년생 동갑
강민경, 고미라, 윤아



맛, 전화를 놓쳤...

스마트폰 유저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로는 무려 19%의 사람들이 변경기에 모바일 기기를 놓쳐드린다고 한다. 이, 이에서 조심자들이 병화를 올리려구...아-



오래 살고 볼 일

이런 날이 좀 앞에서 beaghtfriend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여친을 가장한 기괴 문자메시지를 당신 분에게 보내는 서비스를 해대고, 물론 영어, 이제 당신도 딱히 단 왕자여



까다롭다, 까다로워... 당신!

MAXIM의 존재 이유는 바로 독자님 당신! 고객 관리 담당자가 그동안 독자께 받은 수많은 주문 및 배송 메모 중 혼자 보기 아까운 것들만 모았다. 아아, 까다로운 독자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은 빠른 배송, 충실 배송 같은 시시한게 아니었다.



“

- 제품명 식재하고 소성책 제목으로 바꿔주세요.
- 보내시는 분 이름은 맥시코리아 말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알라딘, EBS, 교보문고 등으로.
- 군 생활을 하기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표지는 가려주세요. 확실하게.
- 회사의 중요한 기밀서류인것처럼 위장배송 잘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 접지입니다. 이걸 누가 봐도 컴퓨터 접지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

“사랑하지만 우린 안 되는 건가요!”

“

- 내일 부대 들어갑니다. 아아, 전 이미 늦었겠죠?
- 휴가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ㅠ_ㅠ

”

같이 물어볼게!

“

- 찾기 링크소재지만 송의이고 맞은편에 있는 공군부대입니다. 잘 찾으면 보여요!
- 벽산블루밍이랑 혼동 마요! 벽산블루밍!”

”

우월 배부, 병신으로 아는 거지, 그치? 흑흑...

“

- 불투명 포장지에 싸서 2층 고무실에 넣어주세요.
- 절대 노크 하지 말고 있는 함정 사람의 문을 막 열어 재개면서 '내가 바로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의 기사, 태백 기사단!'라고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크게 외친 후 기세에 눌린 사람 선생님들 옆에 가만히 이 물건밖에 놓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광란의 배송으로 중해주시요.
- 정OO 부모님. 부디 오해하시길 바랍니다.
- 물건은 최상의 상태로, 대신 정보를 알려주길.
- 확실성 침묵으로 넘겨주세요.
- 전화할 번 안되는 경찰서로 갖다주세요.
- 부모님이 안 계시는 은밀한 시간대인 토요일 오전 12시 안뒤로 넣어줘요.

”

듀엣 BATTLE

단지 한아 사진을 실기 위해 이 기사를 썼다고? MAXIM이? (응, 맞아, 티 나냐?) BY 박현영/누리



VS

트러블 메이커		신나고
포미너 매왕 김현아 비스트 장현승? 누구냐, 넌?	멤버	침사아 신정환 잘 노는 형 고영욱
장현승 23, 현아 20 평균 나이: 21.5세	연식	신정환 37, 고영욱 36 평균 나이: 36.5세 WIN
장현승 너 이 자식, 우리 현아 입술을... 이 개새...	필종	피포언스 따위는 없어도 괜챦아 괜챦아 이쁘니까! WIN
불타는 금요일 다이어리 듀오	라이벌	갑자기 왜 이래... 거북이 디스코양 코요테 WIN
장현승: 육을 포크레인으로 먹으며 현아 허벅지 더듬는 중 (전날에 이상순이랑 같이 나라를 구한 거야)	원재	신정환: 덴기열 완제(?) 후 상순 도박 형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 고영욱: 박하신 두고 서지석과 배를 구해 WIN
현아: 결혼을 고민 중보, 장현승 키스신 장현승: 초토화 말발코, 변태	연관 검색어	신정환: 덴기열, 장영, 교도소, 침사아 고영욱: 너 강아차니, 서지석, 안영하 세요 H잡너

승자는 트러블 메이커!

MAXIM 독자는 007 마니아!

“엄마 미안”

BEST OF BEST

MAXIM 독자들의 배송 관련 최다 요구 사항은?

1위 총알배송!
2위 은배해렌
3위 은밀한 난민의 장소에 놓고 가버려

2012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가올 설 물류대란 때문에 미리 말 치는 거 아닙니다. 진심이예요. (장난전화로 목하고 끊는 너 이놈, 잡히면 죽는다.)

-고객 관리 담당자 드림-




캡틴 플래닛
장 블루리라는 남자가 얼마 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성공했다. 그가 두 발로 걸어서 지구를 돈 시간은 무려 약 68개월의 64개 나라를 도는 동안 그가 신고 버린 신발은 53켤레다.



락 투사부리까?
우리나라를 순수한 당시 문명이고, 그 안에 데도 우리 같겠지. 당신 몸 속에 있는 206개의 뼈 중에서 가장 자주 부러져서 병행할 제일 드나들 듯 하는 뼈는? 새글이다. 에이, 이런 쓸모 없는...

뺏다, 뺏다, 비행기!

폭발, 납치, 추락, 테러, 길고 긴 지연, 어제 본 미드 <로스트>... '방귀가 나오면 어떡지?' '비행기 좀 타본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데!' '스튜어디스에게 몰상식한 승객으로 보이면 아, 임대~!' 비행기에 오를 때면 늘 온갖 걱정과 심장이 떨린다. 하지만 지금부터 비행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일으킨 비행사간의 조금 덜 지옥 같을 거다. 자, 이륙 준비! ILLUSTRATION JESSE LEFKOWITZ



1. 8천만 원

지난 12월 블랙베리를 만드는 RIM사의 두 임원이 안전한 상태로 비행기에 올라 끊임없이 음주와 난동을 반복하여 결국 벌금 8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동료에 드러누워 바닥을 발로 뚫고 구르고 머리를 흔들며, 승무원들 폭행하기까지 했다. 플라스틱 수갑과 테이프로 결박하자 이를 물어뜯고 탈출을 시도하는 등의 패악질은 계속됐다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가내 난동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릴 수 있지만 보통 벌금형에서 그친다.

2. 명품의 권리

고소의 왕국 미국에선 중형 명품을 간식으로 나눠주는 항공사를 고소하는 명품 알레르기 현자가 얼마 아마하게 많다. 하지만 이 교통공은 명품의 손을 들었다. 명품이 비행기를 탈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니 이제 그만 좀 까.

3. 29만9백40만

2010년 전 세계 비행기 수화물 중 짐 주인과 다른 데로 날아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짐짝 수. 승객 1,000명 중 12.07명꼴로 이와 같은 수화물 유실 사태를 겪는다.

4.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해리 포터) 시리즈의 볼트모트 경(랄프 피인즈)은 평소에도 마법 같은 일상을 산다. 그는 2007년 1월 칼타스 항공 승무원 리사 로버트슨과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화장실에서 매직유봉을 이용한 해피티임을 즐겼다. 랄프 피인즈와의 공중verkehr 아를 자랑하던 이 승무원은 그 다음 달 바로 해고당했다.

5. 1천만 원

테러범도 아닌데 현지 공항검색대를 जबl 때마다 심장이 떨린다. 우리나라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진다. 까 붙지 말고 시간대로 해라. 실제로 몇 해 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꼭 자기 로션을 가지고 타야한다고 난동을 부리다 로션 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진상짓을 한 어느 중년 남자는 벌금 500만 원을 물었다. 비행기에서 원반 필라고? 안 돼애~

6. 3분

민항기 파일럿이 실제로 비행기를 조작하는 데략의 총 시간이 14분 정도. 나머지 비행 시간은 오토파일럿이 다 한다.

7. 동물 사랑

공항검색대를 몰래 통과하려다 딱 걸린 사랑스런 동물들. 그것도 한 짐에서 나온...

- 아기 호랑이 1마리
- 아어 1마리
- 도마뱀 43마리
- 박새 12마리
- 피그미 원숭이 2마리



이슬람 여자들의 금지 메뉴

이슬람교 여자들은 생기처럼 생긴 오이나 배추나 등의 음식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당근과 기타란 호박도 마찬가지다. 만약 여성이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면 남성이 작은 조각으로 잘라준다고, 조리용 갖다주면 아주 기쁠 하겠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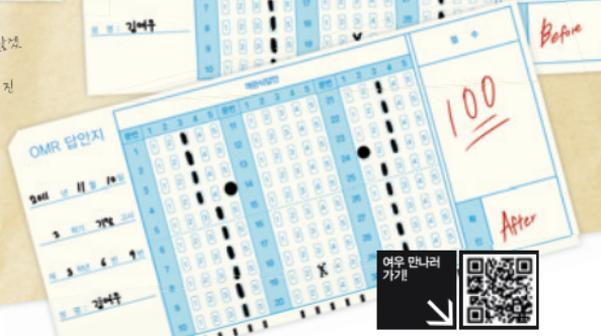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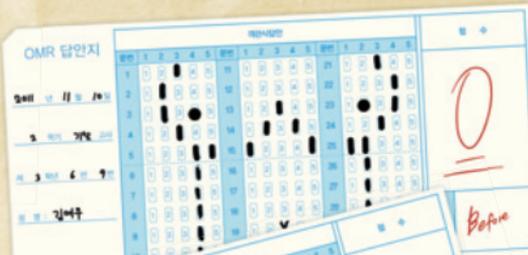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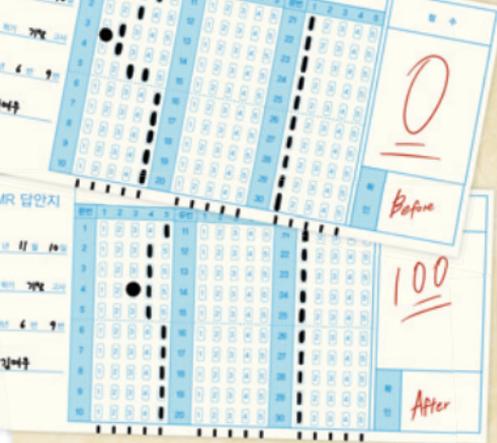


갑기가 왜 겨울맞아!

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추운 바깥에 있다고 해서 갑기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겨울에 갑기가 흔한 이유는 사람들이 갑기 바이러스가 피지기 쉬운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시험은 잘 보았니? 이제 올바른 바디라인의 정답을 찾자.

자, 이제 플레이 시전! 여유증 치료를
통해 가슴을 쪽 펴고 거리를 확보하라!



2011년 11월 15일
시험을 봤다. 국어 시험은 어려웠다. 답안이 본행의 내지 같었
다는 부분인데...나았다. 이런 백어레이...
숙차 시험은... 범위를 잘못 알았다. 진짜. 언제 그렇게 진
도를 많이 나갔지? T
그나마 미술 시험이 제일 쉬웠다. 미술 선생님.
사랑해. 돌돌돌 ♥
어쨌든 이제 그 동안 못 해왔던 모든 놀이들을 섭렵하러
간다. 큰대를 갈까? 요즘은 강남이 더 좋다는데!
그 전에 여권을 바꿔놓던 이 가슴을 어피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서 받아야 좋을까? 아 유차
시험보다 이제 더 어렵잖아! OTL



여우 여유증 클리닉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최신 초음파 장비로 완벽한 가슴라인을 그릴 수 있는 병원

는대중으로 여유증을 진단하고 진료하는 병원을 선택하는가? 여유증 가슴에는 지방 뿐 아니라 복잡한 유선 조직이 분포되어 있다.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마치 3차원 지도 그리듯 파악하는 것이 수술의 첫 번째 **여우 여유증 클리닉**은 최신 초음파 진단 장비를 도입, 지방 조직의 분포와 유선의 분포, 피부 탄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보장한다.

사람마다 다른 가슴, 많은 수술 케이스는 필수!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광섬유가 장착된 기구를 삽입하여 카메라로 부위를 보면서 시술하는 '3mm 절개 여유증 내시경 수술'은 기본이고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상대적 양, 피부 두께, 흉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권장한다. 따라서 수술 후에 상태에 맞지 않는 시술로 재수술 염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수술만 잘하면 명? 사후 관리가 좋은 병원의 척도!

여우 여유증 센터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위한 치료가 마련되어 있다. 'EFFECT Lipo Laser' 치료와 'EFFECT Meso Soft' 치료는 지방 세포의 유통과 축진 작용을 해 피부와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하고 조직의 유착을 막아 자칫 생길 수 있는 통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 이제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할 시간이 왔다. 지금 수화기를 들지아다!



도움말 주신 빈철원 원장은?

서울 대학교 병원 수련의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대한 미용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정회원
대한 미반 체형학회 정회원
대한 임상 메조세라피 연구회 정회원

www.foxyyou.co.kr

02-516-6150 / 02-517-0675



여성형 유방 전문병원
여우 여유증 클리닉

천이슬

나의 섹시한 매력을
널리 널리
전파하기 위해



내가 MISS MAXIM 이 되어야 하는 이유

2011 MISS MAXIM CONTEST FINAL ROUND

p.116 에서 최종 3인의 후보를 확인하십시오!



바지는 모두 타이 힐피거 데님

김지예

MAXIM의 판매량
증대를 위해



이명희

내가 원하니까



2012년에 가장 기대되는 음반 5선

이들 음반이 연례에 모두 출시된다면 나의 신가에 스프로 킴복하며, 그날로 dotz리를 파겠다. 물론 농담이다. 양 형배

지 금부터 1년 전 즉 2011년 1월호 MAXIM의 음악 칼럼 내용을 기억하는 독자가 있을까? 전날 밤 폭탄주를 몇 잔 마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필자가 독자의 기억력을 시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왜냐고? 당시 내 글은 신들린 예지력의 발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칼럼의 주제는 '2011년에 가장 기대되는 음반 5선'이었다. 음반을 낸 지 오래되어 오메발할 신보가 기다려지는 다섯 팀의 아티스트를 소개한 글. 그런데 정말 작년에 내가 꼽은 아티스트의 새 음반이 오조리 나왔대 놀랍지 않나? 물론 "2011년에 좋은 음반이 좀 많이 나왔느니라"고 타박할 분도 있으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올해 나올 음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작년 음반들만 추구장항 들을 건 이아잖아. 그런 연유로 작년의 '신기'를 다시 한번 발휘해 또 한번 '2012년에 가장 기대되는 음반 5선'을 선정해보겠다. 기준은 개인적인 선호, 전작과의 시간적 텀이 긴 순서대로다.

5위 오지은



오지은 노래

마지막 정규 음반: 2009년 4월 (지은)



변와락 2010년 12월 (오지은과 녹대들)

솔직히 말하면 오지은의 음악을 즐겨 듣진 않는다. 보컬의 음색에 대한 취향 차이 때문이다(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듣기엔 너무 '세다'). 그렇지만 취향과 별개로 그녀의 자기 작품 세계에 대한 통찰력에는 항상 탄하여,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된다. '가사를

잘 쓰는 여성 뮤지션'이라는 물음에 오지은을 제일 떠올릴 사람은 나뿐은 아닐 테니까. 다중 지능 테스트를 한다면 언어 지능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일 게 분명한 그녀는 4분짜리 빌보드 가사서단 다행본(그녀는 《꽃이아도 부통령이라》는 여행기를 출간한 바 있다)과 같은 통재된 언어는 물론 SNS나 블로그처럼 팔딱거리는 일상어의 바다까지 자유자재로 헤엄친다. 2010년 12월에 나온 (오지은과 녹대들) 음반은 왜 냈나고? 변와락인 그 음반이 있으니 다음에 나올 '오지은'의 세 번째 음반의 흥미가 뱀가되지 않나 이가까. 과연 이번에도 1~2점처럼 예고가 넘치는 반신 신 컷바에 '지은'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올 것인가?

4위 코코어



cocore#0 >Odor

마지막 음반: 2009년 8월 (멜렉스)

이들의 1집 (오우더)를 들던 90년대 후반의 팬에게 (멜렉스)에 수록된 '타이페이무중력 지하철도곡' 같은 노래를 들려주면 뭐라고 말할까? 가장 호의적인 반응이 "에이 코코어 노래를 DJ나 전자음악 하는 사람이 리믹스한 거잖아" 정도가 아닐까. 재미있는 건 지난 십수 년 동안 이들의 정규 음반을 꾸준히 들은 사람이려면 이런 급격한 스타일의 음악적 변화가 전혀 놀랍지 않으리라 짐이다. 이 시간을 통한 코코어가 존재할 것 같은 (그런지) 록 밴드에서 다양한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는 입체적인 송라이터의 집단으로 변모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보니 코코어의 음반을 들으면 항상 곡 수만큼의 곡지점을 가진 다면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코코어는 2집 (보이리시) 이후 3년 주기로 새 음반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내놓을 새 음반은 20번째였던 지난해 음반의 불멸으로 나오면 한층 더 흡족할 텐데 말이다.

정규 음반 1집 1993년 3월 (Odor)

3위 파블로프

정규 음반은 아직 없다. 대신 2008년 9월에 나온 5짜리 EP 음반 '반드시 크게 들을 것' 한 장이 있을 뿐. 하지만 이 작품 이후 약 2년이 남도록 새 음반은커녕 공연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바로 군대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음반 발매 직후 입대한 가슴 쓰라린 경향이 있는 이런 밴드에는 유독 정이 간다. 하지만 오히려 최근 이들의 라이브를 보며 '군 생활 문제는 없을까?' 하는 노파심까지 들었다. 물론 들기는 록 밴드, 특히 파블로프 같은 진성 파워 락 개러지 록 밴드한테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보컬 오도함이 들어서는 들까는 내가 그의 소속 부대장 혹은 후임병이 아닌 사살이 감시할 따름이었다. 단탄한 연주력을 바탕

으로 남성호르몬이 넘치는 후령구를 만드는 파블로프의 1집에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자신들의 예나저를 잘 담아낼 것" 물론 우리 역시 그 내용물을 '반드시 크게' 들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마지막 정규 음반: 없음



정규 음반 1집
1996년 11월 (비둘기는 하늘의 쥐)

2위

언니네이발관

마지막 정규 음반:
2008년 8월 (가정 보통의 존재)

언니네 이발관을 넣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다. 내가 예전에 이 팀의 멤버로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동업자 정' 열리할 점은 올해 이들의 음반이 나신'이나 '픽워주'기식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서는 아니다(사실 이제 누가 옆에서 픽워줄 필요도 없잖아?). 음반 없이 치르는 해프닝까지 받았던 단지 내가 여기서 늘어놓은 말이 훗날 이발관의 새 음반을 들을 때 스스로의 감상을 방해할 것이 염려되어서였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듯 전 날 마신 목탄주 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발관의 새 음반을 들으면서 2012년 1월

에 게재한 원고를 기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열리할 점은 올해 이들의 음반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급기야 발매 공언을 음반 없이 치르는 해프닝까지 받았던 단지 내가 여기서 늘어놓은 말이 훗날 이발관의 새 음반을 들을 때 스스로의 감상을 방해할 것이 염려되어서였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듯 전 날 마신 목탄주 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발관의 새 음반을 들으면서 2012년 1월

1위 전자양

전자양을 아무 정보 없이 만난 사람에게 "이 사람이 2001년에 데뷔 음반을 낸 뮤지션이야!"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할 거다. "아니 그럼 초등학교 때 음반을 냈던 말이야?"(동인이라는 소재로 농담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재한 것 같다. 아무튼 그만큼 음반이 나온 지 오래됐던 얘기다. 6년 만에 나온 2집에서 또 4년이 넘게 흘렀다. 자연인 전

자양도 바야흐로 삼십 줄에 접어들었다. 그를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 서라도 (다분히 함박조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당신에게 초롱초롱 장난기 어린 소녀의 눈망울 같은 노래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것들을 허투루도 더 지나기 전에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규 음반 1집: 2001년 08월 (Denci Hing)



마지막 정규 음반: 2007년 6월 (숨)

위 자료사진의 가슴골은 맥주의 깊은 역사와
인연 가득 넘치는 맛을 나타내는 거. 아나 운운합니다.

포터에서 스타우트까지 #1

포터... 마법사 얘기, 트릭 애긴줄 알았다는 농, 대가리 박자.

By 이효복 (이) 대표이사 / www.wobbar.co.kr

이제 맥주 종류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며 술자리에서 잘난체 좀 해보자. “아, 그냥 흑맥주가 아니고 이건 말이야...”

포터. 사진에는 ‘흑맥주(원래 London의 하역부들이 즐겨 마시던)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번달 칼럼 끝.

...이라고 하면 너무 섭섭하지. 지금부터 포터에 대해 제대로, 낱알이 알아보자.

양조의 역사에서 추축적인 역할을 한 포터 맥주는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의 양조 산업의 모습을 수공업에서 산업으로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포터는 영국 식민지와 발틱 연안국, 짜르 치하의 러시아까지 수출되었으니,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주조되는 예일 하면 포터를 떠올려도 부족함이 없다.

포터의 기원은 18세기로 넘어가던 시기 런던에 있다. 사람들은 당시 쓰리 쓰레드(Three treads)라는 맥주를 즐겨 마셨다. 그것은 페일 에일(Pale ale), 브라운 에일(Brown ale), 스테일 에일(Stale ale)을 혼합한 폭탄주로 애주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페일 에일과 스테일 에일은 모두 컨트리 브루어(country brewers)가 독점으로 런던 상업부(London trade)에 납품하고 있었다. 그것은 상당한 돈이 오고 가는 캔장은 장사였다.

컨트리 브루어가 런던내의 페일 에일과 스테일 에일을 독점하게 된 배경에는 법적인 규제와 경제적 인 이유가 있었다. 런던은 당시 시내에서의 석탄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다. 페일 몰트는 석탄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런던시 관할권 밖에 있었던 컨트리 브루어들은 페일 몰트를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런던 양조업자들한테서 신선한 브라운 에일을 사다가 대형 오크통에 1년 또는 그 이상을 저장해 스테일 에일을 얻었다. 장기간 숙성된 에일은 아생 이스트와 마생물의 영향으로 신맛의 짙은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맛이 나는 맥주를 당시 사람들은 잘 숙성된 좋은 품질로 평가했다. 페일 에일과 스테일 에일의 공급으로 컨트리 브루어

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당연히 런던의 양조업자들은 이러한 불공정(?) 상태를 깨뜨리고 싶어했다. 런던의 양조업자들은 대부분 조그만 펍이나 선술집에 기반하고 있어서 대형 오크통을 마련할 공간이 없었으니 약이 오를 만도하다. 그들의 첫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쓰리 쓰레드의 대체품으로 내놓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브라운 에일은 거친 맛 때문에 애주가들에게 외면당했다.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컨트리 브루어가 만든 페일 에일을 구해다가 섞어 마셨다. 기껏 만들었는데 폭탄주 베이스가 되다니. 마치 폼씨콩에서 기분이오 줄어가는 실론티 캔을로라도 된 듯한 좌절감이었을 거다(술적외 여기에 위스키 섞으면 맛있잖아).

런던 양조업자들을 위한 전환점은 1722년 찾아왔다. 말포 하우더라는 양조업자가 엔타이어 버트(Entire butt)라는 술을 만들었는데, 맛이 오리지랄 쓰리 쓰레드와 흡사했다! 그는 맥주를 캐스크 1통(bush) 단위로 이스트 런던의 펍에 공급했다. 쓰리 쓰레드를 만드느라 고역을 치구던 펍 주인들은, 마치 위문공연을 올 러나이를 번기는 군인의 마음으로 이를 환영했다. 지하저장고에서 3가지 맥주를 섞는 중노동들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엔타이어는 이러한 수고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맥주는?



달아주었다. 캐스크 단위로 포장돼서 편히 갖고 섞을 필요도 없었다. 더구나 엔टी어는 값이 훨씬 싼 것이다. 맛과 가격과 편의점에서 엔티어는 쓰리 스트레즈의 훌륭한 대체품이었다.

가격 이차기를 좀 더 해보자. 썬 지랄을 해도 가격 우러치고 텀비는 놀이장은 싸움이 안 된다. 엔티어여의 싼 값은 새로운 맥주의 대중적인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알프 하우드가 엔티어를 만든 지 4년 후 런던을 방문한 한 프랑스인은 고국으로 부치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768년 11월 26일 이 나라에선 맥주 밖에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맥주는 여러 가지 품질로 나뉘어 있다. ... (중략) ... 또 다른 종류는 포터로 불린다. ... (중략) ... 이 맥주의 대부분을 노동자 계층이 마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잔하고 독한 맥주로, 자라치게 마시면 효과가 와인과 맞먹는다. 포터는 1도에서 3엔티이다. 런던에 있는 많은 예쁜 하우스들이 이 맥주 외에는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 ... (중략) ... 페일 에일은 1병에 1실링에서 1실링 6펜스이다."

페일 에일은 빈곤한

노동자 계층이 즐기기에 너무 비거운 사치였다. 이런 상황에서 런던에 폐성처럼 등장한 이 새로운 맥주는 노동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포터'라는 별명의 뜻이 '하층노동자'를 뜻하는 단어와 같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포터의 주 고객은 당시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과 함께 증가하고 있던 노동자 계층이었다. 노동자 계층의 맥주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17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런던의 작은 선술집이나 알프 하우드와 같은 작은 규모의 양조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산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산업이 양조업에도 필요하게 됐다.

당시 광부의 하루 일당이 1실링이었으며, 페일 에일 1병이 하루 일당이라니 이런 X 같은 경우가 더 없겠



엘 휘트브레드에 의해 세워졌다. 그는 1742년 올드 스트리트에 소규모의 양조장을 세운 이후 3년만에 바비컨에 대규모의 새로운 부지를 마련했다. 한 마디로 대박을 친 거다.

1820년경의 맥주 생산량을 보면 당시 포터가 일괄 높은 맥주 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휘트브레드 2세는 연간 122,000배럴을 생산하고 있었다. 버클 레이 피킨스는 270,000배럴, 유 레이드는 180,000배럴, 트루만 앤버리는 150,000배럴을 생산했다. 약 1세기 전 알프 하우드가 21,000배럴을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 했다.

이제 더 이상 포터는 작은 선술집에서 만든 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기술과 과학의 산물이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상품이었다. 자본에 의해 세계로 수출되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산업 시대의 새로운 맥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포터. 포터 말만 하지 말고 무슨 인턴자부터 뽕뽕 말라라고? 18세기의 포터는 페일과 브라운 콜로르 만든 색이 짙은 맥주였다. 색의 짙은 정도는 다양했다. 여러 맥주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포터의 콜로르는 단맛이 강해 호프도 많이 들어갔다. 콜로르의 단맛이 강했던 이유는 초기 포터가 당의 알코올을 천 환도다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콜로르 당이 그대로 에일에 넣는 것을 뜻했다. 단맛이 강한 맥주는 지금 당산의 입맛엔 역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은 당은 고된 작업을 해야만 했던 노동자 계층에게게 있어 버린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아근과 밤베에 익숙해진 편집부 직원들이 에너지링크를 생수처럼 들고 빠른 것처럼 말이다. 알코올 강도는 측정된 것이 없지만 대략 부피로 6%로 추정된다.

이보다 더 강한 버전의 맥주는 '스타우트 포터(Stout porter)'로 알려졌다. 스타우트라는 표현은 19세기 당시 양조장에서 만든 가장 독한 술을 일컫는 말이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름이 이름은 색 짙과는 무관했다. 시간이 흘러서 포터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쇠퇴하고 가장 강한 포터만이 남게 되었을 때, 가장 강한 포터를 가리키던 스타우트(포터)가 당의 맥주 특성과 함께 하나의 맥주 종류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쓰는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유래이다.

다음 달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화 중인 해리 포터의 거뿔거뿔한 수업자극제형 시꺼먼 세트를 다들 예경이다. 19세기 포터가 어떻게 세계 맥주 시장을 장악하고, 오늘날 당신 주머니를 털어가는 흑맥주 기네스에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달을 기대해!

BEER-ANGUAGE

세계에서 통하는 맥주 용어 총정리

교부랑말 메뉴판에 붙지 마!

맥주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 발효일수와 상온 발효 맥주로 구분되기도 하고 맛과 향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된다. 같은 알고이라도 나타났다. 통하는 의미가 다소 다르기도 한다. 벳트 붙지 마라. 공통점으로 통하는 게 있다.

▶ 라거(Lager)

발효 중 알코올 가라장은 효모로 저온 발효시킨 하이라이프 맥주의 특징. 특징 상표가 아바

▶ 에일(Ale)

발효과정 중 위에 뜨는 효모를 실온에서 발효 시켜(상온발효) 맛, 맛이 진하며 거품이 많고 고알콜이 나는 종류가 많다.

▶ 드래프트(Draft)

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되나 여과 과정 중 상온과정을 비활성화하여 가공·출시되는 맥주.

▶ 헤페(Hefe)

헤페는 독일어로 '효모'다. 죽 효모를 거르지 않아서 병내에 유다가 가라앉아 있는 맥주.

▶ 필스너(Pilsner)

1942년 체코의 필젠 지방에 위치한 필젠에서 처음 만든 맥주. 현재 유럽이 미치는 양식의 황금빛 맥주의 고향이 필젠이다.

▶ 바이스, 바이엔비어

(Weissbier, Weizenbier)

일맥주를 뜻하는 독일어. 보리맥이 이 외에 밀을 사용하여 거품이 풍부하고 부드럽다.

▶ 스타우트(Stout)

'강하다(Stout)'는 뜻 그대로 맛이 진한 맥주. 까맣게 탄 맥주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흑색에 가까운 갈색이다.

▶ 아이스(Ice)

전통적인 맥주 제조 과정 중 여과 과정에서 온도를 낮춰 맥주 속의 불순물, 찌꺼기를 없애는 데 사용된 맥주를 말한다.

▶ 북(Bock)

독일에서 유래한 라거의 일종. 보리와 맥아의 상태가 최적일 때 만들어 거품내 속성시켜 볼에 옮기던 맥주로 알코올 도수가 높고 맥아 함량이 많은 진한 맥주이다.

해넛, 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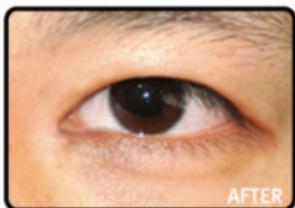


나 불렀어?

사흘 시간이 병든 달처럼 내내 존 녀석이라도 '산업혁명'은 귀에 안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다. 18세기 영국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연히도 되는 걸 기만 뇌물도 없지 그들은 포터를 위한 양조장도 새로 지었다. 새로운 양조장은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과학적 진보로 무장했다. 최초의 기업형 양조장은 시루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기타로
오토바이 탈래?”

로큰롤 시스터 김옥빈

박쥐 같은 그녀. 이번엔 음악에 붙었다.

BY 박한빛의 IMAGE CJ E&M

록 밴드 스키즈 허재훈의 입술을 가슴적으로
흥치며 록 수컷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김옥빈. 밴드 음악이라면 환장한다는 그녀가
이번에는 직접 기타 피크를 잡고 밴드를 결
성한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쓰고, 콘택트 렌즈도 예쁘게
끼면서 음악까지 도전한다고? 흥. 진짜 더럽
게 재능 많네. (걸흔해썬)

m.net <김옥빈의 오케이 핑크>
매주 목요일 밤 11시

강남공연 앵콜요청에 힘입어 코엑스 상륙 확정!
경고 웃다가 기절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극

라이어

코엑스아트홀 개막기념
평일 40% 주말 30% 할인

(1월 31일 공연예매자까지 한함)



라이어 티켓
등록하기



2012년 1월 6일 ~ OPEN RUN 코엑스아트홀

화,목 8시 • 수,금 5시,8시 • 토,일,공휴일 4시, 7시 (월,삼 / 1월 23일 4시,7시 / 1월 24일 4시 공연)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문의 | 1588-5212

주최 | 파파프로덕션 • 나인스토리

2011 아찔 방송 어워드

을 한 해도 방송 사고와 섹스덤이 끊이지아라! BY 박민영기자



대상

생방송 죽풍뱅크

2월 25일, [뮤직뱅크]에서 "그 남자는 반대♯"를 외치던 그룹 달마시안의 멤버 이나티가 격렬한 안무 도중 옆에 있던 다니엘의 안중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다니엘은 입안이 피멍이 된 채로 노래를 열창했고, 이 영성은 세계로 뻗어나가 프랑스 방송에까지 소개되었다. 그 이후 달마시안의 연과 감색에는 달마시안 팀킬, 달마시안 강악이, 죽풍 시안, 죽풍틀 등이 장식했다. 역시 MC몽 소속시답게 차이를 가만 놔두질 않는구먼.

XZI, XZI, XZI,

여봐라! 카우치를 이길 자
게 누구 없느냐!

은계임트 김태형 XZI 해설

2006년 4월, 박지호와 홍진호의 5라운드 대결. 프로토스 박지호가 아마 당에 넥사스를 올리러는 찰나, 김태형 해설위원의 한마디에 은계임트 전체가 뒤집어졌다. "이런데 이제 프로토스가 보...포지 다들레이아, 타를...어...다들레이...해...보지나. 아...포지 나 따라서... 달라지겠조...어..."



장영란의 XZI창조

2007년 7월 26일, (해피투게더) 유명 화가와 작품의 이름을 알기해 노래로 부르는 '도전 알기쇼'에서 자신 있게 "도전"을 외친 장영란이 카메라 앞에 섰다. 반주에 맞춰 몸을 흔들던 장영란은 콘스로 "미켈란젤로 보 X창조♯"를 외쳤다. "미켈란젤로 천지 창조"와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을 혼동했다는 것이 그녀의 해명이었다.



생방송 육풍뱅크

2006년 7월 30일, 생방송 (음악캠프) 2중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두 명이 카메라를 내리고 육풍을 열창하려며 바빠라 향해 연신 비유를 날려댔다. 당시 MC 박지중과 신지가 급하게 사과했고 제작진은 시과 자비를 내보냈지만, 이미 시청자 기분은 부가캐팅 한 뒤였다. 이 사건으로 (음악캠프)는 폐지, 인디밴드의 이미지는 시궁창으로 처박혔다.



각본상

맛집 저승사자 사유리

<MBC 금요일이드>의 '사유리의 식탐여행'은 어느새 '사유리의 식당개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조건 맛있다고 외치는 맛집 프로그램의 가치 따위는 안드러내다 보내버린 덕분이다. 정색하면서 "맛있다" 낱말은 기본, 달기약수로 끓여 국물만이 일품이라는 달떡볶이 "달기약수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물로 해도 똑같은 것 같다"며 황태구이를 맛보고는 "김경진 머리카락이 락 맛이 난대(응?)"고 하기도 했다. 마. 먹어 본거야?



신인상

100분 음주토론

10월 6일 생방송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신지호 의원이 원가 이상했다. 허가 풀린 듯한 어눌한 발음으로 "팬법이나 뒷돈을 줬다는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럼 자기 형을 지인으로 부르냐"는 등 동문서답으로 받아쳤다. 그날 신지호 의원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방송 2시간 전 국회 출입 기자들과 목탄주를 10잔 가까이 마셨다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 마시면 말을 더 잘한다"는 명대사를 남겼다.



인기상

거시기 복복복쇼

5월 25일 MBC 예브리얼의 <복복복쇼>의 별칭은 초성기 먹기였다. '9사 이상 관람가'답게 강예린이 별칭을 수행하는 장면이 수많은 네티즌들의 캡처 신공을 불러일으켰지만, 더 열연 환호를 받은 것은 강예민의 깨알 같은 드림이었다.

강예민: 나 진짜 쇼 생식기는 참아.

장태만: 그럴 다른 생식기는 익숙하신가 봐요?



우정상

취성 안티 김태우

4월 22일, (생방송 뮤직뱅크)에서 취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무대가 한창이었다. 객원 래퍼로 출연한 김태우가 순배덕에 싸늘한 가사를 커닝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빠른 박자를 따라가지 못한 김태우가 버벅거리며 웅얼웅얼한 탓에 노래를 부르던 취성까지 웃음이 터졌다. 그날 밤 취성은 "꿈조런에 실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앱이 아닐 텐데? ...맞나?

쓰는 사람에 따라서 19금이 되는 앱 모음 by 송훈민



직접 보면 더 자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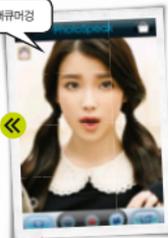
1 Pullpulpic 가격 1.99달러

만화를 보면 볼을 꼭 짚었다가 탁 하고 놓으면 길게 늘어났던 볼이 얼굴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 Pullpulpic(Pulse) 당기개는 그렇게 친구 사연의 볼을 포착할 수 있는 앱이란 게 이들의 공식적인 설명. 하지만 누가 어떤 거 하려고 1.99달러나 내겠어?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움직이는 탄력적인 젤리 이펙트를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 앱의 다른 별명은 '출렁출렁'이야. 어떤 사진의 어떤 부위에 적용해야겠냐? 세상에 모든 여성 사진에 색색다른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매력적인 앱만 있으면 더 이상 호스팅이 '사랑해 무부~ 무부~' 할 때 가슴을 더 세계 흔들어주길 두 손 모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만해 그만이지.



2 Photospeak: 3D Talking Photo 가격 2.99달러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스타의 사진을 수 백장씩 모아본 사람이려나. 사진 속 스타가 실제로 살아 움직인다면 하는 망상에 빠진 적이 있을 거다. 나만 바라보고 말을 걸어주는 상상한 나만의 그녀... 그녀가 내 것이었으면... 이걸 실행해 옮기면 미지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나만의 스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준비할 것은 평소애 아끼던 스타의 잘나온 상반신 사진뿐. 포토스피크에 사진을 업로드 하면 잠시 후 눈을 깜빡거리고 내 터치에 따라 고개를 돌리는 자연스러운 활동 사진이 탄생한다. 사진이 살아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여기가 호구와이드에 사실 기초적인 수준의 빠른 렌더링으로 3D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뿐이지만 그 효과는 의외로 대단하다. 녹음 기능도 있는데 립싱크 시스템으로 소리에 맞춰 자연스럽게 입을 움직이는 걸 보면 신봉병통하다. '야, 아이유가 태어난 표정으로 저런 납담한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3 Rip Mosatsu 가격 350엔

마치 복관을 꿰듯이 사진을 슬러이드하면 뒤 사진이 째어지며 아래 사진이 드러난다. 립스커트를 미니스커트로, 긴팔 옷을 반팔로 만들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수로 인한 곳을 찢으면 속옷이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일본의 유명 그래픽어 모델로 이뤄진 초호화 출연진! 돋보인다. 미비한 시크와 흰 여고생인 척하는 빠드랑니 이모가 튀어 나오기 일수인 동태라 의욕하기 쉬운데 일단 믿어도 되겠다. 그 유명한 동안 누님 호사노 아키를 비롯한 그래픽어 화보가 다수 준비되어 있다. 역시 포인트는 내 취향대로 의상을 찾아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 대놓고 벗은 것보다 더 자극적이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남자의 본성을 제대로 노렸다. 다만 준비된 사진의 양은 조금 아깝게 느껴졌다. 내가 직접 사진을 제작하지 못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MAXIM에서 제대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아이폰을 아동폰으로?

지금 소개하는 앱만 있으면 아이폰으로도 인터넷에서 받은 동영상도 아무런 인코딩 없이 그냥 볼 수 있다. 자막 지원 기능도 또한 완벽하니 이쪽만 리해서 만들어진 아동도 문제없다.



AVplayer

대표적인 무인코딩 동영상 재생 앱. 다양한 코덱과 sm, rt 같은 대표적인 자막도 지원한다.

아이폰 케이블로 직접 전송해서 볼 수도 있고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제스처 컨트롤은 조작의 편의성을 높였다. 2.99달러



Oplayer

도저히 2.99달러가 아까워서 못 쓰겠다. 이유는 이쪽을 노려보자. 역시 유료지만 광고 배

너한 배너 무료 버전과 정식 버전의 차이가 있다. 기술리는 배너도 인터넷을 차단하면(여러 플레인 모드 등) 검색엔진도 있을 수도 잘 통한다. 단점이라면 rt 자막만 지원한다는 것 정도.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고 답했다. 화장실에 앉아 등 배려해 뉴스 읽는 맛을 알게 되면 결코 두고 갈 수 없지. 실제로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인터넷(74.9%)이라고 답했다. 스포츠 신문이 했던 역할을 급속도로 백악이 가고 있는 셈.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하는 사람이 61.5%를 넘는 걸 보니 화장실에서도 굳이 묶인 이메일을 볼 필요도 없지 않겠다. 그런 일이 실제 온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로 관망은 알아보기 두렵군.



DATED

FILM

2012 수퍼 히어로 이스 커밍 투 타운

새해에도 끝나지 않은
코믹 히어로 러쉬엔 BY 송훈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보기



1 어벤저스

마블이 몇 년간 선보인 모든 히어로들은 오로지 이 영화를 위한 맥박이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들인 마음 최고의 프로젝트. 닉 퓨리(사뮤엘 잭슨) 국장 아래 모인 히어로들의 모임, 월드의 이야기다. 그동안 마블의 영화 시리즈를 보면 닉 퓨리가 애꾸눈을 하고 사방팔방 헤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맥박들의 결정체가 바로 어벤저스였던 것. 월드 대원들은 그들의 첫 임무로 토르의 이복 동생 로키가 싸질러놓은 혼란과 맞서 싸울 예정이다. 아무리 봐도 빌런이 너무 허접한 듯 싶지만 지난 여름 코리넌에서 인피니티 컨들렛이 공개되며 초강력 빌런 티노스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후반 작업 중 >> 5월 4일 개봉

Behind Story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
할크는 같은 편 히어로들에게도 너무 골칫거리라 그들의 작용 모의료 우주로 추방된 적도 있다.

주요 멤버



공중이동의 우상 토니 스타크 - 아이언맨



번개산? 산이 왜 여기 끼어 있어? - 토르



전직 약골 출신 - 캡틴 아메리카



초해서 할머니
전직 KGB 요원 - 블랙 위도우



눈과 손을 잃지 시킬 수 있는
최종병기 활 - 호크아이



내 바지가 찢어지는 순간 19금 - 할크



2 다크 나이트 라이즈

지난 12월 9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특별 시사회를 열고 6분가량의 프롤로그 영상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존 파브르크(아이언맨), 마이클 베이(트랜스포머) 감독들의 모습도 보였다. 시사 후 언론 기자들의 반응은 모조리 호평 일색. '엄청난 장관', '내가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같은 최고의 칭찬이 터져 나왔다. 이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배트 마스크를 부수고 돌아서는 베인의 뒷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가 공개되기도 했다. 배트맨의 최후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아닌 게 아니라 베인은 원작에서도 배트맨의 척추를 부지르며 최대의 시련을 안겼던 인물. 놀란은 한 인터뷰에서 프롤로그는 베인이 그동안 배트맨이 싸워온 악당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배트맨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육체적, 물리적 도전을 맞닥뜨리게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의 이야기를 끝내기 위함이다'라는 발언으로 팬들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였다. 다크 나이트 이후 8년, 이제 늙어버린 브루스 웨인에게 최후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1월 말에 촬영 종료 >> 7월 20일 개봉

Behind Story



- ▶ 아이맥스 촬영 분량이 50분을 넘는다. 놀란은 어린 시절 대형 스크린 앞에서 느꼈던 경이로움을 재현해보고 싶었다며 원존하는 최고 화질을 자랑하는 70mm 필름을 아이맥스 상영을 고집했다고
- ▶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난 11월,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배트맨 영화라고 선언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너무 빠른 리부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막상 이 영화가 개봉하면 안 보고 배급 관례가 얼마나 될까? 소니 픽처스 최고의 히어로 프랜차이즈로, 최근 히어로 영화로 돈 맛을 알게 된 마블사가 가장 망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판권 판매가 바로 스파이더맨이다. 소니는 마크 웹(500일의 섬망) 감독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스파이더맨이 그저 그런 히어로 무비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가 그려낼 가장 서민적인 보통의 영웅 스파이더맨은 역시 가장 인간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빌런 '더 리지드'와 싸우게 된다. 군의관이었던 커트 코코스는 사고로 한쪽 팔을 잃고 도마뱀의 기적적인 재생 능력에 사로잡혀 이를 연구하다가 스스로 생체 실험을 해 리지드맨이 되고 마는 인물. 마치 할 처칠을 리지드가 되지 않기 위해 이성과 욕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가장 인간적인 빌런이다. 이 역할은 영화 <노팅힐>에서 미친 존재감을 선보였던 배우 리스 이언이 맡았다.

후반 작업 중 >> 7월 31일 개봉

Behind Story



- ▶ 앤드류 가네트, 엠마 스톤, 커윌이 특히 백마이리, 커어스틴 던스트, 커윌을 넘사시울 수 있을게
- ▶ 더 이상 스파이더맨은 뮤턴트기 아니냐? 원작처럼 직접 개발한 거미줄 발사 장치를 사용한다.

4 고스트 라이더2

얼굴만 보면 연쇄살인마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 양아버지의 병을 나게 하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잡힌 효자 히어로. 덕분에 밤마다 훔칠 타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타락한 영혼들을 뒤흔는 다크 히어로로 임약한다. 약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 라면 누구든지 한순간에 소멸시킬 수 있는 참회의 시선으로 빌런(악당)을 고개도 제대로 못 들게 하는 무서운 형이다. 사실 1편이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기에 이미 지불한 판권비가 아까워서 만든 게 아닌가 싶지만, <아드레날린 2(원제: 크랭크)> 1, 2편을 연출한 마크 네발라인, 브라이언 테일러 감독 콤비의 합류로 전혀 새로운 고스트 라이더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다. 예년을 막 나가는 연출 정말 일러주거든. <아드레날린 24>에서도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 경마장에서 라이브로 락을 쳤는데 벌써 이번에도 고스트 라이더의 오줌발이 화염발이라는 게드립을 날리는 등 쿨한 그룹 테이스트를 전하게 풍기고 있다.

후반 작업 중 >> 2월 17일 개봉

Behind Story

- ▶ 고스트 라이더의 예마 제인인, 전작까지는 할리데이 비스를 찾지만 신작에선 아미하의 스트리트 바이어 V-MAX로 업그레이드.



끝나고? 아니야!

2013	아이언맨 3 (5/3)	재키 존비 중
	맨 오브 스틸 슈퍼맨 (6/4)	촬영 중
	토르 2 (7/2)	기획 중
2014	캡틴 아메리카 2 (5/4)	기획 중



모기향처럼 은근히 스며드는 **올벤, 우승민**



있든 없든 10년이나 우리 곁에 있었던 남자. 올벤 우승민의 인생 마지막 하루를 들여다보자.

BY 송준민 ILLUSTRATION 전영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적이 있나?

어제 술 마시다가 죽는구나 했다. 맨날 마시니까.

싫어했던 그 날이 내일이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뭐가?

내일 죽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

후회가 없다가?

내 인생의 모든다. 저시간 일에 후회가 없다. 그 때 그렇게 할걸 하는 애들이 제일 짜질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당신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타입인가?

최선을 다하려고 굳이 하지 않는다. 개미가 개가 될 수 없듯이 처해진 환경에 맞게 살아야 한다. 아등바등 해보니까 남는 게 뭐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싶었다. 타고나는 게 큰 것 같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노력만 하는 것도 딱하잖아.

뭘 그렇게 실례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

연애할 때 느껴봤다. 안 되는 여자는 안 되더라.

그래도 해볼 수 있는데 까지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인 거다. 온라인 게임에서 꼭 마법사 골라놓고 힘스텝 줄라 찍는 놈들 있다. 애초에 잘못된 거다. 내가 잘 하는 걸 열심히 해야지 괜히 더 욕심 내다가 원래 잘하던 것도 못한다.

은근히 실력력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몇 살 때인가?

인간의 완성도가 나이하고는 상관없다고 본다.

무슨 계기로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나? 가창력 타입은 아닌데 말이다.

재능이 있다거나 목표가 있어서 시작하진 않았다. 그냥 노래를 듣다가 노래가 불러보고 싶었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가수가 되었다. 견다 보니까 여기와 있는 거다.

당신의 첫 번째 앨범 〈18 隼〉나게 재수 없이는

24곡 중에서 4곡 빼고 전부 19곡 일 정도로 욕 투성이었다. 그때의 화는 다 어디 갔나? 요즘 노래는 마치 CF 로고송 같다.

언어 선택이 좀 더 방송에 적합하게 변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한다. 노래의 장르로 포크를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다. 그냥 좋아서.

〈무릎팍 도사〉에서 날로 먹는다는 말이 많았다. 거기에 왜 안이 있었나?

“저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왜 나오지? 저거 정말 웃긴데 왜 안 나오지?” 나도 예전에 집에 앉아 TV만 볼 때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 5년이 넘는 방송 생활을 해보니 그 사람이 거기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였다. 막말로 PD나 작가가 뽀나이야? 날로 먹는 애들 쓰게? 난 내 역할을 한 거다. MC랑 게스트랑 둘이 이야기 하는데 옆에서 누가 깔치면 짜증나잖아. 내가 방송 분량 욕심 내는 것보다 게스트를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요즘 〈놀러와〉 ‘반자하의 재왕’ 코너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코나가 아직 자리를 잡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다. 사실 게스트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믿고 써주신 분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고 싶기도 하다. 구성원의 역할을 잘 해내야지.



예전보다 의욕적인 모습 덕분에 방송 분량이 크게 늘었다.

한번도 내 분량이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걱정에 본격적은 없다. 때론 내가 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거다.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시 옛날처럼 될지도 모른다.

〈놀러와〉에서도 피란 추리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쌍한 이미지 굳히기인가?

난 똑같이 사는데 대중들이 저무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대중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불쌍하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 있었던 팬클럽 창단식은 눈을 얼어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의 트위터에 "올랜 팬클럽 창단식 7시 현재 아무도 안 올"이라는 쓸쓸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올린 다음에 15~20명 정도 왔다. 10년이 넘는 팬카페 친구들이었다. 다 아저씨 되고 아줌마 되고 그랬다. 그 애들 내가 다 축하 불러주고 시집 보냈다. 애기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재미없어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집에 갔다.

그런 거 보면 결혼 생각 안 드나? 나이에 이제 할 만큼 차지 않잖아?

좀 더 있다가 할 거다. 한 70살 되면? 푸훗 결혼 생할 오래 하고 싶지 않다.

소속사를 나와 일인 기획사 반지하의 제왕을 차렸다. 이제 보도자료는 누가 돌리나? 직접 돌리나?

보도 자료 안 돌린다. 귀찮다.

인디 밴드의 메카 홍대에 살다가 최근 방송국 근처 능력으로 이사간 것은 노래보다는 예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가?

에디터 혼자 음모론 쓰나? 전셋값이 싸서 간 거다.

이번에 독하게 마음먹은 김에 세운 목표가 있디면?

욕심을 가지는 순간 사람이 불행해 진다고 본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차를 할부로 사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여자를 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에 만족할 줄 안다면 화나게나 슬픈 일도 없을 거다.

한미타로 목표가 없다는 뜻인가. 그래도 최소한 내일 죽기 전에 할 일은 생각해 봤겠지?

내 무덤은 내가 팔 거다.

요비에는 뭐라고 쓸 건가?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써야지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 죽기 전에 인생을 돌아본다면

자니고 나서 생각했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사귄 때는 다 사랑한다고 사귀잖아. 하지만 나중에 자니고 보면 그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사랑했는지 알게 되지. 나중에 봤을 때 칭피함이 없고 후회 없는. 묘비처럼 잘 놀다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죽어도 스스로에게 꼭 팔리지 않는 인생이 라면 좋겠다.

직접 팬 무덤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전성기를 추억해 본다면 언제였던 것 같나?

내가 이 말을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내일입니다." 강호동씨가 했던 말이 다. 아. 웃기려고 한 건데 안 먹히네.

아이 사람이, 내일이 없다면. ㅎ



SOUL CALIBUR V

한 죽어도 여자 캐릭터를 고르는 뒤후의 슬픈 승전
지금까지 참전 확인란 (소울칼리버 5) 여캐 총 집합



Natsuki

Natsuki: 빨간 타이즈를 입은 반데 난자 타카의 제자. 이따는 꼬아러온 시 부를 위해 급격한 재가 대신 솔선 행-? 하긴 그렇게 타이즈형 위상으로 할매짓을 보고 심신 없은 공개은 영상을 보면 스피드 위주의 재빠르고 트로기같은 움직임이 어절이다.

Hilde

Hilde: 소울렛지에 유혹당한 부 원은 사라지고 그녀의 나라 불 프르코리는 멸망하고 만다. 하지만 30세의 왕녀 힐데리트르드 큰 크로네는 사형하는 조국의 부흥을 위해 몸병단 '슈비르츠 빈도' 외 함께 행동 중이다. 자신의 나라를 위협했던 부른 전 사자르리르트를 격퇴하고 그를 물상케한다. 2년 이번 작품에서는 무엇을 위해 싸우게 될 지 생애에 따라 어느새 유부녀가 되어 2명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 대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애마다



내가 동생이



Pyrrha Alexandra

Pyrrha: 힐데리트르드 스피드타의 딸로 피르로클로스의 누나. 20세. 열골의 추근개만 해낸 스피드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베터버튼 뜻 한 외모로 남상 유자텔의 절제적인 인지가 예상된다. 19년 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검과 방패를 통해 자되고 있는 걸 보면 스피드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랍을 직 소울렛지의 신 통자인 타라에게 유괴당해 단절되어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 스피드타가 그녀를 구하고 희생되거나 하진 않았잖나?



"역사는 세계를 뛰어넘어, 영원히 구전되는 검과 혼의 이야기"

힘을 원하는 자를 유혹해 그들의 영혼을 잡아삼키는 사정 '소울렛지'와 그를 파괴해야 하는 숙명을 지닌 영검 '소울칼리버' 두 쌍검의 영원할 것 같은 싸움.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난 네 번째 이야기에서 소울칼리버의 소유자 지르코르트는 소울렛지의 소유자 니이트메어와 의 최후의 싸움 끝에 소울렛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싸움이 끝났을 때 두 검은 이 세상이 아닌 미지의 공간에 빠져 있었다. 세상의 운명을 건 싸움은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끝났던 것이다.

이번 시리즈는 두 검이 모습을 갖춘 지 정확히 17년 후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히로인이었던 스피드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두 아이는 어느덧 상인의 모습이 되었다. 신학의 성전사였던 어머니의 명예를 잊고자 하는 피르로클로스와 어머니가 같았던 함난한 운명을 떠난채 된 워라 알렉산드라 남매가 이번 작품의 주인공이다. 과연 스피드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소울렛지는 또 다시 부활할 것인가? 이 모든 해답은 2012년 2월 2일 발매될 (소울칼리버 5)에 담겨 있을 것이다!



Tira

이녀는 2개의 안경을 가진 이상 안경의 알삼자. 역사는 역시 아미란이라는 공식에 충실하다. 소울캐처와 하수인으로 그를 지키기 위해 관장이라는 이름의 하수인들을 다수 거느리고 있다. 이번 작품에서도 오묘에 어울리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예상된다.

Leibniz

캐릭터 성취가 공식 만으로 굳어진 장치를 어디까지 할까 막았는지 연우신이라는 명나라 장군과 공백에서 낳은 딸이 레이다. 원모가 상해의 관백이 수준 임의한데 천수병은 무술로 새롭게 소울캐처의 세계에 침투하게 되었다. 사실상 상화의 퇴출에 가까운데, 중년 여성은 격투 캐릭터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보니 격투 게임에서 아미의 캐릭터를 본 적이 없네.

Viola

비밀이 이상한 보물을 다루는 가면을 잃은 평민자. 괴무오르 오르비스라고 불리는 신비한 보물을 자유자재로 다룬다. 그동안 소울캐처에게 전혀 없었던 새로운 스테이플로 원가문에 시오브를 깨어두고 적을 농락하는 천무를 보아들 못했다. 복대의 힘을 겸해서 생애 싸우는 브라이의 같이 행동하고 있다. 가면을 잃었다는 설정임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전략에 리퍼블의 당나라가 되었든 에이미라는 설도 있다.

Ivy

이녀는 장강 강괴는 다르게 소울캐처를 띠고되어,는 선한 캐릭터 아이비. 장강까지 체르니테스의 피를 물려받아 순수한 정통만이 다를 수 있는 소울캐처를 직접 사용할 수 없어 그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아이비의 가슴으로 죽을 뻔한 뒤 기성형에서 연구 중이던 인공 호르몬 대신에 연결했다. 그래서 나이도 30대에서 영혼 상태.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온사 '링크'의 전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BY 김형민

만자가 쌓인 채 방치된 Wi-Fi 극적인 부활 찬스를 얻었다. 25년 동안 전 세계에서 6,00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운 젤다 시리즈의 최고작 《시간의 오키라나》와 비견될 《스카이워드 소드》가 발매되었으니 말이다.



젯비린내 나는 링크의 첫 모험

《스카이워드 소드》는 젤다 시리즈의 출발점이다. 용사가 되기 전의 젯비린내 나는 링크의 모습은 물결이 고공주가 아닌 소꿉친구 시절의 젤다도 만날 수 있다(이때만 해도 납치당할 일은 거의 없었던 얘기).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무기 '마스터 소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공개된다.



아이템 강화 완료

링크는 새총을 비롯해 흔해빠진 검과 방패 등을 애용하는 가난한 영웅이었다. 그런 링크가 안타까웠는지 아이템 강화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의 무기는 물론이고 물약도 강화가 가능하니 필요한 만큼 업그레이드 하던 게임을 진행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튼튼이 소재를 채워주는 것도 잊지 말도록!



꿈이 현실이 되다

이번 작품은 《황혼의 공주》와 달리 위모트 플러스 전용으로 출시됐다. 이는 젤다의 팬이라면 꿈꿔온 '링크의 꿈을 자신이 직접 휘두르는' 액션을 현실로 만들어준다. 버튼 대신 위모트로 조작하기 때문에 세심한 컨트롤이 가능해졌고, 방향과 각도를 고려해서 휘둘러야 적들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거다.

총점 ★★★★★

《시간의 오키라나》와 견줄 만한 최고의 젤다 시리즈가 탄생했다.



350,000,000

미친 새의 위업 발매 이후 350,000,000회의 다운로드를 돌파했다(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마이트론 유저의 '혹한 새' 사랑은 정말 식을 줄을 모른다.



3DS의 구원군

PS VITA를 상대할 닌텐도의 구원군은 역시 배관공 형님이다. 《마리오카트》와 《슈퍼마리오 3D랜드》가 출격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3DS를 잘라야 할 이유가 순식간에 2개가 생겼다.

굿바이! 워크래프트3

박준의 우승을 마지막으로 WCG에서 은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품량했지만 해외에서는 《스타》을 짓밟았던 《워크래프트3》가 2011 WCG 대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대회에서 막을 내렸다. 《스타2》로 게이머로도 활약 중인 워크래프트3의 절대 강자 박준은 전투력의 오키라나 라는 별명답게 결승전 상대 스카이를 상대로 '패-승-승' 공보를 선보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워크래프트3》의 레전드 정재호와 박준이 보여 주는 치열한 집념을 볼 수 있어 아쉽지만 도타를 비롯한 AOS 장르를 탐색 시킨 《워크래프트3》은 그 자체로 이미 최고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게임 센터에 흔저옵서예

한국인은 경쟁의 민족, 싸우야 산다. by 송준민



1 상대를 먹으며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스트리트 파이터 4 볼트

조이스틱 컨트롤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전 액션을 터치스크린에서 구현한다고? 근군다나 스트리트 파이터는 6버전 시스템이잖아! 하지만 이미 철권 시리즈가 PSP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잖아? 캡콤의 디자이너들도 버튼 입력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으로 그 난관을 극복했다. 익숙해지면 원작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과 콤보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조작법의 완성도를 말해준다. 걱정 말고 상대에게 아도권과 아더파우젠을 먹여주자. 와 이파이 온라인 대전에는 언제나 수많은 전세계 격투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데 잘 것 같으면 게임 종료하고 나가서 컵들은 대책이 없어.

3 친구를 잡긴 잡고 떨어주고 싶다면 인파티티 플레이드

이게 휴대 게임의 비주얼이 아니라 PSP 같은 포터블 콘솔 게임 인기를 민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그래픽의 (인파티티 플레이드는 (가스 오브 워)로 유명한) 여러 게임즈의 작품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언리얼 엔진3의 모바일 버전을 활용, 단 5개월 만에 독막 만들어낸 게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완성도를 자랑한다. 거기에 클레디에이티식 강투를 완벽히 재현한 혁신적인 컨트롤 체계를 완성해 태의 모바일이 되고 있다. 역시 메이저 제작사는 노는 물이 다른 건가? 무료로 업데이트된 아래나 모든는 직접 타이탄(직)이 되어 영웅을 때려눕힐 수 있는 흥미로운 멀티모드. 온라인 유저들과 영웅과 타이탄 역할을 교대해가며 7번4선승제 대결을 펼친다. 진짜 7천 원이 안 아깝네.



스트리트 파이터 4 볼트



모던 캠프 3



플루트 난자



인파티티 플레이드

게임 센터란?



아이폰에서 실행되는 모든 게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 게임 별로 다양한 업적/레드 과제와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친구 추가, 친구의 게임 성적 보기 등의 인맥 관리도 가능하다. 액스박스 라이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려나?

리뷰 게시판을 더럽히는 것들



앱스토어에 게임 색인이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유독 게임 평가란에 이중 갈래더군요! 환불해달라는 말과 구입 내역 중 지워달라는 글이 많이 보인다. 일단 이중 갈래는 최초로 아이폰 앱을 구입하면 신용카드 결제 테스트로 된다가 사법 인종된 것을 보고 '야야 뜨거라' 하는 사람들이 능성이 높다. 또 구입 내역 삭제는 아이튠즈의 구입 내역 메뉴에서 '기각' 버튼을 누르면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 업데이트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리뷰 게시 시간이 무슨 죄여, 가에 쓴다고 아무도 해질 안 해준다. 징당제치 마



2 휴대폰으로도 '전방 수류탄'을

외치고 싶다면

모던 캠프 3

(모던 워페어)가 아니다. (모던 캠프)이다. 유명 게임을 비슷하게 따라 만들고 나사를 하나 정도 빼고 스마트폰으로 이식하는 것이 전문인 게임개발자가 아심 차게 선보이는 FPS 게임이다. 제목에서도 눈치챌만한 것(플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아주작이다. 심지어 자막 폰트까지 비슷하다. 이런 뭐 빼도 봐도 못한다. 내용은 미국을 침략한 북한과 러시아 연합군을 물러나게 하는 것. 하지만 진짜 당시의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자이로스코프로 조작하는 컨트롤이다. 몇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긴 하지만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것을 멈추기 쉽지 않다. 워인이라는 점은 온라인 모드에도 당시처럼 비틀거리는 상태가 없다는 것이다. 최대 12명까지 정선 없이 서로의 진영에 수류탄을 던져줄 수 있다. '전방 수류탄'이 아니라 '파이아'인 더 좋은 게 좀 아깝다.



4 친구들과 웃으며 경쟁 하고 싶다면!

플루트 난자

게임은 단순할수록 재미있다. (플루트 난자)는 그 규칙을 다시 깨달아 해주는 게임이다. 화면에 날아다니는 과일들을 발로 베어 떨어뜨린다. 연속으로 벨스루크 점수가 올라가고 폭탄은 피하면 된다. 이렇게 단 두 줄로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심플함이 이 게임의 미덕이자 경쟁력이다. 필요한 난이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질리지 않고 명하니 몇 시간씩 현란하게 과일을 베게 한다. 중독성이 심할의 모리라면 정신 없이 날아오는 과일 중에 딱 하나 과일만 잘라야 하는 멀티플레이는 친구들과 할 것 같다. 재미있는 퍼티 게임으로 먹이다.



게임 동영상으로 보기



모던 워페어3
영상 보러가기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

충격 게임의 끝판왕이 왕림하셨으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도록. by Rodrig

FPS 장르의 전설이자 레전드인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가 돌아왔다.

밀덕은 커녕 FPS 게임과 눈곱만큼도 친하지 않은 사람도 플레이를 시작한 순간 엉덩이에 땀띠가 나기 전까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미친 몰입도를 자랑한다.

판매량으로 증명된 게임의 재미

클래머가 이상형인 남자라도 김태희처럼 예쁜 빈우의 여성에게는 들이댈 수 밖에 없듯이 취향을 떠나 모두가 엄지 손가락을 치켜드는 명작은 존재한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8일 출시 후 16일간에 10억 달러(한화 1조 1,5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총 판매량은 66억 달러(한화 7조 5,330억 원)에 도달했는데 영화 <아바타>와 <타이타닉>,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선물 Part1>을 합친 것들 뛰어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금을 써 줄 때 돈을 꺼냈다는 건 그만큼 재미가 있던 얘기 아니겠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게임 연출

인터넷에 접속하면 곧바로 즐길 수 있는 FPS 게임이 넘쳐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 얘기만 나오면 활활 거러서 달려드나고? <모던 워페어3> 시리즈의 멋진 연출 덕분이다. 좀더 친절한 스토리, 이

를 뒷받침해주는 리얼한 그래픽, 몰입하기 좋은 직관적인 화면 구성은 게이머에게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전략의 '공황 테러' 미션처럼 현실 속 특수 부대의 임무도 완벽히 재현되며, 현대전의 각종 화기를 마음껏 난사하는 재미도 맛볼 수 있으니 군필 게이머라면 피가 끓어오를 거다. 이들과 함께라면 따끈한 운동방에서 전장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략의 액션 직후부터 이어지는 시작이다

현대전 각종 무기 총집결

여기 등장하는 무기는 모두 한역으로 활약 중이다.

메이든 인 코리아



MW3에서의 순간순간이 모두 영화의 한 장면이다.

게임에서 등장하는 화기라고 하면 무 보지 마라. 미군을 비롯해 실전에서 사용 중다. 가령 M4 신드롬이 K2 소총이나 썬본 망개 출신이라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로 핫한 신무기를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각종 달것을 두루 체험할 수 있다. 이중에 USAS-12라는 강력한 신탄 총이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대우정밀에서 재현한 녀석이다. 미국에선 3급 파괴 무기로 지정돼 민간 판매가 금지됐는데 게임에서는 그저 그런 무적이다.



두말하면 잔소리인 멀티 플레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의 멀티 플레이는 명불허전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성이 없다. 기존의 '킬스트릭 시스템'을 개선한 '스트라이크 체인 시스템'을 비롯해 사바이브 모드, SNS 개념을 차용한 '콜 오브 듀티 엘리트'까지 준비했다. 그 중에서도 친구와 함께 즐기며 뽐낼 랭크 좋은 코옵, 사바이브 두 가지 모드가 인상적이다. 코옵 모드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 플레이하는 데 단순히 함께 총질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다. 다른 시점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야만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다. 전작의 준비 모드를 대신하는 사바이브 모드는 이름 그대로 살아남으면 된다. 돌아서 힘을 합쳐 죽기 전까지 적들을 사살하면 되는 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중독성이 굉장히 대발자의 수만 시간을 방해하는 것만 이유가 아니다.



비밀기가 폭발해도 총질은 계속된다



예발팀이 라우너 무너진다. 이름 어둡...



사바이브 모드의 끝자락이, 군대 풍계



총질보다 중요한 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다

드디어 완결되는 장대한 스토리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는 러시아의 악당 자카예프가 뿌린 핵전쟁의 씨앗을, 마카로프가 납죽 받아주고 이를 실전에 옮기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발발한 세계대전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특수부대의 이야기를 다룬다(게이머는 바로 이 특수부대에 감정 이입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드디어 빌어먹을 놈들에게 옛을 먹이며 장대한 스토리의 종지부를 찍는다. 세계를 상대로 나쁜 짓을 도맡았던 마카로프가 우리 특수부대 싸움에게 어떤 최후를 맞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작품을 재미있게 즐기는 포인트. 싱글 플레이어는 총 16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으며, 각 챕터를 다양한 사람의 시점에서 플레이하면서 전체 스토리의 파즐을 맞춰가 는 것 역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3》만의 독특한 진행 방식이다.

형보다 나은 이유는 없다

게임성은 최고다. 여기에 이전을 뒤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전작이 너무 혁신적이었는 데 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넘사벽 수준의 게임이지만 2편과 비교하면 발전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다. 그래픽은 물론 FPS 게임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싱글 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다. 판매량과 달리 해외의 주요 게임 언론의 평가가 그 혹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콜 오브 듀티》 제작자들이 모여 설립한 리스본 엔터테인먼트의

FPS 좋아하는 여자 못 만나다?

MAXIM 12월호에 등장한 마녀 윌케이트도 FPS 마니아이다. 실제로 필자가 알고 있는 다수의 마녀도 총질을 격하게 아낀다. 예쁘게 포장된 《모던 워페어3》을 권하고 방식 음성 채팅으로 사랑을 키워나간다. 게임이 끝난 후 20여분의 화끈한 뒷모임도 포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산적이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들이 내놓을 게임은 《해일로》나 《7어스오브양》에 가까운 미래 지향적인 FPS라고 밝혔지만, 액티비전이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다음 작품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알맹이가 썩 빠지고 갈대기만 남은 시리즈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지금의 영광을 이어갈 것인가? 현재의 영광으로 치부되고 말 것인가? FPS 게임 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이다. **W**

감칠맛 나는 사운드!

일각에게는 못마땅해도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쫄리더라.



그래픽에 대해서는 패스한다. 전작을 즐긴 게이머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번 작품에서 눈에 띄는 건 사운드다. 미션을 진행할 때의 효과음을 비롯해 잠입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BGM은 게임 할 맛을 100% 업그레이드시켜준다. 물론 밀턴의 비평처럼 영화 《히트》의 사운드 마스터 생생한 총기 사운드를 제공했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DIRTY TALK

허를 잘 놀리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BY 김희성

섹스의 메인코스는 단연 인터코스(삽입)이지만 그것이 섹스의 전부는 아니다. 삽입이 섹스의 전부라면 그동안 에디터가 키보드가 달도록 써왔던 다양한 주제의 섹스 칼럼 따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랫도리를 더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 체조', '5분 더 오래하게 만드는 최면술', '곧추서는 데 작용인 함약제' 등 의학칼럼 비스무리한걸 쓰고 있었을 거다.

여자들은 다음에 또 섹스하고 싶은 남자를 크기와 시간 순으로 고르지 않는다. 물론 크고 오래가는 남자가 좋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거다. 그러니 당신이 크기에 자신이 없거나 오래하는 데 자신이 없더라도 전혀 기죽을 필요는 없다. 여자들은 크기만큼이나 당신이 섹스할 때 하는 '말'에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다.

자, 당신은 그동안 침대에서 어떤 말을 내뱉었나? 남자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무지하게 민감한 여자들이 당신이 침대에서 하는 말을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주려고 한다. 남들보다 조금 적더라도, 조금 빨리 끝나더라도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신은 공평하게도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리셨으니, 당신은 말 한 마디로 천 년 빛도 깊고 남도 보고 섹스도 하는 기쁨을 누리면 된다.

지립 연 하이드

무척이나 자신하고 착했던. 완전 남편감으로 딱이라고 생각했던 그와 드디어 밤을 같이 보내게 됐다. 침대에서 그는 역시나 무지하게 자상했다. 그속히 날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날 쓰다듬어 주는 부드러운 손길... 아아 정말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피스톤 운동이 점점 격렬해지자 그는 갑자기 나에게 "아이씨!!!!!!!"라며 고향을 질렸다. 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놀랐지만 하던 건 마저 해야 했기(애용?)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정액을 발사한 뒤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상남으로 돌아와있었다. 하지만 다음 번에도 그 다음 번에도 그는 색삼한 하면 어렵잖아 날 "C발"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은 울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이 삼키로브로르르시키애!"라고 용기내서 말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며 "내가 언제?"라는 흥격적인 한 마디를 남겼다. 그게 더 무서워... 결혼이고 뭐고 그 뒤로 다시 안 만났다. (K29세, 백화점 근무)

욕을 가르쳐 준 남자

나에게 자꾸 욕을 해보라고 시키는 남자가 있었다. 평소 욕이라고는 "아이씨..." 정도가 고작이었던 나는 그와 섹스를 하면서 평생할 욕을 다 해봤다. 어떤 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니 "자. 뽀뽀. 욕은 끝말만 세게 하면 되는 거야!"라며 5살 먹은 애한테 그, L, C, K, K 가르치듯 한 마디 한 마디를 따라 하라고 했다. 내가 욕을 하면 할수록 그는 점점 흥분했지만 나는 아무런 감동도 흥분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는 마초남이던 것 같다. 난 마초남이 더 좋은데,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하지 그랬어 P(25세, 출판사 근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잘 먹었다"며 음식과 나를 동일시하던 그 심지어 내 몸 곳곳을 애무할 땐 "후루룩 씹씹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처음엔 그저 당황스럽고 웃기기도 해서 별로 신경 안 썼다. 사실 섹스도 꽤 괜찮았다. 나를 맛있는 음식 먹듯 하는 애무가 끝내주게 좋았거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섹스 후에 "잘 먹었습니다!"하며 트림을 했다(거짓말 같지? 진짜 짜야... 믿어줘...). 갑자기 영화에서 봤던 중보치 시체를 파먹는 장면이 떠올라 무서워진 나는 그날 이후 그의 연하를 피하고 있다. L(23세, 피팅모델)

팬틴 다이조부

섹스의 맛을 인지 얼마 안했을 무렵, 이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감정을 막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에 나는 아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 편으로 무성기도 했다. 영화에서 베드신을 볼 때마다 섹스할 때 좋다고 하면서도 살짝씩 찡그리는 그 표

정이 도무지 이해 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막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실례고 좋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다. 그 때 나는 섹스할 때 "무섭다"는 말을 많이 했다. "너무 흥분해서 미치겠어"라는 말의 유사한 표현이었다. 내가 무섭다고 할 때마다 그는 "괜찮아. 괜찮아."라며 내 손을 꼭 잡아줬고 나는 그의 "괜찮다"는 말 때문에 더 흥분하고 그랬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흥분되는 말인지는 그 때 처음 알았다. S(22세, 유흥생)

Thank you for the music!

가끔씩 말보다는 음악이 더 좋다. 클림에 은 것처럼

방안을 퍼황퍼황 울리도록 스피커의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섹스를 하는 거다. 음악이 방 안의 공기를 빠빙하게 채우도록 일단 볼륨을 높여놓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냥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더 강렬히 응시하게 되고 말없이 웃을 벗기고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풀러블러블라...

영화 (큐브)에 보면 섹스를 하던 인연들이 해골이 되어 사라져 없어지는 장면있잖아. 마치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은 우주 속에서 섹스를 하는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에 평소보다 더 흥분된다. 클림에서 섹스를 해도 이런 기분이었지? L(27세, 모델)





LOVE

YES! YES! YES!

그녀를 침대로 이끄는 말들

우리에게 섹스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한 마디.

“너 보자마자 섰어”

그녀의 예상 답변

» “정말? 왜? 왜? 정말? 정말? 왜? 진짜? 레얼? 진심?”



그녀의 속마음

“내가 예쁘고 섹시해서 섰는지 단지 네 성별이 여자이기 때문에 섰는지.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도 똑 같은 말을 할지는 당치 알 길이 없지만 어찌 됐든 나 때문에 그의 아랫도리가 단단해졌구나... 아나,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하면서 또 고급스러우니는 잘 모르겠지만 날 보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우뚝 서더니 도대체 나란 여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토록 아메이징한거지? 오늘 뿌리고 나온 향수 땀에 그런가? 짧은 치마 때문인가? 아님 섹시한 내 입술? (중략) 어찌됐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지금! 그의 그곳이 곧추서있다는 거다. 나 때문에 섰으니 마우리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 암. 그렇고 말고.”

EDITOR SAYS:

하지만 이 멘트는 적어도 어느 정도 섹스를 통해 친밀해진 사이일 때만 통하는 거다.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첫 멘트로 “너의 그 예쁜 얼굴을 보자마자 내 거기가 곧추서 버렸지 뭐야”라는 드립을 칠 수 없는 거잖아? 논란 마주쳐도 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은 연애 초기이거나 몇 번 합을 맞춰본 사이일 때만 시도할 것.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그녀의 예상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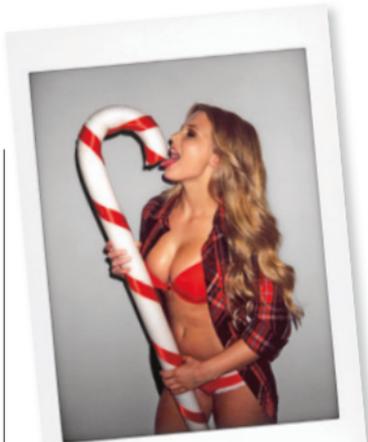
» “점심? 그래! 우리 널 점심 무지 맛있는 걸루 먹자!”

그녀의 속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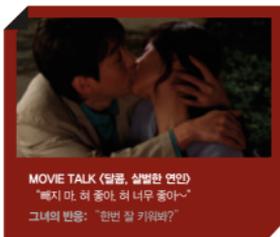
“점심을 먹이고? 오늘은 집에 들어가고 내일 점심 때 약속을 다시 잡자는 건지. 오늘 밤부터 내일 점심 때까지 꼭 같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선 내일 점심 때까지 같이 있자는 말이겠지. 널 아들도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싶어하는 걸 보니... 저 오후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해!”

EDITOR SAYS:

특히 자존심이 세거나 도도하거나 혹은 수줍음이 많은 그녀에게 “오늘 우리 같이 잘까?”라는 제안은 화려한 베이컨 백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속마음이 어찌간에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무조건 반사처럼 수컷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보는 말버릇이 배어있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같이 먹자”는 은유적인 멘트는 “오늘 우리 같이 자자”는 멘트보다는 훨씬 세련된 표현이지만 이 또한 그녀의 거절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멘트다. 꼭두새벽부터 맨다쳐 해들이 보러 가는 것 도 아닌데 같이 아침을 먹자는 건 보나이나 오늘밤 같이 있자는 말이 뻔한데 여기서 “쿨!!!”을 외쳤다면 쉬운 여자로 보일까봐서 일단 거절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 점심 같이 먹자”는 멘트는 참으로 애매한 것이 지금부터 꼭 같이 있자는 건지 내일 다시 만나자는 건지 살짝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그녀에게 “에스”란 대답을 들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설사 눈치 빠른 그녀가 점심 때까지 꼭 같이 있자는 당시의 의중을 눈치채더라도 분명 “에스”라고 대답할 거다. 아침 먹자는 남자는 나를 단순히 원나일 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점심 먹자는 남자는 나를 가볍게 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뭐 다음 날이야 어찌되든 일단 쿨이요!



MOVIE TALK (달콤, 살방한 연인)

“짜지 마. 허 좋아, 허 너무 좋아~”
그녀의 반응: “한번 잘 키워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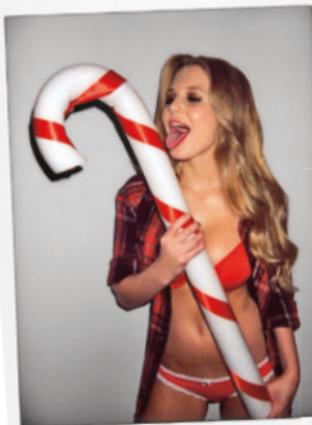
NO! NEVER! EVER!

그녀를 침대에서 탈출하고 싶게 하는 말들

아이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쿵쿵

EDITOR SAYS:

인간인 게 "세 명"이다. 여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답하는지 모르겠지만(누가 순진한 에디터에게 좀 알려줘요~)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답할 거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건 이 질문에 옵션으로 꼭 따라 나오는 질문이다. "개네랑 할 때가 좋아. 나랑 할 때가 좋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으니 다음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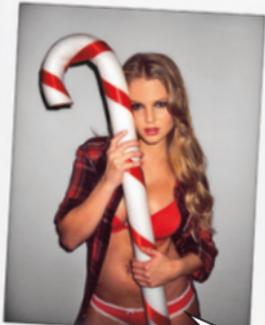
“내가 몇 번째야?”

그녀의 예상 답변

» “음, 오후가 세..번 때?”

그녀의 속마음

“아침,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신 안 반복지도 모르고 사실 안 세어봐서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른다 말이야. 어쩌지? 어쩌지? 음,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면 땀이 거 당근 들릴데고 진짜 처음이라서 처음이라고 해도 안 믿을 게 뻔해. 그리고 처음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보이잖아? 그냥 두 번째라고 할까? 아니야. 두 번째도 좀 없어보여. 그냥 적당히 세 번째라고 하자. 그렇게 경향이 많아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적당히 연애했을 것 같잖아?”



확 마 궁극을 주저해까?

“좋았어?”

그녀의 예상 답변

» “응, 좋아.”

그녀의 속마음

“재발 이 질문만은 하지 말아주면”

EDITOR SAYS:

저, 올 게 왔다. 여자들 모두를 광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질문이다. 좋아도 좋았다고 안 좋아도 좋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바로 그 질문 말이다. 남자들은 우

리가 이 질문에 무조건 “좋았어”라고 대답할 걸 이 미 알고 있는 것 같다. 왜..하면 이 질문은 으레 “좋았어?”,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 순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았냐는 질문에는 도대체 어떻게 답해야 하는 걸까. 개미 눈물만큼 좋았다고 솔직히 말해줘야 하는 걸까.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우리도 안다. 섹스가 끝난 뒤에 가장 궁금한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걸. 사실 우리도 당신이 얼마나 좋았는지 무지하게 궁금하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이 질문만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도 없다는 걸. 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말이라면 이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게 현명하겠지? ☹

“나 예뻐?” “응, 예뻐.”
“얼마나 예뻐?” “...”
이거나 저거나!



MOVIE TALK (광성이 동생 광태)

“동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남자가 안..잡이요? 평균적으로 세 번째 타이틀 때 같이 잔디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니까 아님..이게 근데 우리 친도 이런 아니거든~ 아니, 지금 우리가 평균 더 뛰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눈발하고 그래야 신난구 머리질할 수 있고 그래요.”

그녀의 반응: “애들..”



MOVIE TALK (연애의 목적)

“5초만 딱 5초만 볼고 있었음!”
“너 좋아 있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널 그냥 내버려둬지? 너 같이 맛있는 애들.”
“나 다른 조개 먹구 심은데”
오른 여자들의 공통 반응: “이런 상 쓰레기..”



후면 멀티 터치 UMD 슬롯은 이제 바이패스

업그레이드된 아날로그 스틱

3. 새로운 조작 체계를 만끽하라

PS VITA의 터치스크린과 모션 센서는 관객자의 말쑥한 오감을 만족시키진 못할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익숙해진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은 캐주얼 게임을 커 비하고, 후면 멀티 터치와 6축 센서는 2D 화면에서도 3D 게임을 즐기는 착각에 빠지게끔 만들 거다.

4. 쿼드코어 CPU, 미친 존재감의 그래픽 칩셋, 그리고 아물레드 액정

아이패드2가 듀얼코어에 만족하는 지금, PS VITA는 쿼드코어 CPU를 탑재했다(아수스의 트랜스모어 태블릿 신행이 쿼드코어 CPU(테트라코어)를 장착했지만 GPU의 차이가 남사벽이다). 여기에 파워 VR SG543MP4+ GPU는 초당 133,000,000개의 폴리곤을 화면에 뿌려준다. PS3급 게임이 가능한 이유도 그래서다. 여기에 아물레드 액정은 움직임의 표현은 물론이요, 응답성도 발군이라 모션 컨트롤도 게임 컨트롤도 문제없다.

5. 기존 게임의 다운로드드는 물론 3G 버전도!

PS VITA는 PSN으로 게임 다운로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PSP 허위 호환이 안 되는 건 정말 뻘신 같지만 UMD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임을 PSP VITA로 즐길 수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3G 버전도 출시되는데 국내 발매는 미지수다. 대형이 대안과 흥풍이 발매되는 3G 버전은 언록 버전이나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와이파이가 버전은 2월 11일에 정식 출시된다. 가격은 36만 8천원.

SPEC

CPU

쿼드코어 ARM 코어텍스 A9 프로세서
나사가 덮개 로켓을 쏠 때 쓴 컴퓨터는 듀얼코어급도 아니었다.

GPU

POWERVR SG543MP4+
《바우어 파이터》 초창기에 쓰인 폴리곤이 초당 300,000~500,000 수준이 있지 아냐...

REAR TOUCH PAD

멀티 터치 패드
앞뒤 모두 터치 가능한 진짜배기 멀티터치다.

CAMERA

전·후면 카메라 & 오케이 그레
이제 VITA도 셀카를 찍어지지

LOCATION

모션 센스, 자이로스코프
아슬픈 때문에 이젠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렸다.

BUTTONS

이것저것 슬더 버튼 등 버튼이 많긴 한데 어디 하나 빠졌을 건 없다는 게 신기하다.

SLOTS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전용 카드 슬롯, 메모리 카드 슬롯
기계가 아니라 메모리 꽂아서 쓴 필러도 그려나, 소니

SCREEN

5인치(16:9 OLED)
멀티터치 스크린
이름 가지고 영리한 정도 뽐을 뺐군.

BATTERY LIFE

4~6시간
PS3급 게임을 밖에서 이 정도만 즐길 수 있어도 남는 장사

PORTABLE WAR

스펙 안티 VS 스펙 덕후

포터블 기기의 소리 없는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 1ROUND

소니가 PS3급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며 자신 있게 내놓은 휴대용 게임기 PSP는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NDS에 시뮬하게 밀렸다. 7년 동안 7,000만 대를 판매했는데 그 게 무슨 소냐라고? NDS는 PSP의 2배인 1억 4천만 대를 판매했으니까. 정확히 더블 스코어였다고!



▶ 2ROUND

닌텐도는 올해 3월 7주에 고집했던 3D 기 술을 포터블 기기에 집결한 3DS를 내놓았다.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꽤나 신선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1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는데 그쳤다. 눈물의 따귀 세일을 덜 샀다는 PS3급 게임을 구현 가능한 과몰 스펙을 장착한 PSP VITA를 무기로 2라운드에서 승리하기 위해 출격했다.



▶ 결리는?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캐주얼 게임 이용자를 대거 빼앗긴 닌텐도와 달리 소니는 PS3에 대표도는 하드코어 게이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지는 유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VITA는 3DS를 제와한 모든 부분에서 3DS를 압도하는 성능을 자랑한다. 콘솔 게임에 보편화된 듀얼 아날로그 스틱을 채용함으로써 콘솔 게임에서 VITA로 이시하는 과정이 한결 용이한 점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닌텐도도 그 간의 고집을 꺾고 애플의 앱스토어에 마리오 포켓몬 시리즈를 투척한다면 이 비교는 순식간에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압도적인 닌텐도의 승리로 끝날 테니까.





BIG B MAXIM WANT THIS MIRRORLESS CAM

DSLR를 떨게 만들 카메라 오총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BY SHANE PHOTOGRAPHY ARC STUDIO STYLING 조미현 FILM 촬영인 MAKEUP 조영은 HAIR 유희진, 손영은 MODEL 김민정 ASSASSINE 조영현

언더웨어 상의 캣빈클라인 미니웨어
바지 에스제이 에스제이
구두 슈즈원

CAMERA



PANASONIC LUMIX GX1

사람들에게 미러리스 카메라의 위대함을 알려준 GF1의 후계자 GX1이 등장했다. 괴물 같은 성능으로 무장한 GX1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진정한 끝판왕이다. 일단 눈에 띄는 건 '학' 소리 나는 0.09초의 초고속 AF 스피드다. 연사 모드로 놓고 찍으면 초당 20장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아찔한 차림의 그녀가 빈틈을 보일 때 셔터를 누르면 어느새 사진으로 담겨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액정을 터치해 손쉽게 초점을 맞추는 건 물론이고,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 핀포인트 AF 기능을 적용하는 데도 문제없다. 16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와 자체 화상 처리 엔진(비즈니스 엔진 FHD)의 조합은 사진의 해상도를 실려주고 노이즈를 잡는 데 성공했다. 무슨 소리냐고? ISO(감도) 12800 상황에서도 뽕개지지 않은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동영상? 걱정 불어! 매라. 풀 HD(1920X1080) 영상 촬영과 우리가 사랑해 마지 않는 풀비 스테레오 사운드도 지원한다. 여기에 훌륭한 기본 렌즈(GX 14-42mm)는 광학식 손 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해 망원 촬영과 동영상 촬영 시 흔들림을 방지하며, 최전선 중이 아니라 전통식 줌이라 크기와 무게가 대폭 줄었다. 마지막으로 루믹스 시리즈 최초로 수평수직계를 탑재해 사진 촬영 시 수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솔직히 더 필요한 게 있을까?

가격 1,049,000원(X렌즈 키트) 문의 www.panasonic.co.kr 1588-8452

- ▶ **좋아요**
최고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는 사람이라면!
- ▶ **나빠요**
곧 죽어도 DSLR만 카메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MAXIM SAYS
GF1에서 느꼈던 감동을 GX1에서 다시 한 번!

화끈한
촬영장 엿보기



언더웨어 케이스 언더웨어



SAMSUNG NX200

NX200은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2,000만 화소를 돌파한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카메라 마니아 사이에서 '렌즈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렌즈 라인업을 자랑한 삼성 카메라에 획기적인 보디 성능의 NX200이 추가됐으니 호랑이 날개를 단 격이다. DSLR의 부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스러운 NX200의 사진 퀄리티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서브 카메라의 자리에서 비로소 해방됐음을 의미한다. 전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바로 촬영이 가능하며, 고속 AF 덕분에 초당 7연사도 문제없다. 메모리카드의 용량만 밝혀준다면 RAW(원본 파일) 파일 촬영도 버거워하지 않는다. ISO 12,800의 고감도 상황에서 노이즈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및 야외 촬영에서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다. 풀 HD(1920x1080) 동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3인치のア울레드 패널로 결과물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초광각 16mm 뎀케이크 렌즈, 60mm 매크로 렌즈, 18~200mm 슈퍼 줌렌즈, 85mm 인물 촬영용 렌즈의 출시로 교환 렌즈 라인업도 보강했다. DSLR 보고 있나? 가격 995,000원(기본 패키지) 문의 www.samsung.com/sec-1588-3366

USEFUL TIPS FOR CAMERA USER

떨어두면 피가 되고 실이 되는 틱이다. 눈을 꼭바로 뜨고 읽어볼 것!

TIP 1. 렌즈 손 떨림 방지가 좋은 이유

동영상 촬영할 때 흔들림을 많이 잡아준다.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는 대부분 풀 HD급 동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렌즈 손 떨림 방지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찍은 동영상은 마치 블러코스터를 탄 듯 흔들리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보디의 움직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망원렌즈를 사용할 때 렌즈 손 떨림 방지는 빛을 말한다. 손 떨림 방지가 반셔터 상태에서 적용되는 건 덤이다.

TIP 2. 메모리 카드는 파괴하라!

카메라 충전 거점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메모리 카드를 넣어도 상태로 판매하는 거다. 당신이 스님처럼 간단한 실을 실아 메모리카드에 담긴 시간이 자국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 하지만 그 이후 신나게 찍어줄을 한 사진이 나영상을 한 번이라도 촬영했다면 그날로 당신 인생은 막장극장으로 치닫는다. 포맷은 했으니 안전하다고? 이미지가 리커버리되는 포도 리커버! 프로그램 활용하면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파일(심지어 RAW 파일까지) 대부분 복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복구한 개인이 부족한 사진 파일이 PDP 사이트에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자신의 소중한 모습을 찍은 메모리카드라면 그냥 안고 죽든지 물리적인 파괴해라. 돈 몇 푼 벌겠다고 중고 거래를 했다가 당신 인생을 증질 수 있다. 물론 카메라 간수도 잘해야겠다. 율리우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TIP 3. 스마트폰 vs. 카메라(DSLR)는 제와 스마트폰이 좋아요

▶ **좋아요**
DSLR를 대신할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는 사람이러면
▶ **나빠요**
와장 부파인더가 벗어난다면
필요한 사람이러면

우리는 어디서든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언제든 공유할 수 있지. 카메라는 번거로운 분야야! 아이폰 4S 정도면 똑딱이 카메라 따위는 쉽게 밀어버릴 수 있다고? 오히려 스마트폰 사진 촬영용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편을 먹은 지 오래야.

카메라가 좋아요

모토로라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카메라의 화소 수가 높다고 퀄리티 있는 사진 나온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물을 촬영할 때 zoom 당겨봐라. 제대로 된 광학 zoom 없이는 심정지 당도밖에 못 찍는 거다.

MAXIM SAYS

렌즈의 심장, 날개를 달아 줄 보디를 얹다.



**NIKON 1
V1**

DSLR에 전념하던 니콘이 미러리스 카메라에 진출했다. V1은 니콘빠가 아니라도 이름을 보면 다른 카메라를 지르려던 사람도 마음이 확할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이 일품이다. 1,010만 화소의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채택했고, 작은 크기에 맞는 전용 마운트와 렌즈를 사용한다. 별도의 어댑터만 있으면 니콘 DSLR 렌즈도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빠른 AF와 세계 최대 73 포커스 포인트가 인상적이다. 풀 HD(1920x1080) 영상 촬영도 지원하지만 촬영 시간이 20분 정도인 건 다소 아쉽다. 니콘 카메라 특유의 색감을 좋아하는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르도록!
 가격 1,200,000원대
 문의 www.nikonshop.co.kr
 080-800-6600

▶ 좋아요

니콘 렌즈와 함께할 미러리스 카메라를 찾는 사람이라면

▶ 나빠요

사진 못지않게 동영상 촬영이 잦은 사람이라면

MAXIM SAYS

니콘답지 않은 깜찍함에 놀라고, 니콘다운 성능에 또 한 번 놀라고!

티셔츠, 지프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언더웨어 가터벨트 스타
킹 모두 어울린
구두 슈즈현



FUJIFILM X10

X100의 디자인이 탐났던 이라면 X10을 덜컥 집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가격은 더 저렴해졌고, 사이즈 역시 슬림해져 무게는 330g에 불과하다. 어차피 레트로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하면서 가격 대비 성능비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필름 카메라의 느낌이 물씬 나는 X10의 외관과 광학식 뷰파인더는 당시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 거다. 이놈으로 찍었을 때 무득 건질 사진이 많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상위 모델인 X100에 비하면 다소 손색이 있지만 하이엔드 카메라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해서이니 말이다.

가격 749,000원

문의 www.fujifilmkorea.co.kr
02-538-8660

▶ 좋아요

디자인이 좋은 제품은 일단 사고 봐야 하는 사람이라겐

▶ 나빠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겐

MAXIM SAYS

가격 때문에 X100을 포기했다면, 절반 가격의 X100이 낫다.

SONY NEX-5N

NEX-5의 후속 모델로 AF 속도가 전작에 비해 2배 빨라져 사진을 찍을 때의 응답감이 많이 사라졌다. NEX 시리즈의 장점인 이중교배의 매력은 여전히 새롭게 추가된 LA-EA2 렌즈 어댑터는 풀타임 연속 AF 기능과 함께 A-mount 렌즈의 봉인을 해제했다. 불편한 UI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LCD 터치 패널과 컨트롤 휠로 노출, 사진 효과 등 기능 조절이 가능한 점은 나쁘지 않다. 동영상 성능은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도 최강급. 풀HD(1920x1080) 영상 촬영 물론이고 전작에서 문제로 지적된 24P 모드까지 지원한다. NEX 시리즈가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다. 가격 948,000원(표준준렌즈 키트)

문의 www.sony.co.kr 1588-0911

▶ 좋아요

NEX 시리즈에 한 번이라도 속했던 사람이라겐

▶ 나빠요

UI가 불편한 제품은 곧 죽어도 못 쓰는 사람이라겐

MAXIM SAYS

구관이 명관이고, 구관이 업그레이드 버전은 더욱 명관이라지?

상의 지프
언더웨어
마루 미니웨어



"I ♥ ME"

신념 다짐 지름 리스트

자, 새해가 밝았다. 매년 금봉어처럼 까먹는 주제에 또 세우게 될 신념 계획, 거기에 꼭 필요한 (필요하다고 자기최면을 거는) '나를 위한 아이템' 리스트를 뽑았다. by **유희민**

BETTER
BODY
2012



자극지긋한 금연 다짐

전티 eGo-C 전자 담배

작심삼일의 대명사 '금연'. 자네, 벌써 몇 번째인가? 전자담배는 전기로 니코틴 액체 카트리지를 가열해 실제 담배 연기와 비슷한 수증기를 흡입하게 해주는 일종의 전자식 담배 에뮬레이터다. 목 넘김, 연기 뿜기 등이 가능한 것이 짝이나 패치 같은 금연보조제와 다른 점. 전티 eGo-C는 에드를 분리할 수 있어서 청소하기 쉽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 에드만 빼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항 온도미러저 에드를 이용하면 전자 담배 흡입 시 느껴지는 타격감을 조절해 맛 표현력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다. 카트리지를 교환으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 럭셔리하게 잘빠진 매끈한 디자인도 멋스럽다.

문의 전티 코리아 02-333-5110

1. 담배를 태울 때 나오는 아플 모를 화학물질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단 아플 되기 힘들 것 들은 다 꺼지라!
2. 약한 냄새가 없다. 여전히나 학주가 손가락 냄새 맡아도 모른다지만 어린 것들이 담배 꼬 나열면 못써, 쏘냐!
3. 없어진 라이터를 찾고 주연 사람들을 의심 하는 피해망상에서 탈출한다.
4. 추운가 아연나 베타나 구석에 나가 푸르다고 달달 뽕뽕서 담배 피우지 않아도 된다. 서 러했지? 뭘.
5. 풍조가 들어간 음류수나 커피를 들이걸 일이다. 재떨이를 청소하다 구역질하는 일도 이제 그만(자기가 피운 건데도 왜 이리 싫어).
6. 끔찍한 새벽에 담배 사라 나갔다가 비명횡사 당할 위험이 준다.

전자담배 이젠 좋네 >



게임으로 근육 재배

Wii + 스카이워드 소드

이런 사람 꼭 있다. '엄마, 공부해야 해요'하고 컴퓨터를 쏘아내고, '엄마, 학습용 DVD 플레이어가 필요해요'하고 플레이어를 알아내는 놈. 하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해본 사람은 다 안다(엄마, 미안). 이번엔 다이어트를 핑계로 닌텐도 Wii를 득템 해보자. 워핏처럼 다이어트 소프트웨어도 좀자인 이젠 동등 재미가 없으니 한두 번 하고 안 하게 된다.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같은 재미있는 게임으로 플레이타임을 늘리는 게 낫겠다. 워모트를 너무 한 쪽으로만 휘두르다 보면 팔근만 과도하게 발달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 가격 (젤다의 전설) 워모트 포함 한정판 68,000원 + 닌텐도 Wii 콘솔 22만 원
문의 한국 닌텐도080-070-9900

MAXIM의
새해 계획 공개!



에디터 김성환:

새해 다짐 하물심 어찌쁜 보살님을 내리주소시요. 다시금 속세로 돌아가고 싶나이다.

내가 스님이야? 배려제



편집장 이명배:

새해 워시 리스트 뒤달 안 해도 있어서 꼬 박꼬꼬 기사를 내는 인공지능 로봇 에디터 에디터들의 소환: 매일 저녁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서둘러 퇴근 하시는 편집장님의 모습



출퇴근 최강 전설

킴코 G5

라이더라면 누구나 멋진 아메리칸이나 레이싱 신수가 된 듯한 슈퍼 스포츠를 꿈꾼다. 하지만 당장 도로에 나가 보면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 125cc의 소형 바이크다. 대체 왜? 킴코 G5를 보면 그 해답이 보인다. 1리터의 휘발유로 40km리는 승용차로는 꿈도 못 꿀 거리를 달릴 수 있고 보행료와 세금도 저렴하다. 그것뿐이냐? 작은 차체에 과분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지닌 엔진으로 동급 최고의 달리기 성능을 자랑한다. 차량들을 반 박자 앞도하는 경쾌한 스타트 성능과 막히는 차들 사이를 여유롭게 가로지르는 콤팩트한 차체로 당신을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빠른 남자로 만들어준다. 지각? 그게 뭐임? 먹는 거임?

가격 3,190,000원 문의 KYMCO 1600-6430

소맥 마는 장인

포스아트 소맥잔

회식도 업무의 연행. 당상을 회식 자리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해줄 아이템이 있다.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는데 누가 맞겠. 뭐가 더 맛있네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 소맥 비율의 종결자가 왔다. 2012년 회식 자리에서는 절대 개가 되지 않겠다는 사람은 28로, 오늘 밤 좀 놀아야겠어 하는 사람은 46. 저 부장을 댈 정신으로 까진 어렵지 하는 사람은 55 비율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아이디어 글라스다. 호기롭게 대충 말하다가 결국 네발로 기어가는 진화를 거스르는 대참사를 방지하러! 가격 1,700원 문의 포스아트 1566-3595



퀴퀴한

총각 냄새 안녕 LG 트루온 스타일러

혼자 사는 남자에게 세탁은 참 귀찮은 일. 어찌 세탁한 옷이라 깨끗한 것 같은데 미세하게 회식자리에서 뵈고기 냄새나 담배냄새 때문에 또 빨기도 그렇고(내일) 또 달릴 거잖아. 그냥 입기는 찜찜한 때가 많다. 그럴 때 트루온 스타일러에 걸어 두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냄새 제거는 물론 구김 제거, 스팀 세공 살균, 건조까지 한방에 해결해 준다. 세탁과 드라이 크리닝 향수를 크게 줄여 옷감 손상도 막고 세탁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된다.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부담되지만 뭐 그게 대수야? 부지런 안 떨어도 깔끔한 훈남이 될 수 있다는데

가격 140~200만 원 대문의 LG전자 1544-7777

이벤트

에디터 고경하:
올해의 도전 과제라면 물 맞추기

요리도 현직이 가능합니다. 앙상블이 마세요.

디자이너 서윤정:
다시 도전 아닐 때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를 목표로 삼고 동생이랑 계획을 세우다가 싸운 적이 있어요.

아쉬워 마세요. 아직 싸움 많은답니다.

디자이너 전은강:
새해 목표! 매년 거절 먹기

이런 거?

TIME IS OVER

31,536,000번 초침이 짹짹대더니 벌써 새해, 낯 놓고 있다간 시간이라는 보물을 빼앗기기 쉽다. 새롭게 태어난 시계가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거다.

BY 곽경희 PHOTOGRAPHS ARC STUDIO

COOPERATIONS 타임포스(www.milimwatch.co.kr 02-757-9866)

세이브(www.seikokorea.co.kr 02-511-3182)

잉거솔(www.ingersoll.kr 02-3397-7100)

대니시디자인(www.danishdesign.co.kr 02-3397-7100)



TIME FORCE

CRISTIANO RONALDO COLLECTIONS_TF3329M14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는 시계를 만들 때도 한결같다. 목까지 차오르는 물에서 겨우 허우적거리는 당신이 10기압을 체험할 일은 없겠지만, 거기까지 내려가도 시계에 물 먹일 일은 없단다.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검정색인 몸통이에서 아우라를 마구 뿜어내는 요놈은 고무 밴드라서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맘에 걸지 않는다. 아직도 시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호날두의 안목을 믿고 따라 가는 거다.

300,000원대



SEIKO

SPORTURA SNAE75J

FC바르셀로나 팬이라면 진작부터 군침을 뚝고 있을 터. 메시지를 비롯해 모든 선수의 손목에 하나씩 채워진 이 시계를 당신의 손목에도 채워주자. 1071급 방수는 기본이고, 휴집에 강한 사파이어 글라스가 격한 몸싸움을 하는 축구 선수의 야성미를 지켜준다. FC바르셀로나 스타 선수의 사인이 담긴 기념 라플렛은 스페셜 선물. 시계 뒷면에 엠블럼과 함께 각 인된 문구 'Mes pue un club(클럽 그 이상의)'을 직접 확인해보자.

840,000원



INGERSOLL

NASHVILLE 1815SL

옛날 미국 영화 속 주인공은 다 가지고 있던, 스트랩이 없는 시계를 기억하는가? 양키 시계 또는 달리 시계라고 불리는 1달러짜리 포켓 시계를 만든 브랜드가 바로 잉거솔이다. 마이크 웨인, 토머스 에디슨 등이 애용했던 바로 그 시계에 클래식한 감성을 불어넣었다. 최고 품질을 갖춘 기계식으로 고급스러운 가죽 스트랩의 원터치 버클이 간편하다. 598,000원

DANISH DESIGN

LAYERED IQ22Q917

북유럽 시계 브랜드로, 독특한 인덱스가 포인트다. 웬만한 대형 시계를 걸쳐도 크기가 상에 안 찻다면 이 시계가 답. 미네랄 강화 글라스에 10기압 방수 기능은 기본이고, 몸집이 큰 데도 원터치 버튼이라 간편하게 다룰 수 있다. 3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용두)이 손등을 찔러대는 게 싫은 사람이라면 9시 방향에 자리잡은 요놈이 빈가를 거다. 뉴욕현대미술관 MoMA(Museum of Modern Art)에서도 전시 및 판매하는 제품이니만큼 당신의 고급격 취향을 만족시켜줄 것이다. 440,000원



WATCH OF THE MONTH



130주년 기념 모델.

SEIKO SPECIAL EDITION SR132J 출시

세이코가 탄생 130주년을 기념해 '세이코 파이브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SRP32J 모델은 핑크 골드 베젤에 어두운 회색 케이스와 밴드가 조화를 이루어 달빛 아래 만개한 꽃을 연상시킨다. 세이코의 최신 기계식 무브먼트인 '4R' 계열 무브먼트는 41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오토매틱 와인딩과 메뉴얼 와인딩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오일과 낱파 표시를 지원한다. 또 시스루 케이스 백을 채택해 시계의 장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48만 원 문의 02-511-3182 www.seikokorea.co.kr



극한 도전을 위한 시계, 루미노스 OD 3040 시리즈

미 해군과 공군의 실제 작전에서 사용하는 워치 브랜드 루미노스, 루미노스 OD 3040 시리즈는 군 공에서도 최강에인 네이브 실의 아간 작전 수행을 통해 진가를 인정받은 제품이다. 직경 44mm의 견고한 PC 파이버글라스 케이스를 코팅 처리한 강인한 외관에 스위스 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장한다. 또 그린 컬러 나트 스트렘아미만금 착용하기 쉬우며 200m 방수 기능에 발광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자기 발광형 아광 기능을 적용. 밝은 빛이 10년간 유지된다. 아간 산행을 포함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유용한 OD 3040 시리즈로 겨울 산을 정복하라!

가격 48만 원 문의 02-757-9866(미림시계) www.luminowatch.co.kr



BRUNO SÖHNE
UHRENATELIER
GLASHÜTTE/SA



독일 럭셔리 워치, 브루노 쇠르 글라슈테 국내 출시

최고의 시계 브랜드 예가인 글라슈테 자항의 고급 워치 브랜드인 글라슈테

(GLASHÜTTE)를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1862년 설립된 브루노 쇠르 글라슈테는 진정한 독일 전통 시계 디자인의 진수와 높은 품질을 느낄 수 있는 독일 브랜드다. 스위스 무브먼트를 브루노 쇠르 글라슈테의 자체 기술로 수정하고 다듬었으며, 스파이더 크리스탈을 사용해 독일 전통의 디자인과 품질을 자랑한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의 자랑을 국내에서 만나보자.

문의 02-3397-7100 (가노코퍼레이션)



플라스미스 워치의 감성 디자인 라인 THE CITY

플라스미스 워치에서 독특하고 트렌디한 감성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THE CITY 컬렉션을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THE CITY는 슬림한 디자인과 불룩한 유리가 미묘한 매력에 미치는 제품으로 레더 스트랩의 사이드와 뒷면의 프란스 오보 웨일스 체크 원단, 스트랩 앞부분에 두 마디씩 새겨진 스티치 장식이 눈에 띈다. 또 다이얼 뒷면에는 런던의 트라팔가 스퀘어를 드로잉해 플라스미스만의 워치를 엮을 수 있다. 디자인이 독특한 플라스미스 워치 THE CITY는 2012년 당시의 슌독을 돋보이게 해줄 마스트 허브 아이템이 될 것이다.

가격 558,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leryclock.co.kr



카시오의 에디피스 시계로 커뮤 룩을 완성하라!

다가오는 새해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카시오 에디피스에서 연인들을 위한 커뮤 시계를 출시했다. 반박이는 스와로브스키로 장식한 이 커뮤 시계는 인기 있는 스퀘어 케이스 디자인에 스테인리스스틸 밴드를 채택해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했다. 짐작이 원치리 3단 버클 밴드로 착용이 편리하고 100m 방수 기능은 물론, 스포 워치 기능까지 더해 편의성을 높였다. 커뮤 스포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안성맞춤이다.

가격 남성용 24만 원, 여성용 20만 원 문의 02-3143-0718

6개월 정기구독 정가 ~~33,600원~~ ▶ **할인가 30,600원**

3만원 할인
1000회 적립

12개월 정기구독 정가 ~~67,200원~~ ▶ **할인가 60,200원**

7만원 할인
2000회 적립

24개월 정기구독 정가 ~~134,400원~~ ▶ **할인가 119,400원**

15만원 할인
4000회 적립

36개월 정기구독 정가 ~~201,600원~~ ▶ **할인가 171,600원**

3만원 할인
6000회 적립

48개월 정기구독 정가 ~~268,800원~~ ▶ **할인가 218,800원**

5만원 할인
8000회 적립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바쁘다, 바빠!



사은품 확인
하러 가!



시세이도 우노 화이바 네오왁스 시리즈



슈가포인트 링딩통 양면베니



클레어스 달팽이 세안제 무미카



소유 스킨 수수 남성 청결제
뜨플린 클렌저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맥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회~1년)

너도 이제
MAXIM 패밀리아!





HISTORY OF UFC #2

UFC가 최고의 격투기 대회가 된 건 시대를 뛰어넘는 경기력을 선보인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코리안 좀비 장한성을 비롯해 수많은 영건은 새로운 전설을 꿈꾸며 UFC를 노크하고 있다. 위대한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준비는 됐나?

BY 이영주

깊이 있는 글로 유명한 내공 100년의 격투기 전문 칼럼니스트. 당신이 격투기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걸?

지난 12월호에서는 무술의 유래, 누가 제일 강한지를 가리기 위한 각 유파 간의 대항전, 이것이 자유로운 씬(바)의 나라 브라질에서 꽃을 피운 발리투두, 이때 발군의 활약을 펼친 그레이시 가문에 대해 소개했다. UFC의 초창기에는 그레이시 가문의 유술(주짓수)만 마스터해도 승승장구했지만 선수들은 차츰 적응해나갔고, 이에 따라 스탠딩, 그라운드 기술 모두를 섭렵하지 않고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이 둘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가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피도르

하이브리드 파이터의 약점은 바로!

하이브리드 파이터의 대표 주자 피도르는 타격은 물론 그라운드 기술 역시 무섭도록 화려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런 바로 트랜지션(레슬링)이었다. 하이브리드 이라든, 마이크 콜먼, 케빈 랜들처럼 뛰어난 힘과 레슬링 실력을 갖춘 선수를 상대로 피도르가 의외의 위기를 겪으며 고전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스퐁에 가장 근접한 사나이' 라는 평가를 받는 앤드슨 실바 역시 타격이 주로 부각되지만 긴 사지를 이용한 가드플레이(상대를 위에 놓고 아래에서 방어하며 컨트롤하는 방법)와 조르지가 일품인 초특급 하이브리드 파이터다. 스탠딩에서는 무적이며 그라운드에서도 상대를 항복시키는 것도 쉬운 쪽 먹기다. 하지만 실바의 약점 역시 트랜지션에 있었다. 실제로 그는 강력한 레슬러인 찰젤 쇼넌을 만나 패배 일부 직전까지 물린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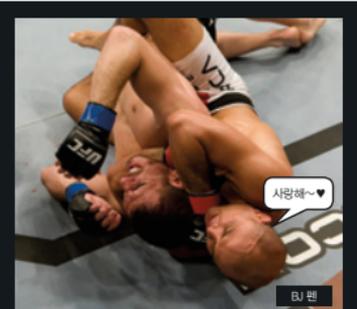


유술의 천재 BJ 펜

유술(주짓수)의 승급 체계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하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승급 따윈 없다. 그 요건이란 것도 까다롭다. 대회에 출전하는 건 물론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체육관에서 적당히 수련해서는 절대로 원하는 색의 벨트를 얻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권도 도장을 1~2년 다니며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검은 띠를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유술은 10년 정도 열정과 노력을 때려박아야 겨우 아성을 한 번 뚫어낸 만한 레벨 아이템이다. 이런 블랙 벨트를 불과 3년 6개월 만에 득템한 천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유술의 천재 BJ 펜이다.

UFC는 테이크다운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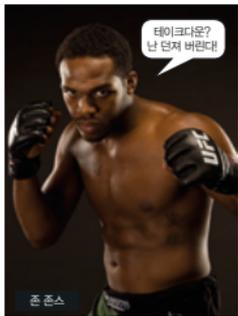
최근 UFC는 테이크다운(상대를 넘어뜨리는 행위)에 평장 후한 점수를 준다. 타격에 맞아 쓰러지는 녹다운과 테이크다운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 녹다운보다 테이크다운의 발생 비율이 훨씬 높으니 테이크다운을 통한 점수 장악전은 UFC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아이템이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UFC를 '레슬러의 파라다이스' 라고 비꼬고 있지만 풀이 나 채점 방식이란 것 역시 일종의 환경일 뿐이다. 선수라는 유기체들은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한 번의 진화를 이미 이룩했다.



BJ 펜

천재, 옥타곤의 파카스로 거듭나다

펜은 천재 유술가로서 종합격투기에 뛰어났지만 천재의 재능이 유술에만 국한될 리 없었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타격 능력도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다. 심오한 유술에 피보라를 소환하는 막강한 타격까지 갖춘 하이브리드형 파이터로 거듭났지만, 펜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트랜지션에서조차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넘겨버리지만 누구에게도 테이크다운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선수. 이것이 BJ 펜이 다른 하이브리드 파이터와 구분되는 점이다. 입체적인 경기 구조를 최초로 선보인 그는 옥타곤으로 감명받은 진정한 입체파 선수였다.



존 존스

또 한 명의 입체파 선수 G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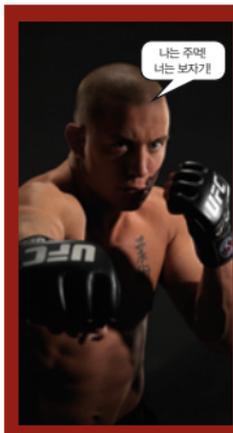
UFC에서 두 체급을 석권한 인물은 BJ 펜과 랜디 쿠퍼이다. BJ 펜의 첫날은 라이트급(-70kg)이지만 그의 시선은 늘 웰터급(-77kg)에 향해 있었다. 상위 체급에 대한 펜의 끝없는 열망을 지닌 선수는 바로 조르주 생피에르다. 현 UFC 웰터급 챔피언이자 P4P рейтинг 2위에 빛나는 생피에르 역시 입체적인 격투 능력을 확보한 선수. 펜은 천재지만 체력이 약했고 심리적인 기록이 약했다. 그런데 생피에르는 천재이자 노련한 대다수보다 더 무뎠다. GSP는 캐나다 올림피크 레슬링 팀의 훈련에 참가하고, 파워아우의 트레이닝인 프레드 로치의 가르침을 얻고, 종합격투기 최고의 지도자 그레 잭슨의 지도까지 받고 있다.

랜디 쿠퍼





GSP VS BJ펜



퍼펙트가이 생피에르

생피에르는 복서의 잭과 가리테 맨의 킥을 보유한 체급 내 최강 트랜지션(레슬러)이다. 그라운드에서도 파운딩 능력이 훌륭하고 서브미션(조르기, 꺾기) 구사도 능숙하다. 빠른 스피드에 힘이 좋고 체력도 뛰어나다. 심지어 지능이 높고 신중하기까지 해서 생피에르를 상대로 득점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9연승 중이며 웰터급 타이틀 6차 방어에도 성공했다. 이때까지 무려 33라운드 연속으로 우위를 점했고, 침수를 빚자 루로 쓸어 담았다(어쉽게도 제이크 윌츠친 4라운드에서 이 기록은 종료된다). 복싱에 비해 연습 기록과 방어 기록이 소박해 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9경기 33라운드 165분 동안 상대에게 단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어떤 종목과 비교해도 자랑스러운 만큼 놀라운 기록이다.

GSP는 9경기 33라운드 165분 동안 상대에게 단 한 라운드도 내주지 않았다

GSP의 유압한 약점

GSP랑 헛갈리는 가?



굳이 약점을 지적하자면 그런 바로 결정력이다.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안정적인 우세를 지키며 침수를 때내지만 그만큼 판정승이 많아 경기가 다소 지루하다. 실력 면에서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다만 관객의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키는 인터태이머로서 능력이 다소 아쉽다는 예가다.

GSP의 미친 연습량

말만 들어도 화장실에서 세 번 연속 구토를 하고 실신할 것 같아요.

복싱 레슬링 유도의 공통점은 초인적인 트레이닝을 견뎌야 세계를 노려볼 수 있던 거다. 세 가지 종목 중 어느 쪽이 더 우위를 지는 일 수 없다. 분명한 건 일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운동량을 소화하는 운동이란 사실이 다. 그런데 생피에르는 종합격투기 훈련을 기본으로 깔고, 올림픽 레슬링 팀과 어울리며, 세계 챔피언급 복서의 스키타까지 소화한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나? 포켓같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구토하기에 충분한 운동량이다.



“
오직 노력하는 천재만이 있을 뿐이다
”



새롭게 등장한 천재 존 존스

2008년 종합격투기에는 새로운 천재 존 존스가 등장했다. 라이트헤비급(63kg급)인 그는 193cm의 키에 앤드리스 살바와 비슷한 체격을 가졌다. UFC 선수 중 가장 팔이 길며, 압도적인 반사 능력과 스피드를 자랑한다. 그림 타격 전문 선수냐? 존스의 주 특기는 레슬링, 즉 트랜지션이다. 그는 상대와 맞붙은 상태에서 상대의 힘이 흐르는 방향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다. 상대의 혹은 상황에서 나온 힘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형이상학적 방법(유두의)을 팔기 위하는 최정 총재가 칭찬한 치력을 1997년생 울베 조세에 불과한 존스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의 기술 중 백미는 던지기다. 프로레슬링에서 두 선수 합을 맞춰야 나올 만한 화려한 던지기다 실전에서 마구 터져나온다.

링 위의 미친 존재감

존스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선수냐 하면 라이트헤비급에서 최강의 스트라킹 스페셜리스트라 할 수 있는 마우리시우 '쇼건' 후야를 타격으로 무너뜨렸고, 주먹 하나로 한때 UFC 라이트헤비급을 평행한 퀸트 '렘페이저' 잭슨을 스탠딩에서 노획했다. 링거에서 터져나오는 강력한 킥과 시우스프와 오스독스 사이를 현란하게 오가는 존스는 그라운드에서도 미친 듯이 강하다. 긴 팔을 이용한 팔꿈치 피우딩과 고과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변칙 초크기로 수많은 상대를 그라운드에서 잠재웠다. 현재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인 그는 14승 1패를 기록 중인데 1패의 내용은 다 이긴 경기를 고의로 보기 힘든 반칙으로 합당한 것이었다. 그와 경기를 펼치려던 선수 중 경기 종료까지 버티는 선수는 고작 2명에 불과하다. UFC에서 "존스가 말로 종합격투기의 미래" 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만약 이대로 라이트헤비급에서 순항한다면 몇 년 후쯤 헤비급에서 그의 얼굴을 보는 건 시간문제일 셈이다.

“
기술?
유틸리티에서
배웠지
”



고전 파이터의 무시 못할 한 방

UFC 대표되는 종합격투기의 발전상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입체파 선수가 아니면 UFC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다. 여전히 수많은 선수는 자신의 철학대로 묵묵히 전진 중이다. 2011년 11월 13일 UFC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주니어 도스 산토스가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를 1라운드 KO로 꺾고 벨트를 브라질로 가져갔다. 산토스는 공격 루트가 편향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라운드 기술을 선보인 적도 없다. 그라운드가 아니라 서서 싸우기를 원하는 그는 트랜지션을 스스로 걸지 않으며 트랜지션 방어에만 유익할 뿐이다. 2005년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던 후 4차 방어에 성공했던 '아이스맨' 척 리델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다. 공교롭게도 케인 벨라스케즈 역시 랜디 쿠퍼어의 확장형으로 볼 수 있는데, 쿠퍼어가 그랬듯 벨라스케즈도 상대의 강력한 라이트 오버핸드를 정통으로 맞고 산화했다. 하이브리드와 입체파 파이터가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 11월의 UFC 대회에서도 볼 수 있듯 자신의 원류를 지켜나가는 고전 파이터 역시 위대한 건 마찬가지다. 그들의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빠~
풀어줘~



UFC TRIVIA QUIZ

UFC 역력 TEST

풀지 말고 풀어서 플러도 테이크다운 하진 않을 테니.

1 UFC의 약자는?

- A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 B Ultimate Fighting Competition
- C Ultimate Fighting Challenge

2 UFC는 브라질 발리투투의 영향을 받았다

- A 당연하지 B 그럴 리가

3 UFC 회화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 A 1989년 B 1982년
- C 1993년 D 1997년

4 UFC 본부가 위치한 지역은?

- A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 B 뉴저지 호보켄
- C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 D 일리노이 시카고

5 UFC를 소유한 회사의 이름은?

- A 화이트 B 베틀라
- C 주파 D 프라이트

6 2009년 UFC 조커의 링 먹은 사람은?

- A 로리언 그레이시
- B 내타 화이트
- C 아드 데이비
- D 로버트 메이모리츠

7 1993년 UFC 1 대회를 낸 돈 본사의 링의 수는?

- A 2544명 B 86,592명
- C 1980,20명

8 '빙몸 마셜 아츠'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는?

- A 제프 블러드너 B 랜 심록
- C 데아나 화이트 D 프랭크 심록

9 UFC 토너먼트 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차지한 선수는?

- A 랜 심록 B 로이스 그레이시
- C 아드 짐머슨 D 잭 바틴

8	9	8	3
4	8	5	2
4	4	4	1
7	8		점수

ZOO | JUNG CHAN SUNG



천하의 이효리도 남자에게 작업을 걸어 성공하는 데 10분은 필요했다. 하지만 고리안 증비 정찬성이 UFC를 접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초! 승자가 모든 걸 갖는 UFC가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BY 김상현 PHOTOGRAPH ARC STUDIO FILM 송훈민 MAKEUP 곽영은 ASSISTANT 조서현

코리안 증비의 MAXIM 입상을 환영한다. 별명은 마음에 드나?

파이트에게 증비만큼 멋진 별명은 없다. 경구도 남기고, 맞아도 쓰러지지 않은 채 앞으로 전진해잡아. '코리안'이란 단어도 붙어 있으니 금상첨화다.

그림 제일 좋아하는 증비물은 뭐가?

증비가 나오는 건 모두 좋아한다. (사색의 자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워킹캣)에도 꼭 빠져 있다.

이번 UFC 140에서 마크 호미닉을 상대로 최단 시간(7초) KO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을까?

"우와. 우와!"라는 말부터 튀어나왔다. 시험하면서 이렇게 흥분해보진 처음이었다. 케이지에도 처음 올라가봤다. 이번 시험을 두고 시험을 대부분이 흥분 거만 예상만 늘어났는데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한 셈이다. 정말 좋았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날아온 호미닉의 후속 피하고, 스트레이트를 연달아 적용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단순순도를 반복하면 그것에는 도가 트잖아? 마찬가지로. 매일 5시간씩 죽어라 훈련하면 당년도 이렇게 될 수 있대(웃음).

팬치 마라. 아무튼 케냐나 출편의 이유가 엄청났는데 전혀 미용도 하지 않더라. 솔직히 이례는 이유가 들리는 게 더 좋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환호성이 나오면 오히려 들뜨고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우리보다 선수치고 승리 세리머니가 꽤 지극스럽다.

세리머니가 멋진 사람은 경험이 많은 선수다. 이기고 나서 여유가 있단 거지. 나는 아직 시험에 이기면 경험이 없어 세리머니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처럼 마우스피

스를 던지는 걸 넘어서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싶다. 총리라도 추고 싶지만 몸차라서 쉽지 않다(웃음).

경기가 7초 만에 끝났으니 한 경기를 더 뛰어도 되겠다며 입방정을 떠는 사람도 있다.

경기는 일부에 불과하다. 체중 감량(1마) 말로 진짜 지옥이다. 시험을 위해 10kg 정도 감량하면 몸이 맛이 간다. 경기가 주로 야외에서 열리니 시차도 적응해야 한다. 7초 만에 이겼다고 바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건 격투기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그렇게 열심히 체중을 줄이고 나면 개체량 측정할 때 몸무게 줄기까지겠다.

이제는 체대로 서 있기도 힘들다. 이와 관련해 '내 저울과 개체량을 재는 저울이 다르진 않겠지?'라고 걱정할 정도니 말 다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웃 오브 나이트' 보너스까지 합쳐 삼달만 1억 원 가까이 된다. 1달만 1,400만 원 정도 번 셈이다. 대신 고생은 7초만 한 게 아니잖아? 이번 경기를 위해 몇 달간 수도승처럼 살았다. 몸이 나쁜 속. 담배 등을 가까이해본 적이 없다. 면 종류는 입에도 안 댔다. 물론 경기가 끝난 지금은 3일 연속 피자 면을 먹고 있지만 말이다(웃음).

삼달 중에 슬럼프도 얼마 정도 올랐던가? 전력을 돌리다면서 인사를 할 거라고 들었다.

500만 원 정도 생각 중이다. 여기저기 신세 진 게 많아서 갈 곳도 많대(웃음).

UFC는 단성을 기록의 시나리오라고 부른다. 올웨의 서브시나, 3개의 보너스 머니를 챙긴 남자. 이번에는 최단경기 기록(7초)까지 세웠다. 가장 마음에 드는 기록은 뭐가?

최단 경기 기록이다. 킥복싱부터 시작해서 타격에 애착이 많다. 서브시나

나 파운딩 포시전에서 공격보다 타격에서 멋지게 상대를 낙아웃시키는 게 좋다.

이번 승리로 세계랭킹 10위에 올랐겠다. 주변에서 당신을 기만하지 않았을 텐데?

카카오로 메시지만 500명이 넘게 왔대(웃음). 생선 연막도 안 하던 사람부터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까지 약 200~300명 정도가 축하하더라. 앞으로 사람 관리를 잘해야겠다 생각이 번쩍 들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UFC 선수로서 최초의 UFC 파이팅 김동현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김동현 선수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UFC 무대에 설 수 없었을 거다. 누가 다고 못하고를 기르는 건 무의미하다.

하지만 수컷인 이상 범입만큼은 1등 자리를 양보할 수 없잖아. 김동현 선수를 이길 자신이 있?

일단 몸이 탄력적이어서인건지 풀라도 여자들이 내 몸을 만지는 걸 좋아하더라(웃음). 하지만 범입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분명한 건 내 기법은 좋은 거대(웃음).

선수로서 한창 젊어가는 중인데 군대 문제가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

아무 곳이나 빨리 다녀오고 싶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내 지금 운동하는 것만큼 힘들진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새해 목표는?

당연히 챔피언 타이틀이다. 올해 3번 정도 시험을 한다는 전체 2경기를 모두 잡으면 마지막 경기(가티움) 메치가 될 거라고 생각된다.

오케이. 그럼 UFC 챔피언을 먹은 후 다시 만나고, 팀에게 코리안 증비의 매운 맛을 보여주려고!

WE WANT ANSWER

코리안 증비와의 10분 10답

당신 돌출마마냥 짧고 솔직한 질문의 응답 시간이다.

인기를 싫어하?

그렇다. 하지만 UFC 대장 대나 화이트가 '존 존스'의 길을 걷고 있잖아? 직접 밀할 줄은 들었다.

다른 대회와 차이점은?

긴장감의 레벨이 다르다. 마이너 대회처럼 일관한 분위기를 못가 이었다.

당신의 최고 경기는?

2010년 4월의 WEC 데뷔전.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세상에 증명한 경기다.

언제까지 활동할 생각인가?

군대 가기 전까지 이루는 군대에서 생각하겠.

당신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

최상의 일격이 성공한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 넣을 준비를 하면서 눈빛을 보고 상대가 떨어지더라.

최고의 타격을 보유한 선수는?

김대. 내가 최고 아닐까?

자신보다 낫?

그렇다 한다. 경기에서 잘해야지 스파링에서 잘하면 무슨 소용인가? 옥타곤의 위와 아래는 전혀 다른 세계다.

경기 전 옥아웃에서 드는 생각은?

그냥 실대(웃음). 경기 시작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죽기 살기로 운동하고 싶단 생각이湧출한다.

MAXIM과 코리안 증비의 동반행은?

진짜 남자



정찬성

별명: 코리아의 좀비

태어난 곳: 포항

생년월일: 1987년 3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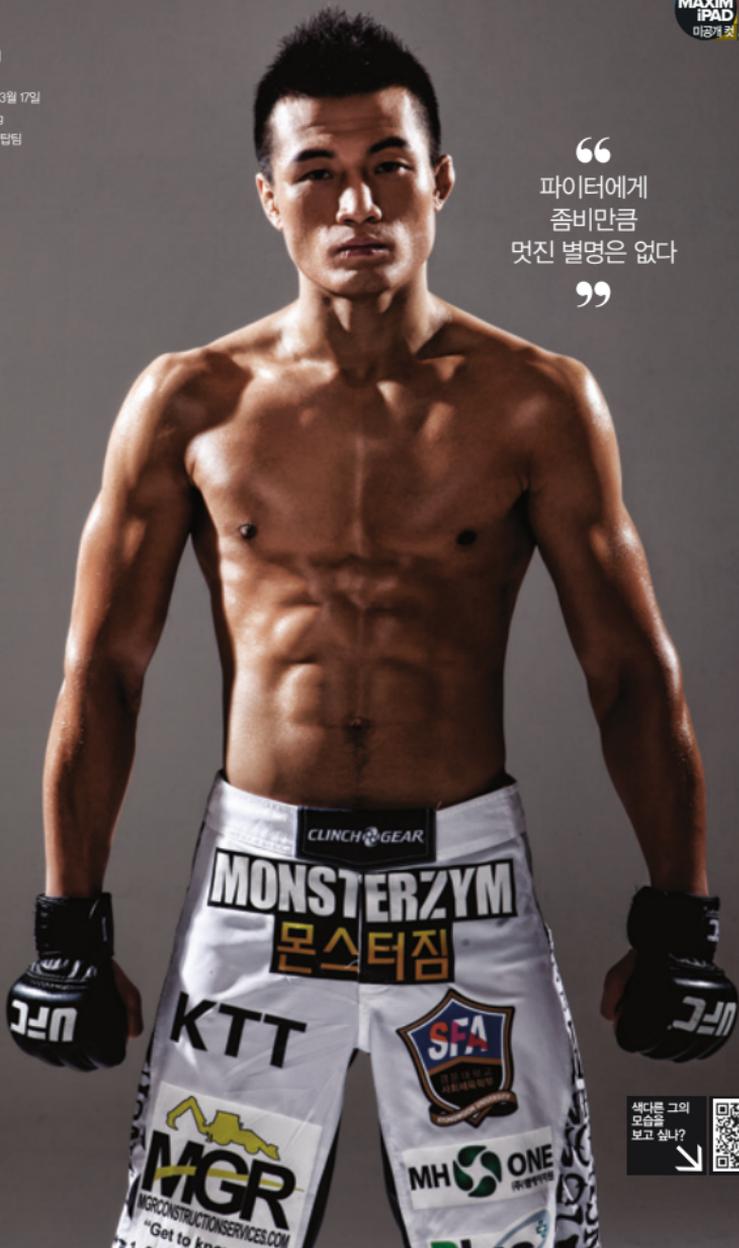
신체: 176cm, 69kg

소속팀: 인코리아만 팀



“
파이터에게
좀비만큼
멋진 별명은 없다

”



선대를 그의
모습을
보고 싶나?



간지사는
촬영장
습격하기



LET'S RIDE!

MAXIM과 레알 수컷들의 개작살 간지 보더 프로젝트

보더라면 떡매질도 마다하는 레알 수컷들과 함께하는
개작살 간지 보더 프로젝트, 어디 한번 배워볼까?

BY 박한빛누리의 PHOTOGRAPHS ARC STUDIO
MODELS 한탄배, 조좌검, 우정근, MAXIM 독자들

COOPERATIONS 슈가포인트(www.sugapoint.com 02-2217-5009) 휘닉스파크(www.phoenixpark.co.kr 1589-2828)

백플립(backflip)하는 법

1. 어프로치(키커에 진입) 시 다리를 기마 자세처럼 90도를 만들어 토에지를 잡는다.
2. 키커에 진입한 후, 다리를 떼며 그 탄력으로 튀어 오른다.
3. 고개를 뒤로 완전히 젖히면 자동적으로 몸이 돌아간다. 여기서 손으로 데크를 잡아주면 더 멋있다.
4. 착지할 지점을 미리 주시한다.
5.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다리가 따라온다. 그대로 안전하게 착지. 착지할 땐 토에지를 준다.

슈가포인트?

바나나가 가장 맛있을 때 표면에 생기는 갈색 반질. 브랜드 슈가포인트는 익스트림 스포츠 & 아웃도어 아웃도어+스트리트웨어 대표로, 최적의 상태가 된 바나나처럼 최고의 가치와 열정을 담고 있다.



슈가포인트 소속 한진배 선수

보기만 해도 바지에 오줌을 지릴 만큼 '익' 소리 나는 동작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좀 잡는 스노보더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다. "한진배 아니면 안 되겠는데?" 2003년 동계 아시안 게임 하프파이프 동메달, 05~08년 전국체전 스노보드 4관왕. 받은 상이 너무 많아 기억하기조차 힘들다는 그런 레알 수컷을 만났다.



보드북 정퍼, 편초 모두 슈가포인트

프런트 보드 슬라이드 front board slide

1. 레일 진입 시 다리를 기마 자세로 만들어 토에지를 잡는다.
2. 점프하며 레일에 진입하는 순간, 어깨를 왼쪽으로 틀어준다.
3. 레일 위에서 뒷다리를 뒤로 푸욱 뻗으며 시선은 레일 끝을 향한다.
4. 레일 끝에서 자연스럽게 착지 예지는 상황에 따라 알아서 준다.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 보드 낙법이라고 들어봤나?



앞으로 넘어지기

김연우의 전방 낙법을 떠올리자, 앞으로 넘어질 때 역시 손을 땅을 짚을 생각은 버리자. 어깨가 팔꿈치로 문희준 줄을 평생 추고 심지 않다면 말이다. 팔꿈치로 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주먹을 꼭 쥐고 낙법 자세를 취하자. 다소 어정쩡하지만, 안전을 눈에 처박는 저질스러운 행위까지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다.



뒤로 넘어지기

올라당 뒤로 잘못 넘어지면 꼬리뼈가 나가거나 머리가 깨질 수 있다. 넘어질 듯한 속이 오는 순간 젼싸게 양팔을 크로스하자. 손을 허벅지로 짚었다가는 두 번 다시 회투를 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보드를 타다가 손을 잘못 짚어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 뒤통수에서 뇌수가 줄줄 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싶다면 꼭 헬멧을 착용할 것!

MAXIM과 슈가포인트,
독자와 자양동체도다.



스키장 작업 노하우

들어대란 말이야,
어찌봐 한 번 보고 말 사이잡아?



내 손을 잡아봐

슬로프에서 사정없이 굴러내려오는 곳보다는 공략하자. 그녀는 이리저리 앉아서 꼬리뼈 뽀뽀만 아니라 마음까지 꿀잼상을 입고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하는 일시적인 공황상태에 빠진다.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그에게 손을 내밀자. 옥동자가. 장동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허경남급으로 보이는 순이다. 같이 슬로프를 내려와 리프트를 기다리며 대화를 이어가자. 이젠 막 여기까지다. 보드를 일러주겠다고 너무 수직부리는 건 어찌봐 같다.



리프트

많이 타봤자 네 영. 허공에 머물러 있는 이 순간만큼 작막하고 어색한 순간이 없다. 첫타는 적당한 홈 구조사부터 시작하자. 어디서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처음 온 건만지. 진짜 당신이 즐락 못생기지 않은 이상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왜냐고? 리프트 한번 타봐. 진짜 알아차니심삼한데.



매점

스키장에서 나눠 먹는 츄러스만큼 남녀를 가깝게 해 줄 아이템이 또 있을까? 스키장의 츄러스는 예디슨의 백열전구,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과 함께 세기의 발명이라 불릴 만하다. 스키장 매장에서 주선부리를 섭취하는 그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자. "드시고 있는 츄러스 한 입만 주세요." 의외로 여자들은 다짜고짜 던지는 이런 때짜어 멘트를 좋아한다. 한입 먹어 버렸지만 뜨끈뜨끈한 아복 한 사람 대접하겠다는 자리를 이어가자. 칭미해하지 말 것. 낯짝이 두꺼우수록 딱딱할 지수는 올라간다.

칭경형은 언제죠?

열- 열십이던가??

▲ 유독 여자들에 친절한 조좌겸 선수

다음주에 일래라니.

형 여기서 오졸쌌어?

휘닉스파크 블루레이크인 ▶

보드복 모두 슈가포인트

▲ 어시스턴트 조다현 신나.भव요? 사무실에서는 왜 저런 웃음을 볼 수 없을까?

▶ 타자기도 식후경이다.

MAXIM 스태프 독자들 휘닉스파크를 다녀왔다. 코가 떨어져나가는 환상적인 추위의 강원도에서 보드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온천도 즐기고, 불링도 치고, 밤에는 원정녀 얘기기도 하면서 1박 2일을 아주 신명 나게 보냈다. 이런 환상적인 이벤트를 제공해 준 슈가포인트와 휘닉스파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다. 그리고 항상 MAXIM을 응원하고 있다는 독자들분들, 사랑해요~

NEO CITE

PLAY THE MUSIC!

DJ SOPHIA LIN

플레이보이 메인 DJ 겸 모델로 활동 중인 소피아 린이 한국을 방문했다. 예쁘고, 섹시하고, 술 좋아하고, 게다가 뜨겁게 불쭉 오는 이렇게 MAXIM스러운 처자가 또 있을까?

BY 박원빛누라 PHOTOGRAPHS ARC STUDIO FILM 김진욱

HAIR MAKE UP 이병형 ASSISTANT 조다현

COOPERATIONS 넥사이트, 클럽 뎀텔(02-546-2271)

슈츠텔(02-3443-7703) 뉴에라, 크레조컴바인 이너웨어(02-3444-7712)

이다디스 오리지널스(02-547-0325)

클럽보다
신나는 촬영장
있잖아



문지 뉴에라
앤드웨어 크레조컴바인 이너웨어
문동희 이다디스 오리지널스
슈츠 개인 소장

수영복 MAXIM 에디터 소장
헤르본, 방규 개인 소장



전세계적인 플레이보이의 메인 DJ라니, 단기간에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갔다.

라스베거스에서 DJ로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 할 때, 예전부터 알던 친구가 마카오에 있는 클럽 'FLAVOR'의 총 지배인이 되었다. 그 친구의 소개로 클럽 개장 공연을 하게 되었고 반응이 좋아 플레이보이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택시 광고, TV 스크린, 대형 천막, 키치노와 호텔 광고에 내 사진이 걸렸는데 어찌나 황홀하던지...

날 때부터 DJ를 꿈꾸는 소녀는 드물다.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

어렸을 땐 마냥 동물이 좋아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니이가 들수록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의상 디자인 쪽 일도 해보고 싶더라. 그래도 DJ 일을 하면서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많이 하게 돼서 그 꿈은 이뤘다고 생각한다.

디제잉할 때 가장 선호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은 무엇인가?

디제잉할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5초에서 길게는 1분 정도 비트를 듣고 이 음악을 들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를 정한다. 플로 라이더(FLO RIDA)와 핏볼(FITBALL)의 음악은 모두가 신나고 좋아하는 비트를 가지고 있어 분위기를 띄우기에 딱이다.

K-POP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연하지. 보아와 윌더웁스가 미국 차트에 진입한 적이 있다. 특히 윌더웁스의 '노바디'는 재미있는 안무가 인상적이라 더 기억이 난다. 멤버들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수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다.

〈본노의 질주-더 오리지널〉에도 출연했다. 평소애 빈다첼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편인가?

차라면 굉장한다. 여러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렉서스 SC430을 제일 아낀다. 경찰 단속이 없는 날 이 녀석을 몰고 LA와 라스베이거스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질주하는 기분. 진짜 뛰진다.

전세계적으로 팬들이 무척 두터운가 들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이 있는가?

나라에 상관없이 팬들과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연락한다. 팬이랑키보다는 친구에 가깝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닐 때마다 연락이 닿는 팬들과는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한다. 당신도 오늘부로 내 친구다.

“당신도 오늘부로
내 친구다.”

연하임에 코레조컴바인 이너웨어

당연하지. 한국에서는 우리처럼 친한 사이를 'X알 친구'라고 한다. 이런 한국 방문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클럽 팬텀 오픈 공연이 끝나고 한국 친구들과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셨다. 사진을 어쩌나 같이 찍었는데 장난이 되는 줄 알았다. 동태문 새벽 시장도 굉장하더라. 야식으로 먹은 김치가 박힌 핫도그에 심장을 빠앗겼다.

남자들이 당신의 심장을 빠앗기 위해 던졌던 최악의 작업 엔트리가 있다면?

"알파벳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U 다음에 I가 오게 하겠습니까. U&I, 당신과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오글거려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줄 알았다. 난 이런 유치한 작업 엔트보다는 맘을 얼마나 자신 있고 솔직하게 하는지를 보는 편이다.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남자의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키. 내가 힘을 신었을 때 적어도 나보다는 커야 같이 다녀도 건지가 난다. 여기에 패션 센스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다. 나보다 너무 마르거나 돼지인 남자는 영 별로더라.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쉬는 날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새해에는 조금 여유롭게 살고 싶다. 남들 다 하는 운동할 시간도 없다. 집 앞 해변가에서 돌고래와 같이 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전에 수영부터 배워야겠구나.

바른 일직 뒷에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보컬 코치가 '황금막 호흡'이라는 특이한 호흡법을 알려줬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건데 이게 불안장애와 망각장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숨을 쉬고 나면 묘하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기분이야. 아무리 그래도 난폭한 운전만큼 가슴이 병 들리는 건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만난 유명 아티스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리앤나, 마돈나, 플로 라이더. 니오, 제이 지 등 말로만 들던 유명 뮤지션과 작업을 했다니 아직도 꿈만 같다. 그중에서도 플로 라이더와의 관계는 슈퍼 베프 그 이상이다. 얼마 전 마카오에서 공연하고 있는 그를 찾아가 헤드셋을 선물했다. 그리고는 부어라 마사라 밤새도록 신나게 놀았다.

다음 한국 방문은 언제쯤인가? 소액 한 대접 말아 놓고 기다리겠다.

2012년 여름에 올 예정이다. 아, 그렇다면 인주는 김자 박힌 핫도그로 부탁한다. ☺



▶ DJ SOPHIA LIN

생일: 8월 14일

태어난 곳: 워싱턴 D.C

SOPHIA만의 특별한 비밀 세 가지

1. 세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눈썹이 많다. 슬픈 영화를 볼 땐 장장정
2.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를 자랐다는 사실, 자세한 사항은 국가 기밀
3. 옷을 입지 않고 청소와 설거지를 즐기는 그녀. 이십계도 지금은 식모가 생겨서 누드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그녀와 친구가 되자!

홈페이지 www.djsophialin.com

트위터 [twitter@DJSophiaLin](https://twitter.com/DJSophiaLin)

페이스북 facebook.com/djsophialin

GO TO
MAXIM
IPAD
이공계킷



MOTOR OF THE MONTH

박스가 열풍의 중심 낫산 큐브, 판매 왕 등극!



한국수입차는 큐브(CUBE)가 11월 수입차 판매에서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발표에 따르면 큐브는 전월 대비(325대) 126.2% 증가한 판매대수 735대를 기록하며 단일 모델 판매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낫산 브랜드 한국 출범 이후 최초의 기록이며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약 1년 7개월 만에 베스트 셀링 모델 1위가 나온 셈이다. 이로써 큐브는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대수 1,915대를 기록 했다. 큐브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활용도 높은 실내 공간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낫산의 브랜드 아이코닉 모델이다. 특히 2세대 모델에 가수 이호리씨가 타는 차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모았다.

가격 2,190만 원(1.8S), 2,490만 원(1.8LS)

이벤트에 말로 박스카 열풍을 나예게로. 기아 레이, 출시



지난 11월 29일, 프로젝트 명 TAM으로 알려졌던 박스형 경차 기아 레이(Kia Ray)가 출시되었다. 레이는 영어로 '빛', '서광' 등을 의미한다. 플랫폼과 엔진은 모닝(M)과 공유하며, 변속기는 4단 자동변속기만 적용된다. 전고를 높인 박스형 차체에 경쟁 차종보다 100mm 이상 긴 휠 베이스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수납 공간이 실현되어 실용성을 높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독특하고 세련된 스타일링 5인 가족이 티도 거뜬한 실내 공간 등 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움으로 무장한 레이는 개성과 실용성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박스카 열풍을 극산으로 만들기 위해 소용에 이은 승무부를 따른 셈이다. 가격 카파 1.0 가솔린 1,240~1,495만 원, 카파 1.0 바이퓨얼(LPG) 1,370~1,625만 원

제9회 MAXIM 무료 티팅 당첨 독자는?



제9회 당첨자 나경태 독자의 포르쉐 슬라이트 티팅 후기



맥심 에디터들, 그리고 맥심 독자들 안녕? 난 2년째 맥심을 열렬히 구독중 이라따운 스루 두 살 알컷 대학생 조OO라고 해, 학교 날마다들 중에 맥심을 보는 녀석들이 적지 않은 관계로 본영은 명행으로 처리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줄 거라 믿어, 어디선가 맥심 독자 중에 열에 열은 여자라는 예감 있은 것 같은데, 내가 바로 그 사랑스런 여성독자이니 당첨자를 뽑을 때 조금은 어드밴티지를 줄 거라 믿어용 ㅋㅋ 맥심을 접한 후로 그간 좋아했던 여성잡지(우경할 코스모폴리타, 속 스타일을 애용했었다)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니 이정도는 책임져 주길 바래, 내 애마 우유빛깔 이벤트를 어질습? 나랑 딱이이지? 그나저나 남지라는 것들은 내 차를 데이트 서클로 이용할 줄만 알았지, 기쁠걸 한 번 내주는 꼴을 못 봤다 이 말뿐이야, 그러나 맥심이 언 말에 선행한번 예쁘게 팔리주면 남친보다 100배 낫다는 게 증명되는 거지? 그럼 내가 주편의 우유는 수컷년석들에게 맥심 복음을 전하라고, 맥심을 읽지 않은 수컷과는 상통하지 않을 테야, 어뎌 내 재인야? -유민 조반배

오오, 이라따운 차에 스스로를 '임컷'이라 표현하시니 정말 MAXIM 글수 독자인가 분명해. 게다가 미모를 이용하여 MAXIM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예 아니라 흥익민권적인 대안가적 남자의 차종을 따져 안인도급을 매기는 백해백진 세상에 직접 미야기를 물고 다니며 남자를 태워주니까 차고내 책하다, 몹시 책하다, 다리로 책하다, 번갈고 책하다, 에디터가 지갑을 열며 크고있지만 새겨진이나 주주할인권이라도 보주고 싶다, 우유 빛깔 이벤트를 주인을 바야 할걸 그 색이쁘게 보는데 도 하나 오늘부터 한세 이벤트가 차, 17인형 후사나 그후원이나 하고 뒤들이 보도록 하겠다 추천한다. 이번 달 슬라이트의 주인은 무조건 당신이다.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이트 열 차단 이벤트

최첨단 필름 제조 기술인 '스퍼드랑'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30년 전통의 명품, 슬라이트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모 기간:** 2011. 12. 22 ~ 2012. 1.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티팅 사물 (전원 시용, 즉-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예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벤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182(만민부 전화로 사진들 첨부한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다.)

Who's The Most Dangerous Motorsport Drag me to Hell

인디카 레이싱의 덴 헬렌, 모터GP의 마르코 시몬첼리 등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모터스포츠의 안전성이 또다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안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BY 송종민 IMAGES 연합뉴스, 드림스타임(www.dreamstime.com)

3rd

인디카 시리즈

☹️ X37
드라이버 사망

☹️ X62
중 사망

미국의 F1이라고 불리는 인디카 레이스는 포뮬러 원(F1)처럼 레이스 전용 오픈휠 머신을 사용하지만 거대한 타원형 경계장(오벌 트랙)을 도는 경기다. 매년 5월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인디애나폴리스 500'이 인디카 시리즈의 간판 대회로, 500의 의미는 500마일을 돈다는 뜻이다. 거의 200바퀴 이상을 돌아야 하는 장대한 대륙 스케일의 레이스인 셈. 지난 10월 15일 사고로 유명한 달리한 덴 헬렌 선수도 인디500 클래스를 두 번이나 우승한 챔피언이었다. 2006년 사망 사고 발생 이후 5년만의 불행이다. 코스가 단순해 시종일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데다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 추돌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F1처럼 런오프 구간이 없고 바로 방호벽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고로 인해 F1에 비해 안전 규정이 뒤떨어져 사망자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영상
보러가기





2nd

NASCAR 레이싱

국내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NFL 다음으로 인기 있는 레이싱 대회 무려 500마일(800km)의 거리에 해당하는 타원형 트랙을 200바퀴 이상 달리게 된다. 48대의 경주 차가 굉음을 내며 줄지어 내달리는 장면은 대륙의 스케일이 웅장하게 보여준다.

타 대회에 비해 경기장에 앉아서 전체 경주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추월과 접촉이 다반사로 일어나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최근 3년 내 미국에서 생산된 세단형 자동차만 참가할 수 있지만 결로 습관 같은 불이치 5800cc의 엔진 배기량에 초광폭 타이어를 장착한 풀개조 레이싱 타입의 머신이다.

인디카와 마찬가지로 요벌 트랙을 도는 경기라서 안전에는 취약하지만 오픈휠이 아닌 김철 프레임 스텝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the Isle of Man TT Races

맨섬TT



1st



X237
드라이버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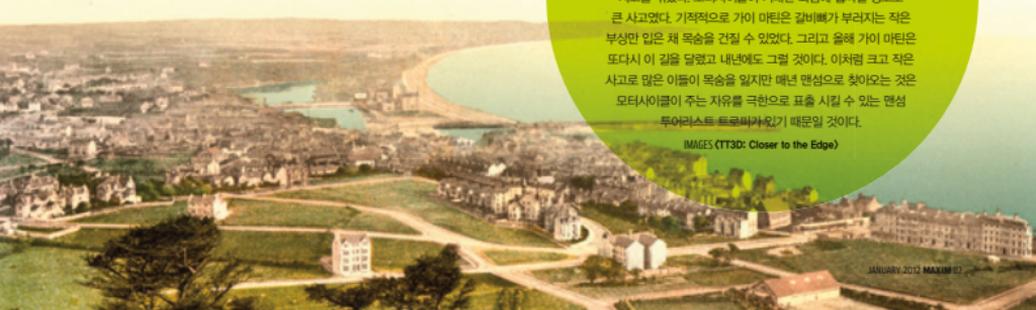
압도적인 킬 카운트를 자랑하는 맨섬 투어리스트 트로피. 레이스 서킷이 아닌 공공 도로에서 벌어지는 최대 규모의 레이싱으로 영국과 아일랜드 해협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 '맨(Man)'에서 매년 개최된다. 맨섬을 한 바퀴 도는 데 60km인 코스를 10바퀴 주행하는 모터사이클 레이스로 타임랩(기록 측정) 경쟁이지만 10초 간격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좁은 길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레이스 평균 속도가 200km/h에 달할 정도로 빠른 데다 길이 좁고 도로도 평탄하지 않아서 모터사이클이 점프하거나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안전장치도 전혀 없고 울타리나 물담, 남따러지 등이 도사리는 일반 도로기 때문에 트랙을 벗어나는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맨섬TT가 '죽음의 경기'라 불리는 이유다. 1인칭 시점의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요단강이 출렁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다. 후덜덜.



죽음을 속인 남자 가이 마틴

가이 마틴은 유능한 자동차 정비사이지만 2009년 맨섬 TT의 우승자이기도 한 레이서다. 이 행사는 2010 맨섬 TT 시니어 클래스 출전 중, 시속 240km 이상에서 엔진이 폭발하며 전도하는 사고를 겪었다. 모터사이클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큰 사고였다. 기적적으로 가이 마틴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작은 부상만 입은 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가이 마틴은 또다시 이 길을 달리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사고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만 매년 맨섬으로 찾아오는 것은 모터사이클이 주는 자유를 극한으로 표출 시킬 수 있는 맨섬 투어리스트 트로피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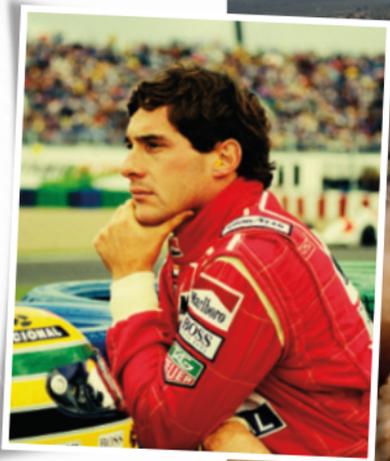
IMAGES (TT3D: Closer to the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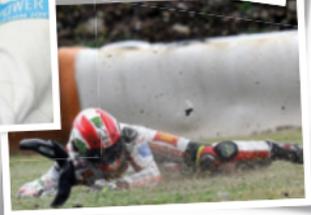
F1



공인된 최고의 드라이버가 출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스 대회. 1950년부터 시작된 포뮬러 원 레이스는 94년 절정의 인기를 자랑하던 드라이버 아일톤 세나를 붙은한 사고로 잃고 난 이후 안전장치와 안전 규정을 엄청나게 강화했다. 예를 들면 머신의 출력을 3리터급에서 2.4리터로 낮추고 티보차체를 금지했다. 머신의 무게도 600kg 이상 늘려야 하고, 프런트 윙과 리어 윙 등을 강화해 다운포스(공기가 차체를 누르는 힘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총중로 프런트 윙이 파손되면 갑자기 다운포스가 사라져 차체가 공중으로 솟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 확실히 효과를 본 셈이다. 하지만 속도가 줄고 박진감이 떨어져 F1이 재미없어졌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꼭 피를 봐야 흥분하는 거니?



모토GP



F1이 새롭지 않다면 이글 레이스의 최고봉은 바로 모토GP다. 1949년 시작해 F1과 마찬가지로 시판되지 않는 프로토타입 머신을 사용한다. 2007년에 990cc였던 배기량을 800cc로 갱신시키는 등 F1과 동일한 저예산, 저위험성을 자랑하는 행보를 걷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23일, 이탈리아의 마르코 시몬첼라(23) 선수가 후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면서 17번째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는 취소되고 말았다. 지난 2003년 카토 다이지로 선수 이후 8년 만에 발생한 침묵한 사망 사고로 모토GP의 분위기는 수 없게 가라앉았다.

과담

일주일 전 사망한 인디카의 댄 뎀던은 경기의 17번째 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 17의 자주가 아니냐는 흥분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래서 F1의 17번째 대회인 인도 그랑프리가 쓸 대안이 없었던 때는 사체가 남아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

사고 내면 잡아가나요?

말레이시아 GP에서의 비극적인 사고는 슬펐지만 이끌어지는 마르코 시몬첼라를 미처 미치지 못한 클린 엔드 윙즈와 밀렌티노. 루시의 마르코가 차례로 그를 돌아보며 발생했다. 그럼 과연 엔드윙즈와 루시는 그의 죽음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은 '아니오'다. 일단 도르라엔 법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 참가자 전원이 교통사고 조사반으로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경기용 서킷은 도로교통법의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 경기에 참가하는 레이서가 미리 레이스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쓸 뿐 아니라 진행 요원, 엔지니어, 취재기자 등도 비슷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또 경기 중 사고로 부상한 머신은 100% 각자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 심지어 상대의 실수로 몸을 다쳐대려고 도끼가 아니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뭇목 잡고 내리도 소송 일다는 뜻이다. 대신 실수를 거쳐 포인트를 뽐내거나 출장 정지 등의 패널티는 피할 수 없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일명 '경쟁이 개입(강제)된' 임무성 공식 치사 등의 실형성이 적용된 일은 아직 없었다.



이제새들 거기서 비켜

같이 가자 요단강 상!

모터 스포츠의 화끈함은 드라이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구경꾼들도 데려간다고!

1. 1955년 르망 레이스 (한방에!) 89명

F1 드라이버의 역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르망 내구 레이스는 차량의 성능에 더욱 초점을 맞춘 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 24시간 동안 쉬 없이(드라이버는 교대) 달리로 차량의 내구성과 품질에 따라 순위가 갈리는 셈이다. 하지만 속박이어서 할 내구 레이스 우승이 재앙으로 작용한 팀도 있었다. 바로 1955년의 메르세데스 벤츠 팀이었는데, 시즌 내내 그들의 자랑이었던 300SLR이 접촉 사고로 차체가 공중으로 띄워 관중석으로 날아들어 무려 89명의 관객이 사망한 사고를 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홀로 코스트급 모터스포츠 사고였다. 이 일로 벤츠는 이후 30년 동안이나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았다.

2. 파리-다카르 벨리 (드라이버 25명 사망, 관객까지 58명)

다카르 벨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16일간의 지옥이라는 별명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벨리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지에서 인내와 극기를 시험한다는 콘셉트로 사막, 계곡, 정글, 밀림 등을 가로지르는 길고 험난한 '지옥의 벨리'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다카르 벨리는 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드라이버만 25명, 구경하던 관객이나 촬영 기자들까지 58명이나 사망했다. 일단 코스가 불명확해서 길을 헤매기 쉽고, 긴 경주 거리 내내 예측할 수 없는 지역이 구경꾼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관중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망 사고

가 계속되자 비난 여론이 크게 일어났는데 88년 대회에서 아프리카 현지인 세 명이 차에 치어 숨지자 로마 교황청은 "배고픔과 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아프리카 땅에서 부와 힘을 과시하는 행위"라며 대회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3. 1986년 WRC (3명 사망, 30명 부상)

트레이나 공공 도로뿐 아니라 비포장 도로와 눈길 같은 험로를 주파하는 월드 벨리 챔피언십 경기 역시 맨션TT 못지 않게 위험한 레이스를 펼쳐야 한다. 길 자체가 워낙 평탄하지 못해 롤오버가 심하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일이 많아 차체가 컨트를 볼능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1986년 포르투갈 벨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포드의 명차 RS2000이 몰라있는 관객들에게 돌진했다.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의 관객이 부상을 당했다. 멋진 자동차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프로드 레이스는 정말 예측 불허다. 당시 폼으로 뛰어드는 자동차를 안아줄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멀찌감치 멀어지는 게 좋을까?

죽음의 경기장 베스트 5

- 1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Indianapolis Motor Speedway) 56명
- 2 독일 뉘른베르크 (Nürburgring) 48명
- 3 이탈리아 몬자 (Monza) 30명
- 4 미국 데이тона 인터네셔널 스피드웨이 (Daytona International Speedway) 24명
- 5 프랑스 르망 (Le Mans) 24명

드라이브(Driven)



모터스포츠를 주제로 한 영화 안 되는 영화. 원래 차를 배경으로 하려 했지만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디카 레이싱으로 방향을 틀러 잡았다. (2003년 당시에는 CART 대회라고 불렀) 공도에는 나온 레이스카의 위태로움이 이가 캡스큘럼을 확인 시켜준 장면도 좋았지만 역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된 레이스카 충돌 장면은 그 규모도 엄청난

PARTY with RANIA

군동령을 넘어 세계를 재패할 기세의 걸그룹 라니아가 MAXIM을 찾았다. 아리따운 일곱 멤버 중 섹. 디. 티애가 새해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BY 김화성 PHOTOGRAPH ARC STUDIO
WORDS AFILM iver한빛누리 HAIR/MAKEUP CODE
ASSISTANT'S 조다현, 최연영

티애 니트 티셔츠 탑걸
팬츠 아메리칸어패럴
목걸이 게스 주얼리
평균 알도

오랜만이다. 7개월 만에 MAXIM 커버를 장식하게 된 기분이 어떤가?

지난번 촬영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무언가를 해낸 기분이 다. 표지 모델이라고 해서 엄청 오래 걸릴 줄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너무 일찍 끝난 것 아닌가?

지, 지금이 새벽 3시인데 그런 말을 하구나... 체력이 대단하다. 작년에 MAXIM 6월호 화보 촬영 때보다 미모가 더 업그레이드됐다.

에베로이는 각도를 알게 되었다. 표정이나 포즈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실도 엄청나게 썼다. 단백질만 먹으며 일명 '죽은 다이어트'를 했다. 진짜 힘들었다. 티에는 실제로 토를 하기도 했을 정도다!

역시 군동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군동령이라는 애칭이 무척 마음에 든다. 이제 '라니아' 하면 "군동령?" 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졌다. 지금 군대에 있는 오빠들이 제대하면 삼촌 팬이 되겠지? 요즘은 삼촌 팬 많은 아이들이 겁이다.

미국의 유명 작곡가 토미 파커가 라니아와 같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 테디 라일리가 프로듀싱을 맡은 것도 그렇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자주 작업한다.

대표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테디 라일리가 아시안을 대표하는 걸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해서 우리가 탄생했다. 그때부터 연습생을 뽑으면서 '서바이벌 라니아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티에, 디, 리코, 시아가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원년 멤버다.

무대에서의 색서하고 크리스마 넘치는 라니아 말고 숨겨진 진짜 모습이 있다면?

디) 무대에서는 이미지가 강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교도 많고 말도 많다.

셀) 엉덩이가 따뜻한 여자다. 재롱들도 다룰 줄 안다!

티에) 남자같이 털털하다. 라니아에서 소년을 맡고 있다.



촬영 끝나고 사 데려갈거지?

귀은 실크 핏피 게스 주얼리
크리스탈 핏피 스와클브스키
구두 슈즈원

“

군통령이라는 애칭이 무척 마음에 든다

”





재킷 스파이시컬라
팔미의 빈지 모두 게스 주얼리
구두 슈즈원

갑자기 당신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다. 당신들의 취미도 궁금하다.

디) 시간 날 때마다 네이트판을 본다. 바람 피운 연인 이야기, 물놀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더라.

셀) 연도기로 보물을 제거한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다.

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셀프 경락을 시전한다. 턱이 알아졌으면 좋겠다.

얼마 전 이효리와 선애가 자신들의 열애 사실을 밝혔다. 자, 당신들에게도 열애 사실을 공개할 기회를 주겠다.

...

미안하다. MAXIM 남자 직원들과의 미팅 자리라도 한번 주선해보겠다.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니?

디) 키 크고, 잘생기고, 수염도 잘 어울리고, 재미 있는 사람. 그레, 나 외모 많이 본다!

셀) 난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남자답고 다정하다면 오케이!

티에) 키 크고, 웃는 모습이 예쁘고, 쌍꺼풀이 친하지 않은 남자

일자지라 TV의 <101 East>에서 당신들을 집중 보도하는 등 흥행에서도 새로운 K-POP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석유 왕자들이 환장했겠다. 사실 우리는 아직 중동에 기분 적도 없다. 노닥없이 그쪽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촬영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라나이가 중동까지 알려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 공연 때는 벨리와 같은 무대에 섰다며? 벨리가 당신들을 향해 “원더풀~”을 외치며 난리도 아니었다던데...

벨리와 같은 무대에 서는 건 공연 당일까지 몰랐다. 말레이시아 숙소에 도착해서 TV를 켜는데 우리랑 벨리가 같은 무대에 오른다는 광고가 나와서 알았다. 공연이 끝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정말 좋았다!

무대에서 벌어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면?

책받침을 하다가 티에의 바지가 타진 적이 있다. 소리도 엄청 크게 냈고 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라 몹시 당혹스러웠다. 다행히 상의가 길어서 노출 사고는 없었다.

셀은 <유작뱅크> 리허설 도중에 와이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다친 곳은 괜찮은가?

셀) 무대 연출을 위해 와이어를 연결했는데 그게 느슨해지면서 무대에 떨어졌다.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다. 대 표님이 나를 번쩍 들어올려 <유작뱅크> 대가실을 거쳐 차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구경하더라. 아프기보다는 칭피움이 더 컸다.

걸그룹 홍수 속에서 라니아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니?

예쁘고 귀엽고 깜찍함을 고집하는 다른 걸그룹과 달리 우리는 키도 크고 퍼포먼스에서 통가는 센 이미지가 강하다. 그게 먹히는 게 아닐까? 어차피 우리는 귀엽고 깜찍한 콘셉트는 잘 안 어울리더라(웃음).

라니아에게 MAXIMO란?

그냥 잡지가 커피먼 MAXIM은 TOP다.



기요리 카다건 스파이시칼라
빈지 게스 주얼리
필리 알도



디

예명의 의미

본명 김다래의 아나설 중 D

좋아하는 음식

고기, 볶음밥

파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술

요즘같이 날씨가 더럽게 추운

날의 대처법

안 나간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자기 전에 누워서 네이트판

을 볼 때

가수 외에 도전하고 싶은 일

라디오 DJ, 모델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백수

엘미스 아메리칸어패럴
시계 게스 워치
구두 슈즈원

촬영장
침투하기



티애 뷁스타에 예뵐린
칼피 게스 주얼리
구두 슈즈원

샘 원미스 아메리칸어태뵐
칼피 게스 주얼리
구두 슈즈원

→ 티애

예뵐의 의미

본명 태은의 T자뵐 풀어서

티애

좋아하는 음식

급창

파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산뵐(난 미생년자+1개)

요즘같이 날씨가 더럽게 추운

날의 대처법

전기장뵐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화장 지뵐 때. 속는샘이 열마나

무거운데

가수 외에 도전하고 싶은 일

연기 MC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결혼

→ 샘

예뵐의 의미

본명이다

좋아하는 음식

자랑뵐

파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

남자

요즘같이 날씨가 더럽게 추운

날의 대처법

웃뵐 피뵐하게 읽는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잘 때

가수 외에 도전하고 싶은 일

뵐뵐 운영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학생

SNIPER

‘원샷 원킬’의 핏빛 미학을 완성시키는 전쟁의 고스트다. **By 김대영**

1993년작 영화 《스나이퍼》, 2001년 개봉작 《에너미 앳 더 게이트》의 공통점은? 두 작품 모두 스나이퍼가 주인공이란 사실이다. 스나이퍼는 특정인을 사살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소총병이다. 한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첨단 무기의 향연이 펼쳐지는 전쟁에서도 스나이퍼의 일발필중(一發必中)의 사격술은 스마트 폭탄 못지않은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은·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웹진 아미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들을 연재 중이며, 인텔넷자주에서 국방조사회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스나이퍼의 어원



군대에서 사격 솜씨가 우수한 사수를 특등사수라고 부른다. 이런 특등사수를 뽑아 X나게 훈련 시켜 사격의 달인으로 만든 애들이 바로 저격수다. 흔히 스나이퍼라고 부르는데 야생 도요새의 일종인 스나이프에서 유래된 말이다. 18세기 후반 인도의 영국군 장교 사이에서 스나이프 사냥이 유행했는데 요 녀석이 날때서 절반적인 사격술로는 잡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새를 잡을 수 있는 노련한 사냥꾼을 스나이퍼로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저격수를 의미하는 뜻으로 굳어졌다.



전장에 데뷔한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75년, 1783년에 벌어진 미국 독립전쟁이다. 당시 영국군과 벌인 지상전에서 고전하던 미군은 게릴라전을 택해 소규모 부대로 움직이며 영국군을 괴롭혔다. 이들 부대에 속해 있던 명사수들은 저격수로 변신해 영국군 지휘관들을 사살했다. 저격수들은 혁혁한 성과를 거뒀지만 멧과 풍우, 영예를 중시하던 당시 전장에서 비열한 존재로 치부됐다. 그런 연유로 독립전쟁이 끝나고 저격수는 자취를 감췄다. 정식으로 군부대에 편제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다. 전쟁의 양상이 참호전으로 치닫자 독일군은 특등사수에게 망원조준경이 달린 소총을 지급하고 저격수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참호 위로 고개를 든 적군을 무차별 사살하면서 악명을 떨쳤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자 저격수의 활약은 더욱 커졌고,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저격수는 오늘날 군대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저격의 기본은 앉아 쏘



TOOLS

잘 나가는 저격총 #1
달인일수록 연장 발이 중요한 법이다.



BARRET M82

미국의 바렛사가 1983년에 개발한 M82는 대를 저격총의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저격총은 주로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만 사용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장에서 적군뿐 아니라 항공기, 미사일 발사기, 장갑차 등도 원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는 저격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저명한 총으로 1km 밖에 떨어져 있는 첨단 전투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낫는 장사는 없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M82 대(대)용(?) 저격총이다. M2 기관포의 탄환인 12.7mm 탄을 사용하는 바렛 M82는 원거리에서도 엄밀해 뒤에 숨은 적을 사살할 수 있고, 장갑차는 물론 폭발물도 제거한다. 여객기 납치가 발생할 경우 여객기의 방탄유리를 뚫고 저격이 가능한 무식한 놈도 바로 M82다.

적군의 아찔한 뒷태.jpg





숨은 군복이 빛나. 푸딩루팅



스나이퍼의 위업



저격수의 실질적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반 병사가 적 한 명을 사살하는 데 실패한 7,000명이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2만 5,000명이. 베트남전에서는 무려 5만 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저격수는 단 17명으로 적 한 명을 사살했다. '50,000 vs. 17' 통계상으로 봐도 알 수 있듯 일반 소총병과 저격수의 가치 차이는 넘사벽이다. 전문가는 전문적인 저격수 1명이 1개 중대, 즉 100여 명의 보병과 맞먹는 전력을 가졌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고부가카치의 저격수는 잡는 것도 만만찮게 힘들다. 2004년 11월 이라크 팔루자 전투에서 미군은 한 명의 저격수를 잡기 위해 500미터용의 푸탄 투하 등 공중 2회, 156mm 화포의 일제 사격,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사격 10발, 약 3만 발의 소총 및 기관총 사격 등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퍼부었음 정도다.

TOOLS

잘 나가는 저격총 #2 전문 이능도 물건이네.



ARCTIC WARFARE

소총은 보통 3~6 MOA(Minute Of Arc)의 정확성을 갖춰야 한다. 반면 저격총은 1 MOA 이하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1 MOA는 100m 거리에서 2.9초 내의 탄환을 명중시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 해커리시 인터내셔널사의 아크티 워페어는 다른 저격총과 차원이 다른 0.5 MOA의 정확성을 자랑한다. 2009년 11월에는 영국 육군의 크레이그 해리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크티 워페어 매그넘 저격총을 사용해 2.475m의 거리에 성공했다. 이런 놀라운 성능 때문에 영국을 비롯해 21개국에서 저격총으로 운용 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38 리우마 매그넘탄을 사용하는 아크티 워페어 매그넘(AMM)을 2001년 도입했고, 707 특임대와 해군 특수전여단이 이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GIC COAT

킬리수트, "위장은 나에게 맡기러는!" 저격수의 필수 아이템 없으면 뒤지는 거여.

저격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장이 바로 킬리 슈트다. 저격수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은신하기 위해 자연 재료를 이용해 만든 군복이거든. 일반인 입장에서(스피츠의 달복숭이 괴물들 추이 코스프레처럼 보일 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에서 독일군 저격수에 의해 영국군 병사가 희생당하자 영국군 총사령부는 스코틀랜드 지방의 산맥 길시 대원과 사냥꾼을 전선에 투입했다. 당시 산맥 길시 대원들은 밀렵꾼을 잡기 위해 독특한 위장복을 입었는데 이 옷을 킬리 슈트라고 불렀다. 이후 저격수들은 위장복으로 킬리 슈트를 즐겨 입었고, 특수부대의 저격수는 산악이나 산맥지대에서 직접 산 킬리 슈트를 반드시 착용하게 됐다. 그림 이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최근에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도 있지만 대개 킬리 슈트는 저격수들이 자체 제작한다. 낚시 군복을 이용해 군에서 쓰는 위장막을 덧붙여 만든 수제품인 경우가 많다. 침투 지역의 위장 환경에 따라 갈대나 짐 풀 혹은 나뭇잎을 킬리 슈트에 부착하기도 한다.



위대한 탄생



눈이 나쁜 사람은 일단 아웅. 저격수가 되려면 안쪽 눈의 시력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고도의 집중력과 내내신, 적진 깊숙이 침투 가능한 탄탄한 체력은 필수다. 출연자 역시 제외된다. 담배 냄새 때문에 적에게 위장해 있는 저격수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느냐고? 저격수는 500m 이상의 원거리 저격이 주된 임무다. 명중률을 높여려면 풍속, 풍향, 기온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조합하려면 똑똑한 머리도 필수다. 그리고 언제나 독고다리로 다니는 영화 속 저격수와 달리 현실에서는 스포터(Spotter)인 감각수와 한 개 조로 편성된다. 저격수를 보조하는 감각수는 표적을 발견한 후 저격수에 표적을 알려주며, 사격 시엔 저격수의 주변을 경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달인이 된 스나이퍼의 기록



전쟁에서 저격수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당연한 얘기지). 그때마다 달인의 경지에 다다른 저격수 세상이 알려지는데 그들의 기록은 그야말로 '킹왕짱'이다. 세계 최고의 사살 기록을 가진 저격수는 핀란드 방위군의 시모 하이하다.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공에서 시작된 겨울 전쟁에서 그는 무려 542명의 소련군 장병을 사살했다. 그가 정말 대단한 건 총기에 망원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양쪽 눈의 시력에 의지해 소련군을 사살했기 때문이다. 영화 《네이 앤 더 게이츠》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바실리 자이체프와 에르빈 레너히 각각 400명의 상대편 적군을 사살했다. 최근에는 미 육군의 티머시 헬너 하사가 이라크전에서 78명을 저격해 사살했다. 가장 먼 거리에서 저격한 기록은 베트남전에서 키를로스 헤스콕이 세운 2,286m로 35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었으나 2002년 아프간전에서 캐나다 육군의 폴 펄롱이 2,430m에서 적군을 사살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09년 11월에 영국 육군의 크레이그 해리슨이 아프간에서 2,475m의 저격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 번 갱신됐다.



신투볼이 스나이퍼



우리나라에도 날고 기는 저격수들이 적지 않다. 육군의 특수전 사령부, 해군 특수전여단, 해병대에 저격수 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경찰 특공대에서도 저격수를 운용 중이다. 2011년 1월 아랍연 여명작전에서 해군 특수전여단 소속의 저격수는 최영환과 링스 헬기에서 심호 주얼리표를 납치한 해적용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격수를 키워내는 능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저격수의 대부분이 대 테러 부대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 부대에서 저격수를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북한은 분대당 1명의 저격수를 배치, 총 규모가 만 명 여명에 달한다. 최근 저격수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방부는 2011년 2월 북한의 특수전 부대와 시가지 전투에 대비한, 예비군 저격수 부대를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도 3만여 명의 예비군 저격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물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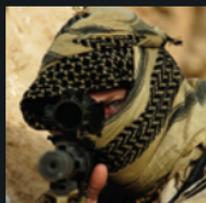


모래 시계 땀! 땀! 땀!

TOOLS

잘 나가는 저격총 #3

정확도는 아심지만 반자동이 역시 편한건 하지.



ARMAMENT

SR-25

일반적인 저격총은 손으로 노리쇠를 잠긴 하는 볼트 액션 방식을 많이 쓴다. 총열을 간단할 조작으로 최대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재장전이 번거롭고 다음 표적에 대한 신속한 사격을 할 수 없던 단점이 있다. 기존의 소총을 저격총으로 개조한 반자동 저격총은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장전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다수의 표적을 잠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반자동 저격 소총 중 하나가 미국 나이트 아머먼트사가 개발한 SR-25다. 7.62×51mm 소총탄을 사용하는 이 총은 개량 후 미 육군이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해군 특수전여단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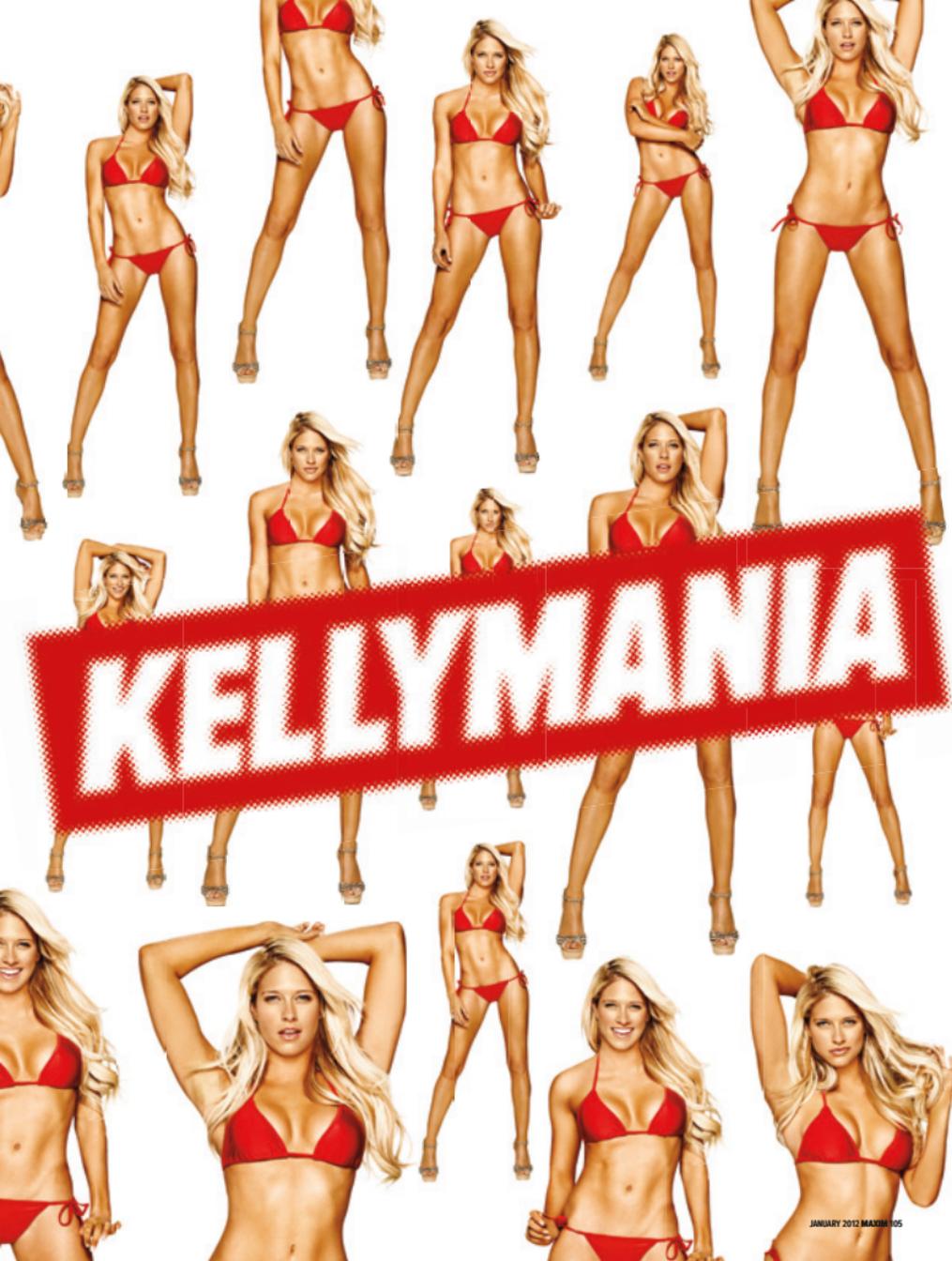




WWE의 여신
 켈리 켈리가 링 밖
 으로 걸어 나왔다.
 섹시 스맥다운이 작렬할
 테니 조심들 하라고!
 그리고 예쁜 다리가 당신
 의 심장을 조여올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가
 조심할 것까진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렇게 조임 당해 죽
 는 게 우리 꿈이었잖아.
 안 그래? 혁혁.)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S EMILY SHUR



KELLYMANIA

“
잘 모르나본데
챔피언벨트의 무게는
무려 13kg이 넘는다.
”



켈리 켈리

생년월일: 1987년 1월 15일

태어난 곳: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본명: 바바라 진 블랭크

바디스펙: 165cm, 49kg

커리어:

2006년 프로레슬링 입문에
입문하여 2011년 WWE 디바스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슬러: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그는 늘 나의 우상이었다.”

남들께 즐기는 그릇:

“패스트푸드에 한정한다. 너겟,
감자튀김, 햄버거... 하여튼 뭐든.”

받고 싶은 성탄절 선물:

“시방, 루부링과 입생로랑으로!”

한편 보고 싶은 유명인사:

“린지 로언. 정신 좀 차리게 만들고 싶다.”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Kelly Kelly가 당신 안구를 완
벽하게 제압하기 직전이다! 어디 벌써 쳐줄텐가?**

Kelly Kelly의 시원한 미소가 작렬할 때 팬들의
마음엔 1천만 와트의 전기가 흐른다. Kelly는
미군위문단 투어에 뛰어들어 최근까지 3번의
해외 방문을 마쳤다. 그녀의 화려한 스펙다운
이 해외 파병 미군 군부대를 마음을 속속히 적
셨다는 후문. 현재 WWE 디바스 챔피언 자리
에까지 오른 그녀, 고등학교 치어리더 출신 치
곤 참 썩잖은 행보지?

어릴 때부터 레슬링 팬이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너무 폭력적이었고 했지만
아빠는 몰래 레슬링 중계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셨
다. 물론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
했다. 내 눈에 레슬러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WWE에서 훈련을 받아보겠어.는 재단을
받았을 때 "사이시어에 물론이죠"라고 외쳤다.

처음엔 무척 힘들었을 텐데.

당연하지. 처음에 훈련장 사내들이 날 탐탁지 않게 여
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훈련시킨 여자 선수들은 다 레
슬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난 훈련장을 거

쳐간 가장 어린 WWE 디바였고. 최초의 모델 출신이
기도 했다. 그래서 난 "영양이에 불나게 연습해야했
다"고 다짐했다.

**확실히 팬들을 당신을 보고 가슴에 불이 나는 것 같
다. 그 유명한 《Kelly's Exposé》) 속
스트립 댄스에 특히...》*10 참조**

훈련 2개월 만에 바로 TV에 출연하게 됐다. 그것도
노출에 환장한 여자로 말이다. 사실 나도 다른 여자
선수들이 등장할 때 선보이는 이런 댄스 시범을 보면
서 무척 충격을 받았다. 그런 내가 《Kelly의 노출》을
처음 선보인 날은 정신세계가 붕괴되는 걸 느꼈다. 그
렇지만 이 바닥에서 자리잡으려면 해야지 어쩌겠나.

부모님의 반응은 어떨었는가?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너 레슬
링 선수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 우린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다행히도 《Kelly의 노출》은 딱 1개월만에 끝
이 있고 나는 이제 링 위에 선다. 지금은 부모님이 나
의 가장 열렬팬이다. 여든이 되신 할머니는 내가 고
향에 올 때마다 "WE LOVE KELLY"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나오신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첸피인식. 여기서 5년 동안 이걸 위해 뛰어왔다. 원가
를 제대로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요즘 대체나

**이렇게 예쁜 여자가 프로레슬러라니, 사실 믿기 힘
들긴 하다. 아직도 믿어다.**

그렇게 하지만 잘 모르나본데 이 첸피인벤트가 무려
13kg이 남는다. 이걸 들고 어릴 걸 때면 수화물로 부
쳐야할 정도다. 사람들은 내가 레슬러라고 하면 "당신
이 레슬링을? 진흙탕 색시 레슬링?"이라고 되묻는다.
사실 날치권구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링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내 경기 장
면을 보여줘야 했다.

그의 반응은?

할 말을 잃더라.

**레슬러처럼 몸집이 우락부락한 남자에게 끌리는 편
인가?**

레슬러와 데이트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 바깥 바깥
사람을 만나는 건 신성한 기분전환이 된다. 물론 보
통 남자들은 내 주변인을 보고 쏘다. 하지만 내 남자
가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연애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해외 파병 미군을 위한 위문 공연도 하고 있다고. 재
미있는 에피소드는 없나?**

처음 이라크에 간 게 19세 때였다. 내 또래 남자들이
그곳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가장 최
근엔 야프가나스탄을 방문했다. 거긴 정말 무서웠다.
사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 알람이 울리더니 사
람들이 "병거 안으로 대피해"라고 외치더라. 알고 보
니 바로 우리 옆에 포탄이 떨어진 거였네!

정신 나간 팬들도 많다고 들었다.

WWE 팬들은 진짜 하드코어다. 자기 얘기를 들고 와
서 시안88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생방송에서 청혼을
받은 적도 있고. 한번은 방송에서 여덟 살짜리 소년과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난 당신이 스틱크 페이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스팅크 페이스가 뭔지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시범
을 좀...**

이렇게 영영이 사이에 상대 선수의 얼굴을 끼고 문개
는 거다. 모욕감을 주는 최고의 레슬링 기술이지? 옛
날 레슬링 리피퍼(Ripper)에게 배웠다. 그 시범은
기자들을 차고 그걸 찍지. 으, 역겹다. ☹



여자 레슬러라고 해서 머리 길고 화장한 아녜도 수위해가 생각했지?

“자기 아기에 사인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생방송에서 청혼을 받은 적도 있고.”



GO TO
MAXIM
iPAD
이공계 컷



WWE DIVA

WWE 레슬링 경기에 선수, 매니저, 텍스태이지 리포터, 링 아나운서 등의 여자 출연진들 '디바'라고 한다.



멘도칼 좀 봤었어?

Kelly's Exposé

젤리는 2009년 데뷔 시 Kelly's Exposé란 노출소로 화제를 모았다. 트리오로도 하고 혼자도 하고... 이후 레슬링에 매진하여 2011년 WWE 디바스 챔피언십에서 우위부락한 언니들을 꺾고 챔피언벨트를 차지했다.



확실히 그녀의
광기 보기



MAXIM & KELLY KELLY

켈리 켈리는 2011년 MAXIM HOT 10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거기에 MAXIM 커버까지 켈리 켈리. 게 댕구냐!



WE WANTED THIS GAMES! : BLOCKBUSTER BIG4

게이머들에게 PS3와 XBOX360이 언제나 옳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게임들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이다.

BY **GAMERZ**

BIG
1

언차티드 3 : 황금사막의 아틀란티스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한 <언차티드> 시리즈의 최신작, 주인공 네이션 드레이크가 파트너이자 스승인 빅터 셸리번과 함께 자신의 선조(라고 주장하는)인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발견한 '사막의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추적하면서 겪는 피X 싸는 게임.

© 2011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LLC. Created and Developed by Naughty Dog, Inc. Published by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업그레이드된 연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업그레이드된 연출이다.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싸우거나(잠수로 적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적의 트랙에 뛰어넘는 등 전작을 뛰어넘은 신선한 연출이 눈에 띈다. 전투에선 메달 기어 시리즈의 잠입 전투가 연상될 만큼 엄폐가 중요해졌다. 적이 던진 수류탄을 되받아칠 수도 있고, 1대 다수의 전투도 역동적으로 그려진다.

<언차티드> 시리즈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래픽도 한 단계 진보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란 평을 들은 전작을 뛰어넘은 그래픽을 보노라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물과 사막의 표현, 캐릭터의 모션 어느 것 하나 흠집을 대가 없다.

이제 바로 진정한 멀티 플레이어

최대 10명의 플레이어가 5대 5 팀 대전 또는 동료와의 협력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메달 획득 및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무기를 개조하

거나 각종 부스태나 캠크, 사용 캐릭터 등의 구입도 가능하다. 또 스토리 모드에선 없었던 대사를 사용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캠크이라는 스킬 시스템이 추가되어 게임 중에 조건을 충족시키고, 메달을 일정한 모먼트 강력 한 무기를 장착하는 등의 특수 효과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한마디로 싱글과는 또 다른 재미를 멀티플레이에서 맛볼 수 있던 거다.

액션 어드벤처의 끝판왕

<언차티드3>는 게이머가 제작사 나티독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의 건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미친 듯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게임이다. 완성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인 게임을 플레이하면 오뎀에 두드리기가 듣거나, 액션 어드벤처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 그냥 무작정 <언차티드>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재미가 듣는 게임이 바로 <언차티드3>다. PS3를 오직 이 한 녀석만 바라보고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다.

- PS3
- SCEK
- 액션 어드벤처
- 2011년 11월 1일
- 59,800원
- 15세 이용가





배틀필드 3

FPS 게임 중 대규모 멀티플레이 전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 《배틀필드》의 최신작이다. 전작은 2005년에 출시됐지만 2010년에 번외편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2》가 발매됐으니 6년 만에 만나는 후속작이라고 그리 오랜만이라고 느껴지진 않을 거다.

© 2011 Electronic Arts Inc. Battlefield 3, Frostbite and the DICE logo are trademarks of EA Digital Illusions CE AB. EA and the EA logo are trademarks of Electronic Arts Inc.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기술 발전을 유도하다

《배틀필드3》는 '투자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다'는 서양식 개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기본 기능이나 편의성 등은 특별히 뛰어난 점은 없다. 기존의 《배틀필드》 스타일에 다른 게임의 편의성을 조금씩 집어넣었으니 창의적인 맛도 없다. 하지만 《배드 컴퍼니2》 시리즈부터 사용한 프로스트비트 엔진을 개량해 사실적인 광원 효과와 그래픽 기술을 업그레이드했다. '제한된 기동'과 '제한된 내성'을 최대한 창의적인 사고로 게임의 재미를 살린다'라는 '일분씩 개발 방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례다. 발매 전부터 착실히 쌓은 내미 블루에 엔진의 성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프로모션 동영상 공개해 관심을 촉발시킨 것 역시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마케팅 전략이었다.

허풍은 있었지만 구리는 없었다

사실 《배틀필드3》의 발매 전 마케팅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게임이 발매된 후 소소한 단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밀리터리 전문가를 초빙해 공식적으로 질문을 철저히 받았다고 밝혔지만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프로모션 영상에 비해 실제 게임의 질리티 역시 다소 떨어졌다. 물론 게임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무기나 복장의 고급 오류 등 사소한 단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픽을 낮춰 최적화를 유도하는 것처럼 유저의

플레이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배틀필드3》는 허풍은 있었지만 구리는 없었다. 게임 플레이의 쾌적함에는 합작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밖에 추가된 배틀로크 역시 SNS 개념을 도입해 기록을 자랑하고 플레이어 간 교류를 향상시켜주기에 편리하다. 아직 손볼 구석은 적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니 너무 타박은 말자.

아쉬운 싱글 플레이

싱글 플레이에 가장 공을 들였는데 정작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은 건 싱글 플레이다. 게임 구성은 수준급이었고, 스토리 역시 역지사지 않다. 버튼 액션 및 플레이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넘어가지. 하지만 특정 소재에 지나치게 매달고, 마무리가 어슬퍼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기술적으로 뛰어난데 노하우는 모자란 느낌(말까? 오�히려 스토리나 분위기를 싹 바꾼 《배틀필드: 배드 컴퍼니2》 스타일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멀티플레이의 완성도는 좋지만 싱글 플레이에서 연습할 만한 미션(헬기, 전투기 등)이 적은 것도 단점이다. 그래도 멀티플레이가 중심인 게임이니 싱글 플레이가 아쉬운 점은 참을 만하고, 2명이서 벌이는 소규모 협동 미션은 꽤 쓸 만한 편이다. 몇 달 후 발매될 《엑투 더 카인즈》 확장팩에는 전직의 유명한 지도들이 추가될 예정이고, 패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니 앞으로를 기대해 보자.

- Xbox 360 / PS3
-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 DICE
- FPS
- 2011년 10월 25일
- 57,000원
- 청소년 이용불가



배틀필드인데 아무도 없는데, 망했어

군비력은 언제 어디서나 출진 벨

iGAME OF THIS MONTH

캐주얼부터 하드코어까지 눈여겨볼 만한 iOS 게임들 총집합!



Mafia Wars Shakedown

페이스북 소셜 게임의 명가 장기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피파 워즈》의 아이폰 버전. 페이스북과 직접 연계되지 않지만 프렌드를 링크하는 기능은 있으며, 기본적으로 집을 찢고 무장을 강화시켜 PVP를 즐기거나 레벨업을 모을 수 있다. 이전보다 깔끔해진 그래픽, 간단한 강화 방식,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강점. 온라인 연결은 필수



- PS3 / Xbox360
- 인트라비스 / 베데스다
- RPG
- 2011년 11월 12일
- 55,000원
- 청소년 이용불가



엘더 스크롤 5 : 스카이림

2011년을 수놓은 수많은 작품 중에 RPG 장르의 팬이라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날 녀석이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엘더스크롤 시리즈의 신작 <엘더 스크롤5: 스카이림>(이하 스카이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놈이 출시된 후 수많은 게이머는 2012년을 기억에서 지우게 되었다지 아마?

© 2011 Bethesda Software LLC, a ZeniMax Media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차별화된 RPG

이 게임은 짧은 시간으로는 둘러보지 못할 넓은 지역, 수 없이 많이 숨겨진 장소와 퀘스트가 존재한다. 판타지 세계의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축복이며 여타의 RPG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대부분의 RPG는 스토리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선형 진행 방식이다. 플레이어는 메인 퀘스트라는 커다란 줄기를 그저 따라갈 뿐이다. 물론 도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선택지를 고를 수는 있지만 플레이어의 '자유도'를 언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스카이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스카이림>에서 이런 점을 불평할 수 없는 건 '이름 없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퀘스트들이 매끄럽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퀘스트'다운 퀘스트의 묘미

<스카이림>도 메인 퀘스트가 존재한다. 하지만 메인 퀘스트는 플레이어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퀘스트를 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사실 전작은 퀘스트들이 별개의 퀘스트로 구분되었지만, 이번 작품은 퀘스트가 미약하더라도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플레이어가 메인 퀘스트

를 수행하며 다양한 퀘스트를 접하는 게 가능해진다. 사실 재미는 캠페인이나 도둑 길드 같은 길드 퀘스트의 잠정적인 물론 게임 내에서 신과 대등한 존재인 '데이드릭 프린스' 퀘스트의 접점까지 존재한다. 메인 퀘스트의 길이는 다소 짧을지 몰라도 각 도시를 오갈 때마다 받는 독특한 퀘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퀘스트를 모두 클리어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야말로 적절한 그래픽과 사운드

게임 내의 퀘스트 구성만큼이나 그래픽과 사운드도 게임에 걸맞게 참으로 적절하다. 극한의 그래픽은 아니지만 각 지역을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메인 퀘스트 중 방문하게 되는 '블랙리치'나 '소븐가드' 지역은 그 웅장적인 분위기에 탄성을 내지 않을 정도다. 여기에 <엘더의 전설>을 빙글케 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웅장한 BGM을 듣다 보면 플레이 도중 감동이 스나처럼 몰려온다. 게임 내 줄기거리는 물론이고 여기에 보는 즐거움, 듣는 기쁨까지 더해준다. 어디 한 구석 미워할 수 없는 게임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모험을 꿈꾸던엔 <스카이림>도 떠나자. 만족할 만한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영민담.

iGAME OF THIS MONTH

당신이 찾아 헤메던 바로 그 지뢰찾기다. 즐길 준비는 됐나?



Minesweeper Q

지뢰찾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다시피 게임 자체가 철저하게 마우스에 특화돼 OS 기에서 줄기거리는 그리 쉽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평이하고 조작성을 잘 살린 작품이 바로 이놈이다. 굳다지기 없이 윈도우 지뢰찾기의 기본적인 스킨과 방법을 거의 그대로 OS에 구현했다. 이제 남은 건 열성의 지뢰를 찾는 일 뿐이다.



메탈 기어 솔리드 HD 컬렉션

2001년에 PS2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2: 선즈 오브 리버티》, 2004년에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3: 스네이크 이터》, 그리고 2010년에 PSP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 피스 위크》 세 작품을 HD로 따서 한 장의 블루레이 디스크에 담았다. 메탈 기어 시리즈 덕후들은 출동 준비 됐나?

© 2011 Konami Digital Entertainment

재대로 된 맞춤 아식

팬들의 꿈이 이뤄졌다. 이제 PS3로 PS2와 PSP로 출시된 전작을 업스케일된 화면으로 즐겨보자. PS2로 출시된 《메탈 기어 솔리드2》와 《메탈 기어 솔리드3》는 16:9의 와이드 화면에 초당 60프레임, 720p 해상도의 게임으로 변신했다. PSP용 소프트 《메탈 기어 솔리드 피스 위크》 역시 초당 60프레임, 하지만 320p였던 그래픽을 무려 1080p 풀 HD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도 전부 손봐서 음질을 향상시켰고, 5:1 채널 사운드도 지원한다. 단 순 이식이 아니라 PS3에 맞춰 정밀하게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덕분에 PS2 & PSP용 게임의 아식임에도 지금 나온 PS3 게임 못지않은 그래픽과 사운드를 자랑한다. 원작을 즐긴 팬이라면 풀 화면으로 진행되는 게임 내 이벤트 화면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직자란 큰 변화

게임의 큰 등은 오리지널과 동일하지만 적의 배치를 비롯 해 음성을 추가하는 등 기계적인 이식이 아니라 여러 부분

에서 조정을 거쳤다. 부록으로 《메탈 기어 솔리드2: 서브 스탠스》에 수록된 VR 미션, 스네이크 테일즈, 캐스팅 시어터와 《메탈 기어 솔리드3: 서브시스턴스》에 수록된 3D 카메라 기능, MSX판 《메탈 기어》와 《메탈 기어2 솔리드 스네이크》의 복각판. 각 장면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데모 시어터 기능을 추가했다. PS3용 타이틀메인만큼 각 이터들 모두 플레이어님 트로피 기능을 지원한다.

이것이 바로 일타삼파!

일본에서는 《메탈 기어 솔리드2&3》와 《메탈 기어 솔리드 피스 위크》가 별개 패키지로 발매되는 만큼 한 개의 패키지 세 작품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정식 발매판은 가격 대비 성능비도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매된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가 한글화 혹은 일본어판 기준으로 발매된 만큼 모든 타이틀이 영문 자막과 음성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 호불호가 갈릴 만한 점이다. PS3로만 발매되었기 때문에 《메탈 기어 시리즈》를 좋아하는 Xbox 360 유저라면 더욱 안타깝기 쓸 거다.

- Xbox 360 / PS3
-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 DICE
- FPS
- 2011년 10월 25일
- 57,000원
- 청소년 이용불가



iGAME OF THIS MONTH

레트로한 스타일에 반하고, 손에 착착 달라붙는 재미에 또 한 번 반하게 될 거다.



HungryMaster

업스케일 게임 유행 중 하나가 이른바 하이트 레트로 스타일이다. 하지만 단순 도트 그래픽을 넘어서 정밀 에트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임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헝그리 마스터》는 독특한 배경의 질감은 물론이고, iOS 기기의 특성을 잘 이해한 하슬이 만들지 않은 게임 디자인이 일품이다. 게다가 아이패드도 지원하는 유니버설 앱이다.

운동은
같이 해야
재밌어지



**SWEETLY
SWEATY**

2011 

MISS

MAXIM

TOP 3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MISS MAXIM 결승진출자 김지혜, 이명희, 천이슬 3인이
건강한 섹시미로 2012년 새해를 연다. 당신도 함께 땀 좀 흘려볼텐가?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 권수경 MAKEUP 고영은 WORDSAFILM 송종민
ASSISTANT 조다현, 최인영

COOPERATION

아디다스 네오라벨, 리코스테 라이너(02-3440-7725) 태상필름(02-549-3956) 프체디, 게스원세(02-3444-7712) 푸에(02-514-0993) 탑걸, 비버민햄스트루드 by 디리PHS(02-546-7764) 슈즈웬(02-3443-1703) 아디다스 히드웨어(02-587-0233)

(왼쪽부터)
탑 아디다스 네오라벨
운동의 대상

운동의 프레디

레깅스 탑걸
신글라스 비비안웨스트우드
by 다리FANS
운동의 프레디





천이슬

연기에도 도전 중이라고?

요즘 시작한 연기가 정말 재미있다. 아직은 많이 배워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익히겠지?

서울렌즈 안 하는 것과 만났을 클럽 가기 중에 뭐가 더 어렵나?

서울렌즈가 그렇게 거슬렸나? 미안하다. 하지만 서울렌즈는 촬영할 때만 끼는 거다. 평소에는 안 하고 잘 돌아다닌다고

일하고 뭐고 다 배려차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나?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일을 하느라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데 일을 마치고 텅 빈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 때면 다 내려놓고 집에 가고 싶어지기도 한다. 아, 엄마!

청순과 섹시를 동시에 가진 이누스적 매력은 자신의 매력으로 잡았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내가 낯을 가리면 청순하다고 한다. '섹시는... 나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면 볼 수 있다.'

MISS MAXIM에 출연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인지도가 올라갔다. 미니 홈페이지 'MAXIM에서 봤다'는 글이 부쩍 늘었다.

MISS MAXIM 우승자가 되어서 꼭 도전에 보고 싶은 콘셉트가 있다면?

젤빈 클라인 광고처럼 멋진 근육질 남자 모델과 진한(?) 분위기를 연출해보고 싶다. 아, 언더웨어 말고 친 광고를 말하는 거다.

담 푸마
운동의 대상



▶ 이명희

지난 MAXIM 파티에서 만취한 당신을 친구들이 수거해 갔다는 제보가 있다.

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친구들 다 챙겨간 것 같은데.

언니로서 어린 MISS MAXIM 아해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보고 뭐든지 열심히 할 때 많이 해봐야 해.



MISS MAXIM에 출연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없다.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 화장을 맨날 이렇게 하진 않아서 그런가 보다(웃음).

MISS MAXIM 우승자가 되어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콘셉트가 있다면?

남국의 따뜻한 섬나라 해변에서 해인 구조대 콘셉트 화보를 찍어보고 싶다. 컷가에 주제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나?

초소형 비키니를 조건으로 해외 촬영을 해야 한다면?

가능하대 근데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건 조금 민망한데.





김지예

SNS에서 팬들의 응원이 엄청났다.

트위터에 RT가 많았다. 그걸 타고 들어와서 많이 추천해주신 듯? SNS의 승리다!

남자들이 치어리더 유니폼에 환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섹시한 복장이 남성의 성적 환상을 자극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발정 난 것처럼 들이대진 말아줘!

일 년 내내 경기장에 있는 셈인데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

이거 민감한 질문인데? 내가 축구, 야구, 농구를 전부 응원하고 있다는 걸 의식한 질문 아닌가(웃음). 장단점이 있어서 딱 고집긴 그렇지만 몸이나 가을처럼 선선한 계절이 제일 일하기 편하다.

와, 그렇게 도망가기인가? 그럼 직접적으로 물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진작 그렇게 물어보지. 축구를 좋아한다. 아,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 말이다. FC서울 파이팅! 예~~

사진찍이 잘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척 사실 실물보다 낫다. 오늘 화장도 아주 맘에 든다. 집에 가서 따라 해 보려고 사진 찍어두었다(웃음).

MISS MAXIM에 출연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군인 팬들의 급증.

MISS MAXIM 우승자가 되어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콘셉트가 있다면?

섹시한 에니멜 의상이 잘 어울리는 썬우머이 되어보고 싶다. 보고 싶으면 나한테 투표해!





YI SEUL

MISS MAXIM 투표에서 나를 찍었다.
솔직히 안 팔 줄 알고 신경 끄고 있었다.
MISS MAXIM에 선정된 것만 해도 만족하
고 있었는데, 이렇게 TOP 3에 뽑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버릴 수 없는 나쁜 버릇
남들이 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한다.
춤추듯이 걷는구나? 푸헛!

나의 섹시 포인트
맘 먹고 보낸 눈길! 섹시하다는 증언
이 있다

천이슬 (피)
티셔츠 아디다스
시계 게스워치
구두 슈즈원

김지혜 (우)
구두 슈즈원

이명희 (좌)
언더웨어 마루 이너웨어
구두 슈즈원

김지혜 (우)
탑 푸마
비디수트 프레디
구두 슈즈원

MYUNG HEE

MISS MAXIM 투표에서 나를 찍었다.
당연한 일이지. MISS MAXIM은 바로 나
대אות.

바릴 수 없는 나쁜 버릇
없다. 무뎠 이런 게 내 단점인 것 같다.
쓸데없는 자신감?

나의 섹시 포인트
예전엔 엉덩이였는데 이제는 복근에 투자
하고 있다. 복근에 특효인 운동이 있는데
당신은 아마 10개도 못할 거다. 난 하루에
30개 넘게 한다.

JI YEA

MISS MAXIM 투표에서 나를 찍었다.
당연! 너무 되고 싶대 놓치고 싶지 않아

바릴 수 없는 나쁜 버릇
평소에 무표정하게 있는 것. 사람들이 무
서워한다.

나의 섹시 포인트
흔히 눈웃음 있는 여자는 귀엽다고 하는
데 내 눈웃음은 섹시하다(웃음)



대망의 결승 안내

연재 2011년 12월 10일~12월 30일

어디서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어떻게 당신 눈에 2012 MISS MAXIMO! 되어 마땅한 그녀의 화보를 다룬다면, 당신의 다운로드수가 곧 그녀에게 던지는 한 표가 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가장 sexy하다고 생각
하는 운동은?

요가, 여성의 선을 가
장 잘 살릴 수 있는 운
동이 아닐까.

짐볼 위에 일드려 있는
여자와 벤치 프레스에
누워 있는 여자 중에
누가 더 sexy한가?
벤치 프레스, 탄탄한
팔 근육과 운동에 집
중하는 모습이 sexy할
것 같다.



인간을 색사하게 만드
는 운동은?

복싱.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스스로가 색
사하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2012 MISS MAXIM CONTEST



내년에도 MAXIM 화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름다운 여성 독자들이 남칠 거라 믿는데!
2012 MISS MAXIM CONTEST에 도전하라.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상금도 올라간다.

참가 신청 방법

-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우측 MISS MAXIM 참가 신청 배너를 클릭한다.
 - 독자들에게 보여줄 예쁜 사진 20장을 업로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02-323-1182 alice@maximkorea.net

STYLE

관찰은 장갑

우선 뭉치고 던지고 보자.

BY 곽경희 PHOTOGRAPHS ARC STUDIO

주소: 인천 황닉스파크(www.phoenixpark.co.kr 1588-2828)

COOPERATIONS: 흥매(02-3444-7712) 쿠라, 헤지스, 울벤(02-514-0693)

헌터, 타이힐피거(02-546-7764) 프레드페리(02-3446-7725)



- 1 정직하고 듬직한 남자의 손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손목 입구를 조일 수 있는 버클이 있다. 125,000원 프레드페리
- 2 밤색 가죽에 니트로 염연을 덧댄 장갑이 당신을 '부드러운 남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99,000원 울벤
- 3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가죽 장갑. 안쪽은 니트라서 부드럽고 따스하다. 125,000원 프레드페리
- 4 스웨이드 가죽 안에 보송보송한 인조 털이 포근함을 선사한다. 95,000원 헤지스



- 1,5,6 정직한 도형과 색의 조화가 경쾌함을 자아낸다. 두툼한 내피 덕에 장갑이 벗어도 손까지 축축할 일이 없다.
 각 33,150원 휴머 by 벤드 오브 올레이어
 2 니트 장갑 안을 기모 처리해 따뜻하다. 34,000원 꾸마
 3 할머니가 된 것만큼 평범해 보이지만 숨을 품고 있다면 예기가 달라진다. 가격 미정 헌터
 4 니트 장갑이라고 무조건 내 손가락이 험청할 이유는 없다. 55,000원 타이힐피겨

BOUNCE WITH ME, VANS?

업무정 성형녀보다 이웃집 차자에게 마음이 가는 건, 된장 냄새 풀풀 풍기는 계집보다는 무난하고 편안한 스타일이 나랑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반스가 당신 발에 꼭 맞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S ARC STUDIO



VANS WORKER BEE D/WHEAT

당신이 어디서 동사체로 발견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연쇄살인마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눈이라도 올랑지게 내리는 날에는 신발 자체가 얼어버려 발가락이 질려나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아버지의 등산화나 등산 브랜드의 아웃도어화를 신어준다면 발의 온기는 지킬 수 있겠지만, 이는 911 테러로 순식간에 사라진 생명이 발등처럼 자신의 패션 감각에 가져다주지 못하는 달레반 자살 패션 테러 행위에 가깝다. 반스의 워커비나 기존의 워커나 아웃도어화를 거북하게 만들었던 뽀빠 뽀빠 나는 전투화 스타일에서 벗어나 나이키 에어모스 같은 운동화 느낌이 풍기는 녀석이다. 천연 가죽으로 감지는 살리고 따뜻한 안감으로 보온성까지 높혀 추위와 패션, 두 테러범을 잡은 셈이다. 워커비, 자제가 올래의 '체포왕' 일세.

가격 109,000원

9년째 한미음

방학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 여자 후배들 얼굴에 붓기도 오르고, 학교 앞 순대국밥부터 버스요금, 리면, 과자값, 등록금까지 진짜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다. 유행에 뒤처질 수 없는 패션 브랜드들도 기본 스니커즈 가격을 5천 원 이상 올리며 대세를 따라갔다. 이경규의 앙심 냉정과는 0점 때 필요한 것인가. 반스 어센티(3만 9천 원), 스케이트 하이(5만 9천 원)만큼은 2002년 국내 런칭 당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 착하다. 착해. 여자친구 선물로는 정말 나네만 한 게 없더라.

+ VANS SK8-HI RED

농구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조면이 합합 패션의 핫 아이템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케이트 보더를 위해 제작된 SK8-HI가 컨버스와 기본 아이템 생두마차를 달리게 된 건 그보다 더 빨랐다. 청바지, 면바지, 덩꼬바지, 간달바지, 수면바지 등 어디에 매치해도 어울리는 무난한 디자인. 보더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목을 잡아주는 튼튼한 하이와 쿠션감. 그리고 은근하게 들어 있는 키움이 굵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조건을 죄다 갖춘 녀석이다. 가격도 적당하고 이렇게 튼튼하다니, 그래서 내가 뻘배장국만큼이나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나니깐?

가격 59,000원





김태석(37세, 자영업)

재킷 / 디자인

안전모와 장갑 벨라레
고급 황
빈다나 보세
재킷 예스티엘
바지 후부
무츠, 보드 모두 버조틴



최민철(23세, 학생)

장갑 / 실용성

모지 디자인
고급 오플러
재킷 686
바지 에너제디시스템
무츠 실로몬
장갑 불룸
보드 버튼



조용익
(30세, IT업 종사)

재킷 / 피트감

모지 몬스터
고급 오플러
이머슨 스텔렌트
재킷과 바지 모두
올리앙
무츠 퍼린투
장갑 예세스크드
보드 시그널

특명: 설원 속 간지남을 찾아라!

STYLE

보드 실력이나 어차피 당장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니 색깔이라도
고와야 눈길 좀 받지 않겠어? BY 조다현 PHOTOGRAPHS ARC STUDIO

장소: 평안 위닉스파크(www.phoenixpark.co.kr 1588-2828)

오늘 패션의 포인트는? / 보드복 구입 시 고려 사항?



GO TO
MAXIM
IPAD
미공개 컷

손민철(33세, 자영업)

재킷 / 피트감

모지 보세
고급 일베트릭
빈다나 립
재킷과 바지 모두
슈가포인트
무츠와 장갑 모두
불턴
보드 실로몬



허원식(29세,
직장인)

보드 / 디자인



곽경탁(32세, 투자자)

재킷 / 디자인



최민준(28세, 회사원)

장갑 / 피트감

안전모 스미스
고급 오플러
재킷 픽삼버
바지 불룸
무츠 실로몬
장갑 섹텍
보드 클로우



조인섭(27세, 엔지니어)

반다나/ 디자인

모자 686
고급 이지투
반다나 본체
반다나 재킷, 바지, 장갑
모두 에스토틀
부츠 씨리투
보드 얼라이언

이정민(30세, 회사원)

바지/ 디자인

안장모 샌드박스
고급 이지투
부츠 티셔츠 프로타입
바지 슈기포인트
부츠 일렉 직수입
장갑 다카인코브라



강영구

(30세, 대학원생)

장갑/ 색상
고급 에어워크
모자 본체이
후드 티셔츠 탠데이بل
바지 뉴타입
부츠 코브라코스
장갑 캔디과인드
보드 헤드



장현덕(27세, 회사원)

보드/ 디자인



김지환
(23세, 스키 강사)

바니/ 디자인

바니 에스베니
고급 본체
재킷과 바지, 스키보드
모두 실로몬
부츠 헤드



김준섭(30세, 위류업)

후드 티셔츠/ 색상

임선택(28세, 안사)

반다나/ 피트감

모자 아날로그
고급 본지퍼
반다나 번
재킷 아날로그
후드 티셔츠 본체
바지 버튼
부츠 나이트로
보드 그레이



NO STYLE SNOW

하얀색은 깨끗한 맛에 사랑받는다. 각질만 빼고.
 BY CONCEPT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S 영도씨(060-334-3780) 크리니크(02-3440-2877)
 스킨79(1544-2230) 러쉬(1644-2357)

영도씨 릴리프 퍼스트 필링 젤

예민한 피부라면 각질 제거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터. 입자가 고운 알갱이가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100g 15,000원

스킨79

크리스탈 필링 젤

미세한 알갱이조차 없는 젤 타입이라 씻고 난 후 부들부들한 살결을 만드는 순간 각질이 제거된 것을 느낄 수 있다. 때 나는 듯한 시원함을 원하는 사람보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 추천한다. 100mL 12,000원

러쉬 슈가베이브

두껍게 쌓인 각질층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거친 입자의 위력엔 고통이 뒤따른다. 게다가 팩까지에 담겨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제품을 고체화한 형태라서 사용할 만큼 덜어 쓰고, 남은 제품을 물에 젖지 않게 보관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 알갱이가 물에 밀착되지 않아 굴러 떨어지기 전에 अच्छ게 문지르는 게 관건. 110g 15,100원



크리니크 세븐 데이 스크럼 크림 린스 오프 포뮬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므로 일주일 내내 사포질을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순하다 한들 발갛게 달아오른 분취구에 실패하진 말자. 100mL 34,000원

러쉬 오션솔트

다소 굵은 소금 입자가 부담스럽다면 물에 녹여서 사용하면 된다. 알갱이에 세는 바다 내용이 물씬 느껴진다. 얼굴과 몸 전체에 모두 사용 가능. 120g 27,900원 / 250g 44,700원

스킨79 스위트 하니 슈가

피부의 수분을 잃지 않도록 피부를 오랜 시간 촉촉하게 지켜주는 녀석 스크럼을 할 수 없는 민감한 피부라면 얼굴에 퍼버린 후 문지르지 않고 3~5분 뒤에 씻어내면 하자. 100mL 13,000원

DO THE TEST

선수 입장



- ① 러쉬-슈가베이브 ② 오션솔트
- ③ 스킨79-스윗 하니 슈가 ④ 크리스탈 필링 젤
- ⑤ 크리니크-세븐데이 스크럼크림 린스 오프 포뮬러
- ⑥ 영도씨-릴리프 퍼스트 필링 젤

내가 최고



각질, 확실하게 제거하자

1. 세안이나 샤워 후, 모공이 열린 상태의 젖은 피부에 사용
2. 일주일에 1~2번 사용
3. 연약한 피부엔 손으로, 각질이 두꺼운 곳엔 도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
4. 마스크 팩이나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MAXIM BUYER'S EDGE



트루젠, 트랜치코트 출시

남성용 브랜드 트루젠(TRUGEN)이 일찍 몸을 준비하는 비즈니스맨리얼 환영할 만한 트랜치코트를 출시한다. 트루젠 브라운 트랜치코트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기본 스타일로 분위기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특히 어울릴 만한 아이템. 점퍼에 주로 사용하는 소재를 트랜치코트에 적용해 좀 더 캐주얼하게 연출했다. 문의 02-3456-9000



추위에 더 강한 볼스런
줄고 목숨이 쏘아지는 겨울에는 온진 중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볼스럼에서 출시한 레인 OK 발수코팅워셔는 겨울철 앞 유리에 낀 상에를 제거해주고 추워서 휴팅물이 튀더라도 발수 코팅 효과로 와이퍼 작동 없이 저절로 사라지게 한다.
가격 4,900원
문의 080-500-1479



취락에선 나도 올림픽 선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취락스파크는 올림픽 경기장 조성 작업이 한창이다. 스키 프리스타일과 스노보드 부문 총 6경기(스키 프리스타일 3종목 모굴, 에어리얼, 스키크로스/ 스노보드 3종목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크로스, PGS)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중 두 개의 국제 규격 슬로프(에어리얼 총 연장 120m, 최대 경사 38°/ 모굴: 총 연장 240m, 최대 경사 27°)를 먼저 공개했다. FIS(국제스키연맹)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인을 받은 곳으로, 취락스파크 스키장 슬로프 중 최고 난도를 자랑한다. 동계 올림픽 공식 코스를 미리 즐길 수 있어 벌써부터 미니이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1588-2828 www.phoenixpark.co.kr(취락스파크)

시스템 옴므, 빈티지 캔버스 백팩 출시

'슬림 & 스타일리시'를 표방하는 '시스템 옴므(SYSTEM homme)'에서 세련도면서도 빈티지한 스타일의 'Canvas Pocket Backpack(캔버스 백팩)'을 출시한다. 정갈하고 부드러운 컬러의 캔버스를 소재로 한 보디, 바퀴와 손잡이 그리고 벨트드 장식에 사용한 소가죽이 캐주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두루 갖추었다. 프론트와 사이드에 자리 잡은 4개의 포켓은 효율성 높은 수납공간이자 백팩을 더욱 멋지게 보이게 하는 훌륭한 디테일이다. 가격 425,000원

문의 02-3416-2300(시스템옴므 청담 에비뉴점) www.system.co.kr



빈폴진, 리콘 트리밍 료 다용 점퍼 출시

매 시즌 빈티지함과 유려미인 감성으로 미니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빈폴진(Beanoole Jeans)이 리콘 트리밍 료 다용 점퍼를 내놓는다. 보온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소재감과 컬러를 트렌드에 맞게 제안한다. 안쪽에는 갤럭시 탭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의 02-2076-7629



소니코리아, 워크맨 A860 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 네버엔딩 플레이 프로모션 실시

소니코리아는 올해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워크맨 NMZ-A860 시리즈를 구입한 후 정품 등록을 한 고객에게 2,000mAh 대용량 휴대용 USB 충전기 CP-E1.S를 증정한다. S-마스터 MX 디지털 앰프를 통해서 휴대용 기기 최상의 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NMZ-A860 시리즈는 빠르게 반응하는 정전식 터치 LCD와 블루투스 기능, 정가 8만 원 상당의 라이언드 모니터링 MDR-EX300 이어폰을 번들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문의 080-777-2000(소니코리아)



소니 워크맨 A860 시리즈는 2012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구입한 고객에게 2,000mAh 대용량 휴대용 USB 충전기 CP-E1.S를 증정한다. S-마스터 MX 디지털 앰프를 통해서 휴대용 기기 최상의 음질을 재생할 수 있는 NMZ-A860 시리즈는 빠르게 반응하는 정전식 터치 LCD와 블루투스 기능, 정가 8만 원 상당의 라이언드 모니터링 MDR-EX300 이어폰을 번들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모든 기능이 제곱 하나에! 머벨 아웃랜드 재킷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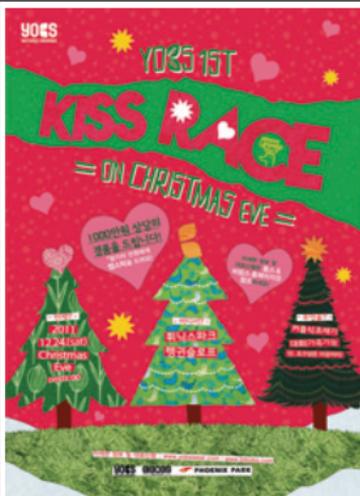
세계 판매 6년 연속 1위 브랜드 아델에서는 혹한의 아웃도어 활동 시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은 '아웃랜드(Outland)' 재킷을 선보인다. 아웃랜드는 방풍 재킷과 초경량 다운재킷이 합쳐진 3-IN-1 제품으로, 혹한의 환경에서도 따뜻한 몸을 유지해주며 각각 따로 착용해도 멋과 기능이 뛰어나다.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프리미엄 아웃도어 재킷이다.

문의 02-516-6611

글라스 비타민워터의 새로운 맛, 플라시

2012년 신년 뉴욕에서 날아온 아홉 번째 신상 글라스 비타민워터는 서서히 일상에 침투해가는 당신의 생활에 반짝 플라시를 터뜨려줄 수 있는 상큼한 그레이프-블루베리, 플라시(Flash)로 결정되었다. 매사에 캄캄깜깜하는 당신을 위해 비타민 E와 콜린 성분을 늘려 담았다. 그런데 비타민 워터 라벨에 있는 카피는 대체 누가 쓰는 거야?

www.glaceuvitaminwater.co.kr



1ST YOBS KISS RACE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는데 웬만한 건 해봤다고? 스노보드 웨어 브랜드 오피스 이벤트에 참여해보자. 크리스마스이브, 휘닉스파크에서 펼쳐지는 커플 대외로, 키스를 시작으로 서로 다른 코스로 보드를 타고 내려와 만나 다시 키스를 하는 과정의 초콜릿 재서 가장 빠른 커플을 뽑는 게임이다.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걸려 있다. 선착순 50명.

참가비 5,000원

www.yobobs.com
www.bibobs.com



프랑스 대표 브랜드 벤시몽(Bensimon) 오븐

센스 있는 패셔니스타의 필수 코스는 편집샵 시선 잡아줄 잘 있는 패셔니스타들은 백화점보다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가득한 편집숍을 찾는다. 패션의 고장 프랑스에서 물 건너는 편집숍 벤시몽(Bensimon)이 문을 열었다. 벤시몽은 에이랜드 명동점과 가로수길 입구점 로에오 플레그십 스토어,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32-1351 www.bensimon.kr



Gc워치, Gc SlimClass 42mm 시리즈 출시

절제되고 슬림한 스타일의 Gc SlimClass 42mm 시리즈는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특징. 트렌디하고 클래식한 슬림 목을 즐겨 찾는 남성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아이템이다. 우아한 이탈리아엔 브라운 컬러 크로커다일 패턴의 가죽 스트랩이 럭셔리함을 더해준다.

가격 538,000원 문의 02-551-7045



웬스나이트, 헤리오스 컬렉션 출시

10년 명성의 세계적인 여행 가방 브랜드 웬스나이트가 실용적이면서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헤리오스 컬렉션(Herios Collection)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여행용 슈트케이스 3종과 비즈니스용 랩톱 백 4종의 총 7가지 스타일로 출시되었으며, 출장부터 휴가까지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539-7770



브라운브레스, 두 번째 리테일 스토어 PASSAGE 오픈

스트리트 웨어 대표 브랜드 브라운브레스가 신사동 가문수길에 두 번째 스토어 PASSAGE를 오픈한다. 브라운브레스 제품뿐 아니라 아메리칸 오리지널 부츠 브랜드 '더너(Danner)', 스케이티브루 브랜드 '브릭스톤(Brixton)', 최고의 엠프 브랜드 '마셜(Marshall)' 헤드폰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함께 만날 수 있다. 또 클래식 앨범 컬렉션을 아이패드를 통해 직접 듣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인벤토리'나 '스키매거진' 같은 출판물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70-7404-2778

차태현, 4년 연속 세계 NO.1 캔커피 조자아 모델 입찰

코카콜라는 2008년 말 조자아 커피의 국내 론칭 때부터 모델로 활약해온 배우 차태현을 2012년에도 다시 모델로 발탁했다. 이로써 차태현은 4년 연속 세계 1위 캔커피 브랜드, 조자아 커피 모델을 맡게 되었다. 코카콜라는 측은 "차태현의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가 우리 시대 직장인 남성들을 대변한다"며 "현대 직장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한 휴식을 제공하는 '조자아 에메랄드 마운틴 플랜트'의 콘셉트를 가장 잘 표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2-3271-3074(코카콜라)



크레이지본 언더웨어 신제품 출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언더웨어 업계의 핫트렌드인 크레이지본(CRAZYBONE)에서 신제품이 출시 되었다. 다른 브랜드에서 선보이지 않는 화려한 스타일의 디자인과 감각은 200만 구매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들과 다른 속까지 멋진 남자가 되길 원하는 당신의 선택은 오로지 크레이지본이다. ENJOY WITH CRAZYBONE www.crazyboneshop.com

호가든, 겨울맞이 무를 담요 증정 프로모션

오리지널 벨기에 화이트 맥주 호가든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무를 담요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바(Bar)와 맥주 전문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호가든 4병 이상을 구매하고 객에 한해 화이트 맥주를 연상시키는 듯한 귀여운 디자인의 무를 담요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 무를 담요가 들어 있는 육각 전용잔 모양의 케이스는 저금종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실용성을 더했다. www.hoegaarden.co.kr



비보이 시티 인 서울, 롱

(비보이를 사랑한 빌레라) 초연 팀 '고릴라 크루'의 또 하나의 역작 (비보이 시티 인 서울, 롱)은 연식의 갈등과 행복, 춤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는다. 세계 최초 비보이 전용극장에서 세계 최고의 프로 댄스팀 '고릴라 크루'의 화려하고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즐겨보자. 색다른 춤을 추는 비보이 댄서도 있으니 비보이만 독실거릴 거라는 오해는 말자.

www.sjboys.com

에어워크, 코드스퀘어 노트북 백팩 출시

캐주얼 가방의 리딩 브랜드로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에어워크에서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코드스퀘어 노트북 백팩을 출시했다. 이번엔 선보인 코드스퀘어 노트북 백팩은 PU 원단과 나일론 소재의 적절한 조화로 내구성을 높였으며, 특히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춰 노트북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다.

문의 02-6557-1020



리복, 직액 작업티(베이트) 출시

신용에 판매되는 리빙와 중 가장 편안한 신발을 꼽는다면 단연 '직액'이다. 2010년 첫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직액이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유연한 아웃솔이 주는 다리 근육의 피로와 충격을 완화시켜 오랫동안 지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

가격 149,000원

문의 02-3446-4058

shop.reebok.co.kr

HUNTERS PARTY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자구가 망하기 전에
여긴 꼭 가봐야 여한이 없을 거대!

BY 김희성
PHOTOGRAPH MS-Photograph, OPNP
COOPERATIONS HUNTERS(www.thehunters.co.kr)



한티스 파티
클라기



HOT & FILTHY PARTY WITH HUNTERS!

헌터스... 헌터스... 당신의 구에도 익숙한 이 단어.
클럽 춤 다닌다는 당신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가봤을 테고 아직
못 가봤다 하더라도 헌터스 파티에 대한 이야기는 무지하게 들어왔을 거다.
요즘 이만큼 핫한 파티도 찾기 어려우니까 말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스문난 클럽 파티만큼은 더 이유가 있다.
올해는 기필코 클럽들 춤 제대로 먹어보겠다는 당신이라면 헌터스 파티만큼은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왜냐고?

REAL HARDCORE CUFFS PARTY

헌터스 파티는 '하드코어 수감 파티다. 파티 때마다 콘셉트가 바뀌긴 하지만
'경찰 코스튬'과 '수감'이라는 헌터스 파티의 기본 콘셉트는 꼭 가지고 간다는 말.
하드코어, 수감, 파티, 경찰 코스튬이란 단어만 들어도 헌터스
파티의 위엄이 추악하게 전해져 오지 않나?
심지어 가장 최근에 CLUB ANSWER에서 있었던 헌터스 파티에서는
헌터스에서 제공한 핏팅이와 손을 이용해 때리고 맞으면서 즐기는 하드코어
파티를 열기도 했다. HIT'EM UP BITCH!



HUNTERS CREW

도대체 이렇게 핫한 파티를 누가 만드는지 궁금하지?

헌터스 파티를 만들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 마땅한 이들은
2003년부터 총대, 강남 클럽을 근거지로 지속적으로
활동해오던 파티 애니멀들이다.

이들이 의기투합해 비야호로 2009년, 성인 전용 하드코어 수갑 파티
'헌터스'를 론칭한 거다(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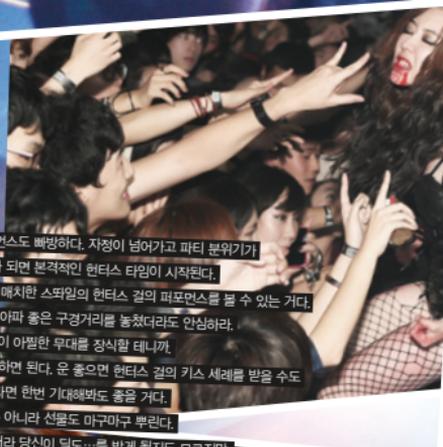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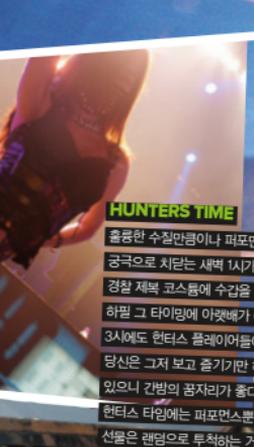
직업도 가지가지, 전문직 종사자부터 학생, 연기자, 모델 등이
헌터스 파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그런 그렇고, 헌터스 크루는 뭘 즐기려고
유명하다. 그러나 헌터스 파티 전체의 수침은 말할 것도 없겠지?

HUNTERS TIME

출품한 수질만큼이나 퍼포먼스도 훌륭하다. 자정이 넘어가고 파티 분위기가
공극으로 치닫는 새벽 1시가 되면 본격적인 헌터스 타임이 시작된다.
경찰 재복 코스튬에 수갑을 매치한 스파이의 헌터스 걸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거다.
하필 그 타이밍에 아랫배가 아파 좋은 구경거리를 놓쳤더라도 안심하라.
3시에도 헌터스 플레이어들이 아찔한 무대를 장식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보고 즐기만 하면 된다. 운 좋으면 헌터스 걸의 키스 세례를 받을 수도
있으니 간밤의 꿈자리가 출다면 한번 기대해보도 좋을 거다.
헌터스 타임에는 퍼포먼스뿐 아니라 선물도 마구마구 뿌린다.
선물은 랜덤으로 투척하는 거라 당신이 달도...를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NO FCKN MINORS!

헌터스 파티는 19급이다. "우오오오" 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클럽 파티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다. 하지만 파티 이름 앞에 딱하니 '성인 전용'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으니 왠지 더 으스스한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지 않나?
헌터스 파티에 가보면 이 수식어가 단순한 뉘시집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19급 딱지가 부끄럼지 않을 하근함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으니까.
헌터스 파티에만 유독 "23급인가요?"라는 질문이 따라나오는 것만 봐도
헌터스 파티가 다른 파티에 비해 환관한 건덕지가 있다는 반증일 터.
어찌됐든 올해 수등 친 12학년 새내기들이, 너네들도 갈 수 있대~♡





MAXIM ONLINE STORE

자신 호 MAXIM을 놓쳤나?

복숭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골렉스에
이별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경화하십시오!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이들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게 너무 길다던? 해외에서
주문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던? 사려던 MAXIM 과월호가
절판되었다던?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잡지 속 영상과 함께 생생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쪽 적립**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쪽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 전용 MAXIM의 미니아인기?

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1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2 MAXIM 고화질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서비스

3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4 촬영진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공개

5 잡지엔 없는 미공개 화보

6 다음달 MSS MAXIM을 당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MSS MAXIM 온라인 콘테스트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아 준비가 됐다?

← 새해 복도 받고, 요샌 빨랑 참여!

GIFT LIST

언더웨어 300M by 반8 / 시세이도 우노웍스 울트라 슬리드 / 맨즈플레이스 에프티 섀넬 / 루마카 글래스 달링이 세간제 / 소우스킨 순수남성형검제 스포링 클렌저 / 캔디 프라이오럴 / 슬라피드 차랑 텀링 체임권 / 피나스닉 방수 캠퍼드 / 슈가포인트 비니&보트북 / 그루쉬 맥주 / 리터 투 헬스D 티켓 / MAXIM 해외민 캠티너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남친대!

MAXIM 곳곳에 박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꼭대니 즐겨찾기 하시라.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트위터로
오이스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플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이 공짜 따윈 없애!

- 1 MAXIM 2012년 1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1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청부한 이미지가 때깔이 날수록, 내용이 알차수록 플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차츰는다!
- 4 블로그나 SNS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2012년 2월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 커고 확인한다. 2012년 1월의 승리자는 MAXIM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정현식 독자다. 다른 독자님들께서는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

이달의 도전 과제

야, 붙에 바람 안 빼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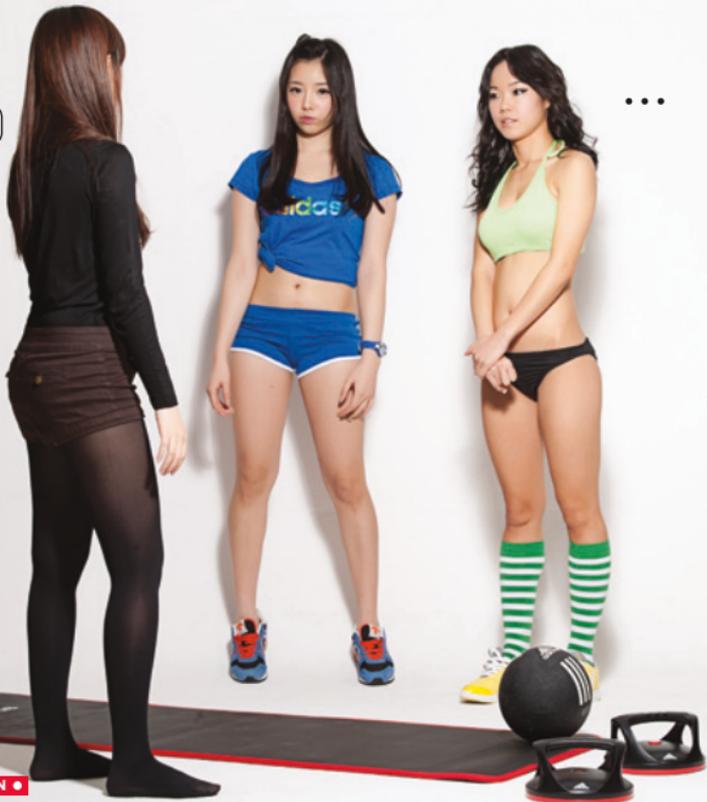
맨 왼쪽 누구?
위험 썰는 MAXIM 에디터



말풍선
달라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오빠 내일 군대 복귀하는데
오늘 술 한잔 할까? - 군에서 차인 놀

부대 복귀 하루 전날의 기분은 '개스레기 지랄 명병 같은 심정' 따위의 육두문자로도 표현이 부족하다. 소주 3병을 들이부어도 취하지 않으며, 병신같이 뻑뻑 같은 머리로는 여자를 고실 수도 없었다. '그래 어차피 내일이면 인생 막장인데 이 한 몸 갈래처럼 굴러보자'며 무리수를 던졌던 옛 기원을 떠올리며 에디터의 가슴이 찢어졌다. 게다가 군대에서 차였다는 이 독자, 내 그 마음 심부름 이해하네.

응모하기

- 1 움직인 캡션을 세라 슬직맨 마음에서 우러나네
-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시네마도 우노 왁스 울트라 슬리드**를 선물로 주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fm your father!!

ID 윤대훈

아버지, 날도 추운데
에스시네오.

MAXIM

뭔가 기대하는 눈빛 좀
보내지 마, 더운데
기면을 못 벗겠다!

ID 자창구

뭔가 기대하는 캡션을
보낸 것 같은데... 미안!

MAXIM

뒤에 아저씨 일하잖아,
확, 궁디 차릴까?

ID 바보상용

발음을 세계 하면 안 돼,
확, 궁디 자를가
해야지.

MAXIM

FX
남자의 모든 것

힘 꽤나 쓰는 형님들이 온다!

FX 채널 맛보고
과월호 받기



The World's Strongest Man
2012 세계 정력맨 챔피언십
1월 Coming Soon

tcast

FX Channel SCREENS DEVICES iTunes Amazon.com e-ON FOX FOX 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 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MAXIM

KOREA

ICON 정찬성

PLAYBOY 최강몸매
DJ 소피아

MISS MAXIM
최종 3인의 결승화보 용단폭격

FIGHT
UFC 7초 KO승 대기록,
코리안 준비가 같아치우다
UFC 레전드 열전 #2
WWE의 여신 켈리 켈리

MILITARY
원샷 원킬 스나이퍼

MOTOR
사람 제일 많이 죽은 모터 스포츠는?

STYLE
독자와 함께 1박2일 스노보드
겨울 간지의 마무리 장갑
각질과의 전쟁

SEX
에디터가 알려주는 입 잘 놀리는 법

비재미 방송사고
현아 VS 신정환
2012년의 히어로 무비



JANUARY 2012



www.maximkorea.net